

서사의 붕괴, 구조의 강제:

한국 청년 세대의 생애경로와 아노미

Narrative Collapse and Structural Coercion:
Life-Course Trajectories and Anomie among Korean Youth

변용재

제1저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2학년



© 2026 Vance Byun.

This work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License.



서론

방법론 및 연구설계

1부. 서사와 구조: 형식 이론

- I. 서사란 무엇인가
- II. 서사-구조 순환
- III. 서사의 붕괴
- IV. 고통의 유형론
- V. 형식과 서사 평가 이론의 분리
- VI. 기존 이론과의 관계: 본 논문의 위치

2부. 한국 청년 세대에의 적용

- I. 서사의 존재 확인
- II. 서사의 내재화와 제도화
- III. 구조적 토대의 변동과 서사 붕괴
- IV. 고통의 네 유형: 한국적 발현
- V. 대안 서사의 탐색과 한계

결론

참고문헌

[초 록]

한국 청년 세대의 고통은 흔히 경제적 결핍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개인들이 방향 상실, 소진, 깊은 공허감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 결핍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층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그 층위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답해온 사회적 서사의 구조적 붕괴에서 찾는다. 한국 사회에서 1970년대 이후 좋은 대학 진학, 안정된 직장, 결혼, 주거 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경로 서사는 국가 주도 제도들에 의해 뒷받침되며 자명한 현실로 정착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안정성이 약화되고 주거 비용이 급등하면서, 이 서사가 전제하는 구조적 조건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차 확대되었다. 핵심 문제는 현실이 변화했음에도 서사가 충분히 갱신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이론화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서사-구조 순환 이론을 구성하고, 두 개의 독립된 분석 축으로 이루어진 이중 축 변수 체계를 도입한다. V 축($V1 \cdot V2 \cdot V3$)은 구조 변화에 대한 서사 조정의 시간적 지연, doxa의 개인적 강도, doxa의 사회적 밀도를 각각 측정하며, Q 축($Q1 \cdot Q2 \cdot Q3$)은 형성된 대안 서사의 사실적 부합성, 내적 정합성, 양산하는 구조의 성격을 평가한다. 두 축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V 축이 서사-구조 관계의 기하학적 조건을 기술한다면, Q 축은 그 조건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서사의 질을 평가한다. 이 틀 아래 고통의 네 유형—서사 내부의 고통($V2$ 고강도 조건), 이중 구축의 고통($V1$ 확대·규범층 잔존 조건), 아노미적 고통(doxa 사망 이후 Q 부재 조건),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V3$ 고밀도 조건)—이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조건이 체계적으로 기술된다.

이론적 틀은 1997년 이후 한국의 경험적 지표들에 적용된다. 담론적 명명(N포세대, 헬조선), 세대 간 doxa 조정의 비동시성, 구조 악화 이후에도 지속된 행동 관성(사교육비, 스펙 경쟁)을 수렴 패턴으로 읽어내어 $V1$ 간극의 확대를 해석하고, NEET 비율, 고립·은둔 청년, 청년 번아웃 지표가 그 결과로서의 고통을 확인한다. 나아가 레드필, N잡, FIRE, 비혼, 로컬 라이프 등 현재 유행 중인 대안 서사들을 Q 변수를 통해 평가하여, 아노미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들 중 어떤 것이 해악적 경로로 귀착하고 어떤 것이 덜 해로운 서사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는지를 논증한다.

본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이념형 구성과 해석적 추론을 채택하며, 이를 통해 관찰 불가능한 doxa의 작동을 간접 지표들의 수렴 패턴으로 포착한다. 이론의 설명 범위는 구조-서사 간극에서 비롯된 특정 종류의 고통으로 한정되며, 반증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정식화하여 이념형적 분석이 경험적 검증에 열려 있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은 한국 청년 세대에 대한 단일 사례 분석으로 기획되지 않았다. 이것은 서사-구조 이론의 역사적 일반성 시험(Weber의 경험적 자료), 핵심 명제의 경험적 검증(텍스트 분석 및 인터뷰 연구), 거시 이론으로의 확장(서사 생태계, 정치사회학, 비교사회학)으로 이어지는 2026-2036년 연구 프로그램의 이론적 총론(Grundlagenarbeit)이다. 모든 후속 연구는 여기서 형식화된 V-Q 이중 축 체계를 공유 분석 틀로 삼아 건물처럼 쌓인다.

주제어: 청년 세대, 서사 붕괴, 아노미, 생애 경로, 정체성, 의미 체계

[Abstract]

The suffering of Korean youth is typically attributed to economic deprivation. Yet the persistence of disorientation, burnout, and existential emptiness among the materially stable suggests that its source lies at a different level entirely. This paper locates that level in the structural collapse of the social narrative that has long answered the question: what kind of life should I be living? In South Korea, the life-course narrative linking quality university admission, stable employment, marriage, and homeownership was institutionally consolidated from the 1970s onward, becoming—through state-directed education, labor, and housing systems—an unquestioned experiential reality. Follow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structural conditions this narrative presupposed progressively eroded: labor market stability weakened, housing costs surged, and the causal pathway from credential to livelihood ceased to hold. The core problem is that reality transformed while the narrative did not.

To theorize this disjuncture, the paper constructs a narrative-structure circulation theory and introduces a dual-axis variable framework comprising two independent analytical dimensions. The V-axis (V1–V3) measures the temporal delay of narrative adjustment relative to structural change, the individual intensity of doxa, and its social-distributional density. The Q-axis (Q1–Q3) evaluates the quality of alternative narratives that emerge in the wake of doxa collapse: their factual adequacy, internal coherence, and the structural character of what they produce. The two axes operate independently. Whereas the V-axis describes the geometric conditions of the narrative-structure relationship, the Q-axis evaluates the substantive character of the narratives that inhabit those conditions. Under this framework, four types of suffering are systematically specified: intra-narrative suffering (high V2 conditions), double-bind suffering (V1 expansion with residual normative layer), anomic suffering (post-doxa Q-absence), and suffering under structural compulsion (high V3 density).

The framework is applied to South Korean empirical indicators from 1997 onward. Discursive naming events (N-po generation, Hell-Joseon), the non-simultaneity of doxa adjustment across generational cohorts, and the behavioral inertia that persisted through structural deteriorati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credential competition) are read as converging patterns from which the expansion of the V1 gap is interpretively inferred. Youth NEET rates, social isolation statistics, and burnout data confirm the resulting suffering. Alternative narratives currently in circulation—the red pill, multi-income identity (N잡), FIRE, non-marriage, and local life movements—are then evaluated through Q-variable criteria to distinguish those that function as harmful alternatives reproducing anomic conditions from those that hold open the possibility of less harmful narrative construction.

Methodologically, the paper adopts ideal-type construction and interpretive inference, capturing the workings of unobservable doxa through the convergent patterns of indirect indicators. The theory's explanatory scope is explicitly bounded to suffering arising from narrative-structure disjunctures, and falsifiability conditions are formally specified to ensure that the ideal-typical analysis remains open to empirical testing.

This paper is designed as more than a single-case study. It is the theoretical foundation (Grundlagenarbeit) of a research program spanning 2026–2036, which proceeds from historical generalization—testing the theory against Weber’s empirical materials on Calvinist and Confucian narratives—through systematic empirical verification via textual analysis and interview research, to macro-theoretical extension across narrative ecology, political sociology, and comparative sociology. All subsequent papers in the program share the V-Q dual-axis framework formalized here as their common analytical scaffold, each building upon it as floors upon a foundation.

Key word: Youth Generation, Narrative Collapse, Anomie, Life Course, Identity, Meaning System

서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방황한다. 원하는 직장을 얻은 사람도 공허함을 느끼고, 서사가 약속한 경로를 충실히 따라온 사람이 막상 그 끝에 서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한국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고통을 단순히 소득 감소나 자산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이 고통을 주로 경제·계층 구조의 문제로 읽어 왔다. 고용 불안, 주거비 상승, 소득 불평등은 분명 실재하는 조건이며, 청년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의 물질적 토대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설명만으로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왜 동일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방향을 잃는가. 그리고 왜 물질적 박탈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삶 전체가 붕괴하는 경험으로 나타나는가.

본 논문은 이 간극이 서사(Narrative)의 층위에서 발생한다는 직관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서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를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과적 이해 구조다. 서사는 사실적 기술(factual description)과 가치 판단(value judgment), 규범적 지침(normative prescription)이 결합된 인과적 이해 구조이며, 개인의 선택과 감정을 조직할 뿐 아니라, 집합적 차원에서는 Berger & Luckmann(1966)이 기술한 외재화·객관화·내재화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제도와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사의 형성과 붕괴를 분석하면, 앞서 제기한 두 질문—왜 같은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도 고통의 양상이 분기하고, 왜 어떤 고통은 정체성의 붕괴와 아노미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답할 수 있다.

이 문제의식은 동시에 기존 이론 전통의 한계를 겨냥한다. Merton(1938)의 아노미 모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포착하지만, 그 괴리가 왜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경험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Durkheim(1893; 1897)의 규범 공백 개념은 규범의 해체 이후의 상태를 기술하지만, 동일한 규범 공백 아래에서 고통의 양상이 왜 분기하는지를 포착할 수 없다. Bourdieu(1977)의 아비투스(習性)는 내재화된 성향의 관성을 설명하지만, 그 관성과 현실 사이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이중 구속—따르는 것도 멈추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교착—을 분석하지 않는다. Han Byung-Chul(2010)은 성과사회 내부의 자기 착취를 포착하지만, 그 내면화가 어떤 서사적 메커니즘을 경유하는지, 그리고 자기 착취와 아노미와 구조적 강제가 어떻게 상이한 고통의 경로를 이루는지를 세분화하지 않는다. Rosa(2005)는 가속화가 소외를 낳는다고 진단하지만, 같은 가속 조건 아래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유형적 분기를 설명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서사-구조 관계에 대한 형식 이론을 구

축하고, 이를 한국 청년 세대의 “대학 진학-안정된 취업-결혼-내 집 마련” 생애경로 서사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전-서사적 현실(pre-narrative reality) 위에서 서사가 형성되고, Berger & Luckmann(1966)이 제시한 외재화·객관화·내재화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집합적으로 내재화되어 구조를 만들며, 다시 그 구조가 서사를 지탱·재생산하는 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서사를 지탱하는 구조(supporting structure)와 서사가 만든 구조(produced structure)를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시간이 흐르며 결과물이 전제조건으로 전화되는 ‘기원의 망각(oblivion of origin)’과, 서사가 세계 자체로 경험되는 doxa 상태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론화한다. 본 논문은 Bourdieu(1977)의 doxa 개념을 유무의 이분법에서 doxa 강도(V2)와 doxa 밀도(V3)의 이차원 연속 스펙트럼으로 재구성하며, 이 재구성이 이후 고통 유형의 분기 조건을 결정하는 분석 변인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서사가 구조를 통해 재생산되는 경로를 Gramsci(1971)의 거시적 헤게모니, Luhmann(1984)의 중범위 자기생산, Festinger(1957)의 미시적 합리화라는 세 층으로 구분하고, 개인이 서사와 맺는 관계의 상태에 따라 네 유형의 고통 메커니즘—서사 내부의 고통, 이중 구속(double bind)의 고통, 아노미적 고통,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을 도출한다. 이 네 유형의 발생 조건은 구조 변화와 doxa 조정 속도의 간극(V1), doxa 강도(V2), doxa 밀도(V3)와 서사의 사실적·규범적 층위의 상태 조합으로 기술된다. 네 유형의 분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며, 동일한 개인이 복수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 형식 이론을 토대로, 2부는 한국 청년 세대의 “대학 진학-안정된 취업-결혼-내 집 마련” 생애경로 서사를 분석한다. 논문은 국가가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교육을 결합한 서사를 생산·유포하고, 교육·고용·주거·연금 제도가 이 서사를 따르는 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해당 경로가 세대 전체의 표준적 생애상으로 객관화·제도화되었다고 본다. 대학 진학률의 급등(1980년 27.1% → 2008년 83.8%; 통계청, n.d.-b)과 “특별한 이유 없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응답(심재형 외, 2025)은 이 서사가 높은 밀도와 강도로 doxa 상태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현대경제연구원, 2007), 청년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구조화, 자산 격차와 주거비 상승은 “좋은 대학→좋은 직장→결혼과 내 집 마련”이라는 인과 구조의 사실적 부합성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NEET 비율 24.4%(국무조정실, 2024), ‘쉬었음’ 청년 42만 1천 명(고용노동부, n.d.),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하락(통계청, n.d.-a), 기관 신뢰도 28개국 중 27위(Edelman, 2025), 대인 신뢰도의 연속 하락(통계청, 2023)은 서사 붕괴와 아노미가 구조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틀에서 이 신뢰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서사 붕괴와 아노미가 관계적 층위에서 표출된 형태이며, 타자에 대한 신뢰의 침식은 대안 서사 형성에 필요한 서사적 토대마저 약화시키

는 이차적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문은 한국의 생애경로 서사가 소멸이 아니라, 사실적 층위는 크게 붕괴했으나 가치·규범적 층위가 강하게 잔존하는 기능 저하(functional degradation) 국면에 위치한다고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네 고통 유형의 한국적 발현을 추적하고, 대안 서사의 등장과 한계를 사실적 부합성, 내적 정합성, 양산하는 구조의 성격이라는 기준으로 검토하며, 서사와 구조가 서로를 전제하는 이중 구속 속에서도, 도식화되지 않은 균열과 잠복 서사를 통해 다른 생애 경로와 덜 해로운 서사를 상상하고 구성할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서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서사-구조 순환의 메커니즘을 정교화하며, 서사 붕괴의 조건을 이론화하고, 고통의 유형론과 서사 평가 기준, 그리고 기존 이론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2부에서는 이 이론적 모델을 한국 청년 세대의 사례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모델의 경험적 설명력을 검토한다.

방법론 및 연구설계

연구 유형과 이론적 지위

본 논문은 경험적 자료의 수집·분석을 1차적 목표로 삼는 실증 연구가 아니라, 개념 구성과 이론적 모형화를 주된 과업으로 하는 이론 논문(theoretische Arbeit)이다. 그러나 이 이론적 작업은 현실과 무관한 사변적 구성이 아니다. 본 논문이 전제하는 인식론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서사·doxa·구조 간극은 개인 외부에 존재하며 개인을 강제하는 사회적 사실(fait social)로서 실재한다. 이것들은 개인의 주관적 해석 이전에 이미 제도와 집합적 행동 패턴 속에 객관화되어 있으며, 그 강제력은 직접 관찰 가능한 결과—대학진학률·노동시장 불안정화·혼인을 하라·자기보고된 방향 상실—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 의미에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해석자가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작동하는 구조적 힘이며, 그 힘이 한국 청년의 고통이라는 관찰 가능한 결과를 산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념화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과업이다.

이 입장은 Durkheim의 사회적 사실 개념과 Weber의 이념형 방법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다. Durkheim이 자살자를 인터뷰하지 않고도 사회적 통합이라는 실재하는 힘을 집합 통계를 통해 포착했듯이, 본 논문은 doxa와 서사-구조 간극이라는 직접 관찰 불가능한 메커니즘을 제도적 지표·태도 자료·코호트별 행동 패턴의 수렴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그 메커니즘이 낳는 고통의 유형들은 복잡하고 분산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분석적으로 명료화하기 위해 Weber의 이념형(ideal type)을 도구로 활용한다. 이념형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경향들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개념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구성되는 분석 장치로서, 현실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로 기능하며 그 자체가 현실을 직접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 결합—실재하는 구조적 힘의 포착이라는 Durkheim적 목적과 그 힘의 패턴을 유형화하는 Weber적 도구—은 Merton(1938)이 Durkheim의 아노미를 존재론적 전제로 삼고 다섯 가지 적응 유형을 이념형으로 제시했을 때 이미 선례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이 구성하는 네 가지 고통 유형과 doxa의 세 차원(V1/V2/V3), 서사-구조 순환 모형, 내러티브 붕괴 유형은 이념형적 구성에 해당하되, 이 이념형들을 생성하는 논문의 전체 기획은 그보다 상위의 작업이다. 그것은 한국 청년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적 개념틀(interpretive conceptual framework)의 제안이다. 이 개념틀은 기존에 분리되어 분석되던 현상들—노동시장 불안정화, doxa의 관성, 자기 착취, 아노미적 방향 상실—을 서사-구조 간극이라는 단일한 생성 메커니즘의 상이한 표현으로 읽게 해준다. 이 틀로 보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는 주장이 이 논문의 핵심 기여다.

이 이념형적 구성에 관한 한 가지 메타 규정이 필요하다. 본 이론이 서술하는 네 유형의 고통은 특정한 서사-구조 조건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증상의 메커니즘이며, 증상 자체의 고유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표면적 증상이 다른 메커니즘에서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메커니즘이 다른 표면적 증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이 이론이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증상의 형태가 아니라 증상을 생산하는 조건의 구조다. 따라서 이 이론의 설명 범위는 “구조-서사 간극에서 비롯된 특정 종류의 고통”으로 한정되며, 다른 원천에서 비롯된 고통—순수한 물리적 박탈, 개인적 상실, 정신병리적 고통의 생물학적 층위—은 이 이론의 설명 대상이 아니다. 이 범위 한정에는 이론의 결함이 아니라 이론이 다루는 현상의 경계를 명시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V1 확대는 4.3 이중 구속의 고통, 4.4 아노미적 고통, 4.5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의 필요조건으로 작동한다. V1이 확대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이 세 유형이 본 이론이 기술한 메커니즘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4.2 서사 내부의 고통은 V1 확대 이전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V1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V2와 서사성 스펙트럼 상위 지점의 자기관련성이 주 발생 조건이 된다. 이 구분이 반증 조건의 정식화에 직접 연결된다.

이론적 작업으로서 본 논문은 Popper(1934)가 제시한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명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이론적 임의성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명제들은 원칙적으로 반증 가능한 방향으로 정식화되며, 경험적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이론의 정합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 점검은 이론을 확증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론이 전제하는 발생 조건—doxa의 높은 강도·밀도, 구조적 조건의 변동, 그 간극의 확대—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론이 예측하는 고통 유형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이 이론이 감당하는 비판 가능성의 범위다.

본 논문의 분석 경로는 Lyotard(1979)의 거대서사 붕괴 테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2장에서 논한 두 가지 수정—내적 모순 지적과 구조적 조건 변화로의 재설명—을 전제로 한다. 이 수정으로부터 분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온다. 본 논문의 기본 관심은 거시적 수준—지배 서사의 형성·독점·붕괴·파편화라는 사회 전체의 서사적 운동—에 있다. 그러나 거시적 서사 붕괴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제도와 결합하여 재생산되고(중시적 수준), 최종적으로 개인의 내면에서 고통으로 경험될 때(미시적 수준)이다. 거시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착지하는지까지 따라가야 한다. 본 논문이 고통의 유형론과 이중 구속이라는 미시적 분석으로 귀결되는 것은 이 하강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 분석 경로에서 활용하는 이론적 자원은 층위에 따라 구분된다. 이 구분의 토대로 Berger & Luckmann(1966)의 외재화·객관화·내재화 변증법이 전체 층

위를 관통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이 변증법은 서사가 사회적 현실로 구성되고 개인에게 내재화되는 순환을 포착하며, 특히 객관화 단계—인간이 구성한 서사가 개인 외부의 강제적 실재로 굳어지는 과정—은 서사를 사회적 사실로 전제하는 본 논문의 인식론적 입장과 직접 접합한다.

이 위에서 층위별 이론 자원은 다음과 같이 분화된다. 미시적 수준에서 Bruner(1986)의 서사적 사고론과 Bourdieu(1977)의 doxa 개념은 객관화된 서사가 의식되지 않는 채로 세계 자체로 경험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Han Byung-Chul(2010)의 성과사회 테제는 서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구조를 포착하는 데 부분적으로 활용되나, 그가 규범적 명령인 Sollen(“해야 한다”)에서 능력의 담론인 Können(“할 수 있다”)으로의 이행으로 본 것과 달리, 본 논문은 두 명령의 동시 작동으로 분석한다. Festinger(1957)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구조적 조건이 변화했음에도 개인이 기존 서사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설명하며, 이는 V1 간극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긴장의 심리적 대응물로 기능한다. Žižek(1989)의 냉소적 이성(cynical reason) 개념은 doxa의 정당성이 소진된 이후에도 개인이 그 행동 방식을 지속하는 역설적 상태—알면서도 한다는 구조—를 포착하는 데 사용된다.

중시적 수준에서는 서사의 제도적 재생산 메커니즘을 포착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이 활용된다. Althusser(1971)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 개념은 교육·노동·가족 제도가 지배 서사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Luhmann(1984)의 자기생산(autopoiesis) 개념은 이 제도들이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작동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doxa의 제도적 관성—을 포착하는 데 기여한다. Gramsci(1971)의 상식(common sense) 개념은 지배 서사가 강제가 아닌 동의의 형태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보완적으로 설명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Merton(1938)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간극이 다양한 적응 양식을 낳는다는 논리를 제공하며, 이는 본 논문의 고통 유형 분류와 직접적으로 대응된다. Beck(1986)의 개인화 테제와 Reckwitz(2017)의 특이화(Singularisierung) 개념은 doxa의 독점 상태가 해체된 이후 서사 파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거시적 문화 변동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이 이론들은 서로 다른 전통에서 유래하지만, 각각이 포착하는 현상의 층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동원된다. 본 논문은 이 이론들을 단일한 메타이론적 틀로 통합하려 하지 않으며, 각 이론이 설명력을 갖는 분석 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1부. 서사와 구조: 형식 이론

I. 서사란 무엇인가

1.1 서사의 정의와 스펙트럼

서사(Narrative)란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형성하는 인과적 이해 구조다. 보다 정밀하게 말하면, 서사는 사실적 기술과 가치 판단이 결합된 인과적 인식이다.

사실적 기술만으로는 서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치를 하면 치아우식증이 줄어든다'는 인과적 기술이지만 그 자체로는 서사가 아니다. 여기에 '치아 건강을 위해 양치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과 규범적 지침이 결합될 때 비로소 서사가 된다. 서사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좋은 것에 도달하기 위한 인과적 경로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치 판단이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서사는 성립할 수 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얼핏 순수한 가치 표명으로 보이지만, 이 판단 안에는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인과적 전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가치 판단은 종종 인과적 이해의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며, 서사는 기술과 가치가 명시적으로 분리된 형태뿐 아니라 이처럼 압축된 형태로도 작동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서사가 이분법적 범주가 아니라 스펙트럼이라는 것이다. 순수한 물리적 기술과 완전히 서사화된 규범적 지침 사이에는 연속적인 이행이 존재한다. '불을 만지면 아프다'는 인과적 기술이지만 서사성이 낮다. '불을 피해야 안전하다'는 가치 판단이 결합되면서 서사성을 획득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안정된 삶을 산다'는 가치, 인과, 규범적 지침이 고밀도로 결합된 높은 서사성을 가진다.

이 서사성(narrativity)의 정도는 두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다. 이는 사실적 기술에서 규범적 지침으로의 전환이 얼마나 많은 매개 단계를 경유하는가를 가리킨다. '불을 만지면 아프다'에서 '불을 피해야 한다'로의 전환은 단일한 매개 단계를 거치며,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가 짧다. 반면 '좋은 대학을 가야 안정된 삶을 산다'는 교육 제도, 노동 시장, 소득 구조 등 복수의 구조적 조건을 경유하여 구성된 인과 경로 위에 규범적 판단이 결합된 것으로, 거리가 길다. 둘째, 역사적 특수성이다. 해당 서사가 성립하기 위해 전제하는 구조적 조건이 얼마나 특정한 시공간적 배열에 의존하는가를 의미한다. 특수성이 낮을수록 서사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성립하는 보편적 경험에 기반하고, 특수성이 높을수록 특정 사회의 제도적·경제적 구조에 강하게 의존한다. 이 두 차원은 대체로 연동된다. 사실적 기술에 가치 판단이 점진적으로 결합되어 서사성이 높아질수록,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역사적 특수성은 높아

지는 경향이 있다.

이 연동은 III장에서 분석할 서사 붕괴의 취약성과 직결된다. 두 차원에서 모두 높은 값을 가지는 서사일수록,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스펙트럼의 중간 지대는 Putnam(2002)이 두꺼운 윤리 개념(thick ethical concepts)이라 부른 표현들로 채워진다. “열심히“, “성실한“, “바람직한“과 같은 단어들은 기술인 척하지만 이미 도덕적 승인을 내장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문장은 사실적 기술처럼 보이지만 ‘열심히’라는 단어 안에 이미 가치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이 두꺼운 윤리 개념들이 사실적 기술이 가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통로를 만든다. 중립적 기술처럼 보이는 언어가 이미 서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압축의 구조는, 한 서사의 가치 부분이 다른 서사의 인과적 전제 위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사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참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서사의 붕괴가 단일 서사의 사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이 상호참조성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 서사의 가치 전제는 종종 다른 서사의 인과적 기술 위에서 성립한다. 예컨대 학벌 서사의 가치 전제—“안정된 직장은 좋은 것이다”—는 결혼·가족 서사의 인과적 전제—“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가정을 꾸릴 수 있다”—와 결합되어 있으며, 이 결합은 다시 주거 서사—“내 집이 있어야 가정이 안정된다”—의 인과적 기술을 경유한다. 이처럼 복수의 서사가 인과적 전제와 가치 판단을 상호 참조하는 구조 안에서, 하나의 서사의 사실적 층위가 붕괴하면 그 서사를 인과적 전제로 삼고 있던 다른 서사의 가치적 정당화도 약화될 수 있다. 결혼·가족 서사의 사실적 층위(“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가정을 꾸릴 수 있다”)가 현실과 어긋나면, 학벌 서사의 가치적 동기 부여(“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도 설득력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연쇄적 약화의 가능성은 서사 붕괴가 단일 서사의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서사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적 불안정화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연쇄는 반드시 하향적(사실적 층위 → 가치적 층위)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가치적 층위에서의 전환—예컨대 비혼 서사의 확산으로 “결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가치 판단이 부상할 때—이 학벌 서사의 인과적 동기(“좋은 직장을 얻어야 가정을 꾸린다”)를 역방향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서사 간 상호참조성이 만들어내는 이 양방향적 연쇄의 조건, 속도, 범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본 논문의 형식 이론이 열어놓는 후속 연구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이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학벌·결혼·주거·고용 서사가 어떤 참조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구조의 어느 고리가 가장 취약한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서사가 형성되는 조건은 두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조건(Structural Conditions)으로, 인간이 서사를 형성·유지하거나 기존 서사의 약화를 초래하는 외재적 현실의 총체다. Marx가 강조한 생산관계와 경제 구조가 포함되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술 수준, 제도, 자연환경, 인구 구조, 사회적 관계망, 미디어 환경 등 개인이 마주하는 사회적·물질적 현실 전반이 여기 포함된다. 두 번째는 서사적 토대(Narrative Foundation)로, 가정, 공동체, 반복적 생활 환경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 축적된 심리적·관계적 기반이다. 구조적 조건은 개인의 서사에 직접 작용하기보다 서사적 토대를 경유하여 영향을 미친다. 구조적 조건이 서사 형성의 외재적 출발점이라면, 서사적 토대는 그 조건이 개인의 내면에 뿌리내리는 매개 경로다. 특정 서사가 구조적 조건을 상실한 이후에도 존속한다면, 이는 어딘가에서 서사적 토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장에서 논의할 잠복 서사가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서사 개념은 Bourdieu(1977)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과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지만 구별된다. 아비투스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지속적인 성향(disposition)으로 나타나는 체계로, 음식 취향, 문화 소비, 말투 등 실천 감각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본 논문의 서사는 이와 달리 “어떤 삶의 경로가 정당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가”라는 규범적·인과적 의미 구조를 조직한다. 서사가 설명하는 것은 취향이 아니라 삶의 전략과 정당화다. 다만, 서사적 경험의 장기적 축적은 특정한 행동 경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때 형성된 실천 양식은 외형적으로 아비투스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성향 자체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의 형성과 붕괴의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물론 어떤 발화나 담론이 ‘서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를 서사의 영역에 편입할 것인지는 일정 부분 해석자의 판단에 의존한다. 본 논문은 서사성을 이분법적 속성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며, 시간성, 행위자, 인과적 연결, 규범적·가치적 평가가 서로 다른 강도로 결합하는 구조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때 개별 연구자가 어느 서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는가는 완전히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서사성 개념이 다른 텍스트와 맥락에도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적용이 설명력을 제공하는지에 의해 사후적으로 검증된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하는 서사 개념은 서사와 비서사의 경계를 일회적으로 고정하는 실체론적 정의라기보다, 다양한 경험적·이론적 논의에 이식 가능한 형식 이론(formal theory) 내지는 narrative assessment의 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 이론적 자세는 서사성의 스펙트럼 자체를 보다 정밀하게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본 절에서 서사성을 연속 스펙트럼으로 제안한 것은, 서사와 비서사의 경계를 고정된 선으로 긋지 않기 위함이었다. 다만 이 연속성 안에서 분석적 참조점을 제공하기 위해, 스펙트럼 위의 다섯 지점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술(technique)로, 행위의 수행 방식에 대한 학습된 패턴이다. 둘째는 인과적 이해로, 사건들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연쇄에 대한 기술이다. 셋째는 규범으로, 특정 행위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당위 판단이다. 넷째는 두꺼운 윤리(Putnam, 2002)로, 규범이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 자체를 평가하는 단계다. 다섯째는 세 요소가 자기관련성 및 삶의 방향성과 통합된 고서사성 구조다. 이 다섯 지점은 질적 전환점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 위의 참조점이며, 현실의 서사는 이 지점들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 혼합적으로 작동한다. 두꺼운 윤리 개념이 기술적 언어인척하면서 도덕적 승인을 내장하는 것은 이 스펙트럼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의 징후다.

이 스펙트럼은 이산적 단계들의 병치가 아니라 누적 구조를 이룬다. 상위 지점의 서사는 하위 지점의 요소를 내부에 포함하며 작동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고서사성 구조는 공부법이라는 기술적 요소, 학력과 소득의 인과 구조에 대한 이해, 성실해야 한다는 행위 규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행위자 평가를 모두 내장한 채 자기 정체성과 통합되어 작동한다. 이 누적 구조는 3.1절에서 논증할 비대칭 붕괴 현상—서사의 사실적 층위가 먼저 무너지고 규범적 층위가 마지막까지 잔존하는 패턴—의 구조적 근거를 이룬다. 서사가 기능 저하에 접어들 때 붕괴는 스펙트럼의 상위 지점부터 시작되며, 하위 지점의 요소는 상위 요소가 흔들린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잔존한다. 이중 구속의 고통(4.3절)과 아노미적 고통(4.4절)이 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이 누적 구조 안에서 어느 층위까지 붕괴가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형식 이론적 자세는 인지심리학에서 다루어 온 일반화된 인지 구조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할 수 있게 한다. Bartlett(1932)의 스키마와 Schank and Abelson(1977)의 스크립트는 시간적 학습과 당위·사실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서사성을 갖는다. 병원 스키마는 진료에서 검사를 거쳐 처방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쇄를 포함하며, 이 점에서 서사의 핵심 요소를 일부 공유한다. 그러나 스키마는 세계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 구조로서 자기관련성과 정체성과의 통합이 약하다.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서사는 앞서 제시한 스펙트럼의 상위 지점—자기관련성, 정체성과의 통합, 삶의 방향성이 결합된 고도의 서사성을 가진 구조—로 한정된다. 스펙트럼의 언어로 말하면, 스키마와 스크립트는 기술과 인과적 이해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규범과 두꺼운 윤리 층위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위치의 차이가 왜 doxa의 붕괴가 단순한 인지 수정과 질적으로 다른 경험인지를 설명한다. 병원 시스템이 바뀌면 병원 스키마는 갱신될 수 있으며, 스펙트럼 하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정의 인지적 비용도 낮다. 그

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doxa의 붕괴는 스펙트럼 상위 지점에서 자기 정체성과 삶의 궤적 전체와 통합된 고서사성 구조의 와해이기 때문에 존재론적 위기로 경험된다.

1.2 서사의 사회화: 외재화·객관화·내재화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된 서사가 사회적 현실로 자리잡는 과정은 Berger & Luckmann(1966)이 제시한 외재화·객관화·내재화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서사는 세 층위를 거쳐 확대된다. 첫 번째는 개인 서사(Individual Narrative)로, 특정 개인이 자신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한 고유한 의미 체계다. 두 번째는 집단 서사(Collective Narrative)로, 유사한 환경 속에 놓인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사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지는 의미 구조다. 세 번째는 지배 서사(Dominant Narrative)로, 집단 서사가 제도와 결합하여 사회 전체 차원에서 객관화되고 확대 재생산된 상태다. 이 세 층위는 고정된 단계가 아니라 상호 재구성의 순환적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재화의 과정은 유사한 구조적 조건 속에 놓인 개인들이 비슷한 개인 서사를 각자 형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과 해석을 공유하고, 그 공유가 반복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개인 서사는 집단 서사로 응고된다. 집단 서사는 이 단계에서 더 이상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이 공유하는 의미의 구조물로서 일정한 독립성을 획득한다. Berger & Luckmann이 논의한 바와 같이, 이 과정이 반복되고 제도화될 때 집단 서사는 지배 서사로 객관화된다. 그것이 인간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망각되고, 마치 본래부터 존재하던 사실인 것처럼 사회적 현실로 고착되는 것이다. 객관화된 지배 서사는 개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존재할 역사적 사실처럼 경험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교육을 비롯한 사회화 기제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때, Berger & Luckmann이 말하는 내재화의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그런데 이 내재화는 앞선 세대가 겪었던 것과 성격이 다르다. 다음 세대는 서사가 형성되는 원초적 경험, 즉 구조적 조건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사를 스스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완성된 지배 서사를, 그것이 서사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세계 자체로서 수용한다. 이렇게 객관화된 지배 서사가 교육, 미디어, 사회 제도 등을 통해 개인에게 내재화될 때, 그것은 서사적 토대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개인 서사의 형성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재화에서 출발한 순환이 내재화를 거쳐 또 다른 외재화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재화된 서사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재화된 서사 역시 또 다른 외재화, 객관화, 내재화의 순환 속에서 변형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그 계기는 두 가지 방향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개인 서사의 층위에서 내재화된 서사가 자신의 실제 삶과 충돌할 때 개인이 스스로 그 균열을 감지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서사가 집단 서사 혹은 지배 서사의 층위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다. 두 경우 모두, 기존의 서사는 비로소 서사로서 가시화되

고 새로운 서사가 형성될 조건이 마련된다.

결국 서사는 인간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형성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구속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 순환은 단방향적 발전 단계가 아니라 상호 재구성의 변증법적 과정이다. 서사가 작동하는 한 그것은 의심되지 않으나, 그 작동이 정지하는 순간 순환은 다시 열리게 된다.

이 세 변인은 본 논문의 핵심 분석 단위이며, 이하에서 도입되는 모든 보조 개념들은 이 단위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계가 작동한다. 1.1절의 서사성 스펙트럼과 전-서사적 층위로부터의 거리 개념은 $V1 \cdot V2 \cdot V3$ 가 작동하는 존재론적 토대—이 변인들이 측정 가능하기 위한 선행 조건—를 이룬다. 2.1절에서 정초할 인간학적 토대와 2.5절의 필요의 두 층위 구분은 $V1$ 간극이 왜 고통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인간학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2.2절의 네 가지 형성 메커니즘은 $V2$ 분포가 어떤 역사적 경로를 통해 특정 사회에서 높거나 낮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발생 경로론이다. 4.3절의 역방향 이중 구속은 기존 이중 구속 개념의 구조적 변형 유형으로, 동일한 분석 틀이 대항 서사 형성 과정에도 적용됨을 보인다. 이 위계는 보조 개념들이 V 변인 체계를 대체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경로와 변형 유형을 각각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는 이하의 논의에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V1 \cdot V2 \cdot V3$ 가운데 어느 것과 연결되는지를 참조점으로 삼을 수 있다.

1.3 서사의 관찰자 의존성과 doxa

Jerome Bruner(1986)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논리-과학적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적 사고다. Bruner에 따르면 인간은 단편적인 사실들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시간의 흐름과 인과의 맥락 속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한다. 서사가 수용되는 것은 논리적 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Bruner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 심리학(folk psycholog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민간 심리학이란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일상적 행위의 준거 체계로서,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암묵적 서사의 총체다. Bruner의 핵심적 통찰은 다음과 같다. 이 민간 심리학의 서사가 원활히 작동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서사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서사는 균열이 생기고 기대가 위반될 때 비로소 서사로서 드러난다. Bruner는 서사가 가시화되는 조건을 기술했으나, 이 가시화의 구조가 서사 일반에 대해 어떤

존재론적 함의를 갖는지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은 Bruner의 이 통찰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서사가 본질적으로 관찰자 의존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Bruner가 기술한 현상 — 서사가 작동할 때는 보이지 않고 균열이 생길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현상 — 을 일반화하면, 동일한 인과적 인식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구조가 드러난다. 그것을 내재화한 당사자에게 서사는 세계 자체로 경험되지만, 그것을 내재화하지 않은 외부자에게는 하나의 서사로 인식된다. 예컨대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는 명제는 그것을 깊이 내재화한 개인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지만, 이 서사가 부재한 문화권의 관찰자에게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집단적 믿음으로 인식될 수 있다. Bruner가 기술한 균열의 순간은, 이 관찰자 의존적 구조에서 당사자가 자기 서사에 대해 외부자의 시선을 획득하게 되는 사태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 관찰자 의존성은 Bourdieu(1977)가 말한 doxa 개념과 직접 연결된다. doxa란 가치 개입이 있지만 비가시적인 상태다. 명제로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판단임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대학은 가야 한다'가 당연한 것으로 경험될 때,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것이 1.1절에서 논의한 서사 스펙트럼에서 doxa의 위치다. 전-서사적 현실은 이 스펙트럼의 기원점에 놓이며, 인간이 그것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가치와 규범이 덧입혀져 완전한 서사로 이행하고, 충분히 내재화되면 doxa로 고착된다.

여기서 본 논문의 독자적 주장을 제시한다. doxa 상태에서 서사가 명제로 선언되어야 하는 순간은, 그것을 지탱하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징후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표어가 되는 순간이 이 이동의 징후다. 역설적으로, 명제화는 doxa의 작동이 아니라 doxa의 사망 선고다. 당연하게 살아지던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사태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다. 서사가 세계 자체로 경험되던 상태에서 벗어나 서사로서 인식되는 순간, 개인은 자신의 서사에 대해 외부자의 시선을 획득한다. Bruner가 기술한 균열의 순간이 바로 이것이다. 이 균열은 고통의 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서사와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첫 번째 순진함—서사를 세계 자체로 살아가는 상태—이 균열을 통해 종료될 때, 그 이후의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서사 일반에 대한 냉소로 이행하여 모든 서사를 허구로 치부하고 의미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가 구성물임을 인식한 채로 서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형식 이론은 이 두 경로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경로의 분기 자체는 형식 이론이 포착해야 할 현상이며, 그 분기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5.2절의 서사 평가 기준과 함께 결론에서 다시 논의한다.

Bourdieu에게 doxa는 의심조차 되지 않는 전제, 말해줄 필요가 없는 상식의 층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 사회를 보면, 동일한 서사도 모든 집단에게 똑같이 자명한 것은 아니다. 학벌 서사는 한국 사회 다수에게는 질문할 수 없는 전제처럼 작동하지만, 특정 종교 공동체나 주변부 계층에서는 처음부터 외부의 주장으로 경험되거나 이미 균열이 난 채 수용된다. 이 경험적 분화를 반영하면, doxa는 단순한 유무가 아니라 특정 서사가 누구에게 얼마나 당연하게 작동하는가의 분포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본 논문은 Bourdieu의 doxa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두 차원의 구분을 도입한다. 첫째, doxa 강도(doxa intensity, V2)는 개인 수준에서 특정 서사가 얼마나 자명하게 작동하는가의 정도를 가리킨다. doxa 강도는 0과 1 사이의 연속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서사를 세계 자체로 경험하는 완전한 doxa 상태이고, 0에 가까울수록 그 서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orthodoxy 상태다. 0.5 근방은 서사가 명제화되었지만 믿음의 정도가 불안정한 경계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 포착하는 경험적 근사 지표로는 해당 경로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했다”는 유형의 응답 비율을 제안할 수 있다. “왜 대학에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은 doxa 강도가 높은 것이고,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doxa 강도가 낮은 것이다.

둘째, doxa 밀도(doxa density, V3)는 사회 전체에서 특정 서사를 doxa 상태로 내재화한 인구의 비율, 혹은 그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을 가리킨다. doxa 밀도가 높을수록 그 서사를 믿지 않는 이들조차 그 서사가 만든 구조적 강제를 더 강하게 감당해야 한다. doxa 밀도가 80%인 사회에서 나머지 20%는 자신의 서사와 무관하게 80%의 집합적 행동이 만들어낸 구조적 강제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2.5절에서 논증할 “타인의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는 그 서사를 내면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강제를 가한다”는 명제의 조작화이며, 따라서 이탈 비용은 doxa density의 함수로 도출되는 파생 변수이지 별도의 독립 변수가 아니다.

이 두 차원은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 구조적 강제성, 대안 서사 네트워크의 가용성과 결합하여 이중 구축의 강도와 고통의 양상을 결정하는 분석 변인으로 기능한다. 구조 변화와 서사·doxa 조정 속도 사이의 간극(V1)은 3.1절에서 별도로 도입한다.

II. 서사-구조 순환

2.1 기원: 전-서사적 현실

서사와 구조의 상호 구성 관계는 순환적이다. 그러나 모든 순환에는 최초의 계기가 있다. 그 계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서사가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서사를 만든다는 명제는 닭과 달걀의 역설로 귀착된다.

Berger & Luckmann(1966)은 사회적 현실이 외재화·객관화·내재화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했지만, 그 순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순환의 시작점 문제를 괄호 안에 넣은 채 순환 자체의 논리에 집중한 것이다. 본 논문은 그 공백을 다음과 같이 채운다.

기원은 전-서사적(pre-narrative) 현실에 있다. 중력은 인간이 그것을 서사화하기 이전에도 사물을 낙하시켰고, 기후는 인간이 그것을 의미화하기 이전에도 생존 조건을 규정했으며, 생물학적 굶주림은 인간이 식량을 둘러싼 규범을 만들기 이전에도 신체를 움직였다. 이 층위는 서사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서사를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하는 인과적 이해 구조”로 정의한 것은 이 비대칭성을 이미 함축한다. 상호작용이 서사를 낳으려면, 상호작용할 환경이 서사보다 먼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정의로부터 내적으로 도출되는 귀결이다.

이 주장에 대해 Heidegger 이후 해석학 전통과 후기 Wittgenstein의 언어철학은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다. 물리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접근 자체가 이미 언어와 개념 틀을 통해 매개되어 있으므로, 순수하게 서사 이전적인 현실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인식론적 층위에서 옳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장은 인식론적 층위가 아니라 존재론적 층위에 있다. 우리가 중력을 중력이라고 인식하기 이전에도 사물은 낙하했다. 인식이 항상 매개된다는 사실이 매개 이전의 현실이 없다는 것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존재론적 비대칭은 인식의 순수성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현실의 선행성에 관한 주장이다.

이 비대칭성을 명시하는 것이 이후 모든 논의의 존재론적 전제다. 세계는 서사 이전에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과학 철학에서 제기된 비판적 실재론과도 접점을 가진다.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은 인간의 인식이 언제나 개념·언어를 통해 매개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인식과 독립된 실재의 층위를 상정한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세계는 서사 이전에 있었다”는 명제는, 이와 같은 존재론적 실재론 위에서 서사-구조 순환을 구성하는 시도이다.

이 전-서사적 현실의 층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전-서사적 토대란, 특정 서사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서사가 착지할 수 있는

환경적·물질적 조건의 충위를 가리킨다. Diamond(1997)가 지형, 기후, 작물과 가족의 분포 같은 생태·지리적 요인을 통해 문명의 장기적 경로를 설명했듯이, 특정 지역의 지형적 조건, 무역로의 위치, 국가 경쟁 구조는 이후 형성될 서사가 착지할 수 있는 가능 조건의 범위를 미리 제한한다. 이러한 전-서사적 충위는 아직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서사로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등장할 서사가 무엇을 문제로 삼고 무엇을 자명한 배경으로 남길 것인지를 제한하고 방향 짓는다. 서사는 이 토대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으며, 형성된 서사는 다시 전-서사적 조건을 해석하고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구성한다.

일단 서사가 형성되면 순환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는 구조와 서사가 상호 구성하는 관계에 진입한다. 그러나 순환이 시작된 이후에도 서사 붕괴의 선행 원인은 항상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이 이 비대칭성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전-서사적 조건은 단순히 서사가 착지하는 수동적 토대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서사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 행위·사고·생존 경로의 실현 가능성을 비대칭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이후 형성될 서사의 가능 공간을 구조적으로 선제한다. 이것이 전-서사적 조건이 생성하는 선택지의 제한이다.

이 제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첫째는 물리적 폐쇄다. 자원 빈곤, 지형적 조건, 인구 규모와 같은 요인은 특정 생존 경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농업 중심 서사는 경작 가능한 토지가 없으면 형성될 수 없고, 내수 중심 성장 서사는 내수 시장의 물적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둘째는 기회 비용의 비대칭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서사적 조건이 특정 경로의 비용을 다른 경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만드는 경우다. 이 조건에서 인간은 논리적으로 여러 서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낮은 특정 경로를 향한 서사가 압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서사적 조건이 서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 가능한 서사의 공간 자체를 비대칭적으로 구조화한다는 것이 이 명제의 핵심이다.

이 선택지의 제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사의 형성을 유인한다. 반복적으로 특정 경로만이 현실적 결과를 산출한다는 경험이 축적될 때, 그 경로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 서사가 형성된다. 즉, 전-서사적 조건이 생성한 구조는 서사의 원인이 아니라 서사 형성을 유인하는 인과적 압력으로 기능한다. 일단 서사가 형성되면, 그 서사는 2.2절에서 분석할 방식으로 다시 새로운 구조를 생성하며 순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 순환 안에서도 전-서사적 조건이 생성한 구조는 고정된 충위로 잔존하며, 서사가 만든 구조와 달리 집합적 서사 전환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

논쟁적인 사례를 논한다면 기술·플랫폼·알고리즘은 전-서사적 현실과 서사적 구조의 경계를 가장 선명하게 흔드는 사례다. 물리 법칙과 수학적 제약이라는 전-서사적 층위 위에서만 기술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떤 기술이 설계·도입·확산되는가는 특정 서사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은 전-서사적 토대 위에서 서사화된 구조로 조직되는 혼합 층위에 속한다. 동일한 인터넷·스마트폰·AI라는 전-서사적 기술 조건도, 성장·경쟁 서사와 결합하면 입시 플랫폼이 되고, 자율·여가 서사와 결합하면 전혀 다른 구조를 형성한다. 이 사례는 전-서사적 현실과 서사적 구조 사이의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사가 전-서사적 조건을 해석하고 재조직하는 방향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배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유동성은 2.1절에서 확립한 존재론적 비대칭 — 전-서사적 현실이 서사보다 선행한다는 명제 — 을 훼손하지 않는다. 기술의 물리적 제약은 서사 이전에 실재하지만, 그 제약 위에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가는 서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서사적 현실의 존재론적 선행성을 확립했다면, 그에 따라 그 현실에서 서사로 이행하는 매개항인 인간의 성격은 별도의 해명을 요구한다. 이 해명이 누락될 경우, 서사-구조 순환 모델은 “왜 인간은 반드시 서사화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공백을 노출하며, 이 공백은 3.3절의 아노미 정의—서사 없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구성적 조건에 대한 주장인지 근대 이후의 특수 조건에 대한 주장인지를 결정 불가능하게 만든다. 본 절은 이 매개항을 다섯 단계의 인간학적 명제로 명시함으로써, 2.2절 이후의 논의가 안정적인 토대 위에 놓이도록 한다.

첫째, 자연 상태에 대한 통념은 거부되어야 한다. 인간이 마주한 출발점은 Rousseau(1755/2003)가 가설적으로 상정한 자족적 균형 상태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압도적인 환경의 혼란이었다. 여기서 본 논문이 Rousseau와 갈라지는 지점은 출발점의 내용이지 사고 실험의 방법론이 아니다. Rousseau는 현재의 불평등을 탈자연화하기 위해 자연 상태라는 가설적 출발점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 방법론적 자세는 본 논문이 doxa화된 서사를 탈자연화하기 위해 전-서사적 현실이라는 출발점을 구성하는 작업과 구조적으로 동형이다. 본 논문이 반박하는 것은 Rousseau가 그 출발점에 부여한 내용—자족적 균형이라는 규정—이지 그러한 출발점을 설정하는 작업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Hobbes(1651/1996)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과도 동일하지 않다. 문제의 일차적 원천은 타인이 아니라 환경 자체였다—의미 없이 쏟아지는 자극과 사건들의 인지적 과부하가 그것이다. 자연 선택은 이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개체들만을 남겼으며,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자족적 원초 상태도 역사적 실재로 가정될 수 없다.

둘째, 자연 선택이 남긴 인간의 핵심 역량은 환경의 혼란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재조직하는 서사화 능력이다. Bruner(1986)가 서사적 사고를 인간 인지의 기

본 양식으로 기술한 것은 이 역량의 현상학적 확인에 해당한다. 왜 인간이 서사적으로 사고하는가에 대한 궁극적 답은 아직 열려 있으나—Bruner 자신도 이 질문에 결정적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추론 가능한 것은 이 역량을 가진 개체들만이 환경의 혼란을 이해 가능한 패턴으로 재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이 역량은 1.1절에서 제시한 서사성 스펙트럼 전체—기술에서 인과적 이해, 규범, 두꺼운 윤리를 거쳐 세 요소가 통합된 고서사성 구조에 이르는 연속체—를 생산하는 인지적 기반이다. 따라서 서사 역량은 후발적 문화 발명이 아니라 인간 종의 생존 조건이며, 본 절에서 확립한 전-서사적 현실과 동일한 층위—진화적·전-사회적 층위—에 위치한다.

셋째, 이 역량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인간은 서사를 만들 뿐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존재이며, 이 공유 가능성이 1.2절에서 논의한 집합 서사의 자연 발생적 기원을 이룬다. Tomasello(1999, 2005)가 논증하듯, 인간은 타자와 의도와 주의를 공유하는 공유 지향성(shared intentionality)을 종 고유의 인지 능력으로 갖추고 있으며, 이 능력이 문화적 학습과 집합적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Rousseau(1755/2003)가 인간의 사회성을 자연적 역량에서 도출한 통찰은 이 점에서 부분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출발점을 자족적 균형으로 설정함으로써 Rousseau가 도달한 결론—사회화의 발현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비판 구조—은 출발점의 내용을 수정하면 재구성된다. 본 논문의 입장에서 사회적 서사 생성은 혼란에 대한 인간 종 고유의 응답이며, 그 자체가 병리의 원인이 아니다. 병리는 사회화 일반이 아니라 사회화의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다. 즉 사회적으로 형성된 서사가 구조 변화로 인해 현실과의 적합성을 잃었을 때, 3.1절에서 도입할 V1 간극이 확대될 때 발생한다. 이 재정식화는 Rousseau의 비판적 문제의식—사회화 양식의 병리를 분석하는 작업—을 계승하되, 그 병리의 발생 조건을 자족적 자연 상태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서사-구조 간극의 확대에서 찾는다. 따라서 건강함의 기준은 자연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서사화 역량을 적절히 발휘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갱신하는 것이다. 이 재정의는 결론부에서 논의할 *seconde naïveté*(Ricoeur, 1990)의 실천적 태도와 직접 접속된다.

넷째, 이 역량의 발휘는 균질하지 않다. 서사 역량이 인간 종 일반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그 역량의 활성화 정도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매개된다. ISA(Althusser, 1971)와 가정을 통해 doxa가 깊이 내재화된 개인일수록, 자율적 서사 생성 능력은 위축되어 있다(Bourdieu, 1977). 이 명제는 1.3절에서 재구성한 doxa 강도(V2)와 doxa 밀도(V3)의 분포 개념과 직접 연결된다. doxa가 1에 가까운 개인은 기존 서사를 세계 자체로 경험하므로, 그 서사가 붕괴할 때 새로운 서사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인지적·정동적 자원을 보유하기 어렵다. 따라서 4.4절에서 분석할 아노미적 고통은 서사 역량 자체의 부재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의 활성화 조건이 구조적으로 봉쇄된 결과로 발생한다. 아노미는 이 관점에서 재정의된다—서

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사화 역량은 잠재적으로 보유되어 있으나 그것이 작동할 조건을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상태가 그것이다.

다섯째, 개인이 서사 역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서사를 형성한다 해도 세상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서사는 개인적으로 생산될 수 있으나, 그 서사가 작동해야 하는 공간은 이미 타인들의 서사로 굳어진 구조다(2.5절). 타인들이 만든 구조는 개인의 새로운 서사와 무관하게 개인을 강제한다. 이 비대칭이 4.5절의 구조적 강제 유형의 인간학적 토대를 이룬다. 인간은 서사를 만드는 존재이지만, 만들어진 서사가 구조로 전환되는 데에는 집합적 임계질량이 필요하며(2.4절), 그 임계질량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적 서사 갱신은 의미 차원에서는 유효하더라도 구조 차원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

이 다섯 명제로부터 본 논문의 인간학적 입장이 도출된다. 인간은 혼란스러운 환경에 던져졌고, 그 혼란을 견디기 위해 서사 생성·공유 역량을 진화적으로 획득했으며, 이 역량의 사회적 발현이 서사성 스펙트럼 전체에 걸친 집합 서사와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형성된 서사가 구조 변화로 부합성을 잃고 동시에 doxa 분포가 불균등하여 모든 개인이 새 서사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없을 때, 그리고 새 서사를 만들어도 타인들의 구조가 그 서사를 좌초시킬 때, IV장에서 분석할 네 가지 고통이 발생한다. 이 입장은 사회계약 전통—특히 Hobbes와 Rousseau—과 두 지점에서 차별화된다. Hobbes로부터는 자연 상태의 혼란이라는 출발점은 가져오되, 그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주권 권력이 아니라 서사화 역량이라는 점에서 이탈한다. Rousseau로부터는 가설적 출발점을 통해 현재의 구성물을 탈자연화하는 방법론적 자세와 사회화 양식의 병리를 분석하는 비판적 문제의식은 가져오되, 자연 상태가 자족적 균형이었다는 내용적 가정은 거부하며 그에 따라 병리의 발생 조건도 재정식화한다. 이 이중 이탈을 통해 본 논문은 사회계약 전통의 인간학적 문제의식—사회적인 것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계승하면서도, 그 전통의 정치철학적 결론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사회학적 메커니즘 분석으로 진입한다.

이 혼합 층위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산물 개념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 사회적 산물이란 인간의 행위와 실천과 관계가 일정한 안정성을 갖추고 외재화된 결과물의 총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세 층위가 포함된다. 도구·건축물·인프라·화폐·문서와 같이 물리적 형태를 갖는 물질적 산물, 법·규칙·조직·절차와 같이 형식화된 행위 패턴인 제도적 산물, 그리고 신념 체계·가치 위계·집합 표상·정체성과 같이 공유된 의미 구조인 의식적 산물이 그것이다. 이 세 층위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함께 묶여 작동한다. 화폐는 종이나 금속이라는 물질이지만, 그것을 화폐로 만드는 것은 중앙은행과 법정통화라는 제도이며, 그것이 가치를 갖는 것은 공유된 신뢰라는 의식이다. 세 층위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사회적 산물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정의는 전-서사적 현실과 사회적 산물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물질의 물리적 차원은 전-서사적이며 어떤 서사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그 물질이 사회적 산물로 변환되는 순간—종이가 화폐가 되고, 금속이 무기가 되거나 종교적 상징이 되는 순간—서사가 개입한다. 같은 금속이 어떤 사회에서는 화폐가 되고 다른 사회에서는 의례 도구가 되며 또 다른 사회에서는 단순한 교환재가 되는 차이를 만드는 것이 서사다. 이 경계 설정은 본 논문이 분석하는 “구조”가 단순한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물질·제도·의식 세 층위가 결합된 사회적 산물임을 분명히 한다.

2.2 서사가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인간학적 토대 위에서 보면, 1.1절의 서사 정의—“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형성하는 인과적 이해 구조”—는 임의적 정의가 아니라 인간 종의 진화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 규정이다. 이하 본 절에서는 이 역량이 특정 사회적 구조와 만나 어떻게 서사-구조 순환으로 전개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구조(Structure)란 사고·행위·서사의 선택지 공간을 비대칭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경로를 상대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다른 경로를 상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의 배열이다. 구조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다. 어떤 방향은 열고 어떤 방향은 닫는 방향성 있는 제한이라는 점에서, 구조는 선택지의 폭을 줄이는 동시에 특정 선택지에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 정의에서 구조의 강제성은 물리적 강제와 규범적 강제 두 층위로 나뉜다. 물리적 강제는 서사 전환과 무관하게 지속되며, 규범적 강제는 타인이 내재화한 서사의 시선과 기대로 작동한다.

이 정의의 범위는 의도적으로 넓게 설정된다. 지형·자원 빈곤과 같은 전-서사적 조건이 생성하는 구조, 서사가 집합적으로 내재화된 결과 만들어진 구조, 그리고 제도·법·시장이 만드는 구조가 모두 이 정의 아래 포섭된다. 그러나 이 세 유형의 구조는 기원과 변화 가능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서사적 조건이 생성한 구조는 어떤 서사를 내재화하든 변하지 않는 가장 원초적 층위를 이루고, 서사가 만든 구조는 집합적 서사 전환을 통해 원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구분이 2.3절에서 분석할 두 구조의 개념적 분리와 직접 연결된다.

구조적 조건을 서사의 외재적 출발점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구조적 조건의 상당 부분은 서사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재화한 결과로 만들어진 현실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Weber(1904/1905)는 칼뱅주의 서사가 근면과 절약이라는 행동 패턴을 만들었고, 그 행동 패턴이 자본 축적의 구조를 형성했음을 논증했다. 나아가 Weber는 이 구조가 일단 확립된 후에는 원래의 종교적 서사 없이도 자체적 강제력으로 구성원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사가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서사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이것이 더 일반적인 메커니즘의 역사적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이 메커니즘을 보다 정밀하게 해부하면, Weber의 직업 소명(Beruf) 논의가 시사하는 두 수준의 기능이 드러난다. 칼뱅주의 소명 서사는 노동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구원 여부의 징표를 확인하는 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금욕적 축적과 규율화된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때 서사는 두 수준에서 기능한다. 하나는 행위자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를 제시하는 가치·규범 구조로서의 정당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서사를 따르는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규칙·자원 배분 구조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통해 구조적 강제를 내면화된 형태로 재생산하는 구조화 기능이다.

이 두 기능의 구분을 하나의 형식 명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는 행위자에게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의미 구조를 제공하고(정당화 기능), 동시에 그 서사를 따른 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와 규칙이 형성·유지되는 과정을 통해 구조적 강제를 내면화된 형태로 재생산한다(구조화 기능). 소명 서사는 개인에게는 “게으르지 말라”는 도덕적 요청으로 경험되지만, 사회 전체 수준에서는 장시간 노동, 축적 규범, 신용·계약 질서와 결합하여 서사가 만든 구조(produced structure)로 굳어진다. 이 produced structure는 다시 다음 세대에 “원래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서사를 지탱하는 구조(supporting structure)가 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서사들이 형성된다. 이 두 기능의 구분은 이후 2.4절에서 분석할 세 재생산 경로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한국의 학벌 서사도 같은 방향의 인과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식민지 근대화와 미군정을 거치며 학력 기반 관료 선발 구조가 먼저 형성되었고, 서사는 그 구조에 적응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반론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2.3절의 틀에서 보면 그 구조는 학벌 서사의 지탱 구조(supporting structure)로 먼저 형성된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지탱 구조가 곧 현재의 학벌 기반 현실을 자동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가가 서사를 먼저 생산했다는 점이다. 1974년 발행된 정부 홍보 포스터는 “1981 1,000불 국민소득의 길”이라는 문구 아래 어린이들이 상승 화살표를 따라 달려가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경제적 성공을 향한 전진이 올바른 삶이라는 서사를 국가 차원에서 시각적으로 각인시킨 것이다. 이 서사가 집합적으

로 내재화된 결과로 1980년 27.1%에 불과하던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이 2008년 83.8%로 정점에 달했고(통계청, n.d.-b), 이 집합적 내재화가 행동으로 전환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팽창, 학벌 기반 채용 구조, 교육 서열화가 만들어졌다. 지탱 구조는 먼저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교육 서열 구조의 상당 부분은 서사가 내재화된 집합적 행동의 산물이다. 서사가 구조를 만든 방향의 인과가 여기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다.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는 그 서사를 내재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강제를 가한다. 불교 서사를 내재화하여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도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구조는 내가 내재화하지 않은 서사, 즉 사회의 다수가 내재화한 서사의 집합적 행동 결과물이다(Weber, 1904/1905). 내 서사를 바꾸어도 타인의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서사 전환의 개인적 한계이며, 두 구조를 개념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모든 사회적 산물의 형성에 서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사성의 정도를 규정하는 척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서사성의 정도를 전-서사적 층위로부터의 거리로 정의한다. 배고프다는 욕구 자체는 전-서사적이며 거리가 0에 가깝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인과적 연결을 포함하는 순간 최소한의 서사성을 획득하며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가족과 함께 식사해야 한다는 규범은 공동체 서사와 결합하여 거리가 더 멀어지고, 명절에 특정 음식을 차려야 한다는 의무는 정체성·전통 서사와 융합되어 전-서사적 층위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진다. 각 단계는 아래 층위의 필요를 토대로 삼지만, 그 필요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이 거리의 척도 위에서 사회적 산물의 형성 메커니즘은 네 경우로 분류된다.

첫째는 전-서사적 형성이다. 신체가 환경과 직접 마주치면서 형성되며 의미 매개를 거치지 않는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 Mauss(1934/1973)가 분석한 신체기법—수영법, 걸음걸이, 식기 사용법—이 전형적이다. 이런 산물은 전-서사적 층위와의 거리가 0에 가까우며, 모방과 반복으로 전수되고 서사적 정당화 없이도 형성·유지된다. 본 논문은 이 경우를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그것은 실천이론과 신체기법론의 분석 영역에 맡겨진다. 둘째는 사후 의미화다. 첫째 경우의 산물에 사후적으로 의미가 부여되어 정당화되는 단계로, 산물 자체는 거리 0에 가깝게 형성되었지만 그 산물에 대한 의식이 서사화되면서 거리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경우 서사 이론은 사후 의미화 메커니즘만을 분석하며, 행위 자체의 형성은 다른 이론적 자원이 담당한다. 셋째는 서사 주도 형성이다. 전-서사적 층위로부터 이미 떨어진 서사가 행위에 선행하여, 그 서사를 실현하기 위해 행위와 산물이 형성되는 단계다. Weber(1904-1905/1930)가 분석한 칼뱅주의 소명 서사가 자본 축적의 구조를 만들어낸 과정이 전형적 사례이며, 본 절에서 분석한

한국 학벌 서사의 형성 과정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는 doxa화된 전달이다. 셋째 경우의 산물이 다음 세대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세계 자체로 전달되는 단계다. 이 단계의 본질은 전-서사적 층위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사가 마치 거리 0인 것처럼—즉 전-서사적 필요처럼—경험되는 역설적 상태에 있다. 1세대에게는 서사였던 것이 2세대에게는 자명한 현실이 되며, 1.3절에서 도입한 doxa 상태와 2.3절에서 분석할 기원의 망각이 완성된 형태가 여기 해당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서사가 배고픔만큼이나 즉각적이고 자명한 필요로 경험되는 것이 이 역설의 구체적 발현이며, V1 붕괴가 존재론적 위기로 경험되는 이유도 여기서 도출된다—거리가 먼 서사를 거리 0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사가 붕괴할 때 마치 전-서사적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 네 경우는 시간적 발전 단계로도 읽힐 수 있으나, 모든 산물이 이 경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학벌 구조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생산한 서사가 한 세대 만에 다음 세대에게 doxa로 전달된 사례로, 첫째와 둘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셋째에서 직접 넷째로 진행했다. 본 논문이 분석하는 것은 서사 일반이 아니라 정확히 이 셋째에서 넷째로의 이행, 그리고 그렇게 doxa화된 서사가 구조 변화 속에서 흔들리고 붕괴하는 동학이다. 신체적 모방으로 형성되는 실천이나 사후적으로만 의미화되는 행위 패턴은 본 논문의 직접 분석 대상이 아니며, 본 논문의 서사 이론은 의미의 시간적·자기관련적 통합 차원—그리고 전-서사적 층위로부터의 거리가 떨어진 서사가 doxa로 굳어지고 붕괴하는 동학—을 담당하는 분석 경로로 한정된다. 신체적 모방, 기능적 상호의존, 물질적 인프라의 자체 논리 같은 다른 경로들은 다른 이론적 자원과의 분업에 맡겨진다. 이 한정은 본 논문이 다음 절에서 두 구조를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의 형식적 토대를 이룬다.

이하의 네 가지 분류는 서사 일반의 유형론이 아니다. 그것은 V2 분포—어떤 사회에서 어떤 서사가 얼마나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가—가 어떤 역사적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발생 경로론이다. 셋째(서사 주도 형성)에서 넷째(doxa화된 전달)로의 이행이 분석의 핵심이며, 이것이 한국 학벌 서사의 V2가 왜 특정 세대에서 높게 분포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적 근거가 된다.

2.3 두 구조의 개념적 분리

서사와 구조의 관계를 분석하려면 두 종류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서사를 지탱하는 구조(supporting structure)는 서사의 존속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서사보다 선행하거나 외부에 존재하면서 서사의 소구력과 전파를 가능하게 한다. 서사가 만든 구조(produced structure)는 서사가 내재화된 결과로 집합적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적 조건으로, 서사의 결과물이며 서사보다

후행한다.

이 두 구조는 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서사가 만든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서사를 지탱하는 구조의 일부로 전환된다. 결과물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전환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인식론적 효과다. t_1 시점의 서사 A가 생산한 구조 X는 t_2 시점에서 서사 B의 전제조건이 된다. t_2 시점의 사람은 X가 서사 A의 산물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X는 그냥 '원래 있던 것'으로 경험된다. Berger & Luckmann이 말한 객관화의 완성 — 인간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망각되고 본래부터 존재하던 사실처럼 고착되는 상태 — 이 여기서 확인된다. 구조의 기원이 망각되면 비판도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X의 기원인 서사 A를 비판해도, X 위에서 서사 B, C, D가 이미 쌓였기 때문에 X를 제거하면 그 위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이 과정은 1.3절에서 논의한 doxa의 형성과 직접 연결된다. 서사가 만든 구조가 지탱 구조로 전환되면, 그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서사는 점차 doxa 상태로 내려앉는다. 역으로, 서사가 doxa 상태를 벗어나 명제로 선언되어야 하는 순간은 그것을 지탱하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징후다.

한국의 영어 교육이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정(1945-1948)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편입, 원조 경제, 미국식 교육 제도 도입이 영어를 실질적 생존 조건으로 만들었다(t_0). 이것은 서사 이전의 구조적 강제다. 그 구조적 현실 위에서 “영어를 잘하면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는 서사가 내재화되었고, 집합적 행동으로 영어 중심 채용 구조, 수능 영어, 토익 시장이 형성되었다(t_1). 이후 영어 점수 없이는 서류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었다(t_2). 2025년 기준 국내 토익 응시자의 41.9%가 취업을 목적으로 응시하며 응시자의 약 73%가 21-30세 청년층이다(YBM 한국TOEIC위원회, 2026). 이 구조에서 태어난 세대는 영어 학습을 서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경험한다(t_3). 구조의 서사적 기원은 완전히 비가시화되었고, 영어 교육은 doxa 상태로 고착되었다.

2.4 파생 서사의 재생산 경로

단, 서사가 구조를 형성한 이후, 구조는 복수의 경로를 통해 새로운 파생 서사를 생성한다. 이 경로들은 상호 배제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작동하고 서로를 강화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파생 서사의 재생산 경로를 거시·중범위·미시의 세 층위에서 식별한다. 이 틀이 가능한 모든 재생산 경로를 망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서사가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핵심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분석 틀로 기능한다.

첫째, 거시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Gramsci(1971)의 헤게모니 경로다. Gramsci는 지배 집단이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피지배 집단의 동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교육 제도와 미디어를 통해 특정 서사가 ‘상식(common sense)’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로는 서사의 존속이 진리 가치가 아니라 이해관계와의 정렬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둘째, 중범위 층위에서 작동하는 Luhmann(1984)의 자기생산(autopoiesis) 경로다. 사회 체계는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요소를 스스로 생산하는 자기생산적 특성을 지닌다. 이때 특정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구조 자체가 자신의 유지에 필요한 서사를 기능적으로 생성한다. 예컨대 경쟁 구조는 “경쟁은 자연스럽다”는 서사를 별도의 기획 없이도 산출한다.

셋째, 미시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Festinger(1957)의 합리화 경로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지를 재구성한다. 구조에 이미 연루된 개인은 자신의 투자와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사를 강화하고 전파한다. 특히 매몰 비용이 클수록 이러한 합리화는 더욱 강해진다.

이 세 경로가 장기간 중첩될 경우, 서사는 의식적 선택 이전의 신체적·습관적 성향으로 침전된다. Bourdieu(1977)의 아비투스(habitus)는 바로 이러한 체화된 재생산 상태를 포착한다. 따라서 아비투스는 독립적인 경로라기보다 세 경로의 축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Althusser(1971)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와 억압적 국가장치(RSA)는 별도의 경로라기보다 위 세 경로—특히 헤게모니와 자기생산—가 제도적으로 구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틀에서 ISA와 RSA는 서사의 생산이 아니라 전달과 유지의 도관으로 기능한다. ISA의 핵심은 1차 서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교육은 중립적이다”라는 메타 서사를 함께 주입하는 데 있다. 이 메타 서사는 서사의 전달 자체를 비가시화한다.

수학이나 과학처럼 내용의 서사성이 낮은 영역은 실제로 일정한 중립성을 지닌다. “ $2+2=4$ ”는 사실상 스펙트럼의 0점에 가까운 명제다. 그러나 바로 이 실제적 중립성이 제도 전체의 중립성을 보증하는 장치로 전이된다. Bourdieu(1977)는 이를 상징 자본의 전이로 설명한다. 수학의 신뢰도가 역사 서술, 나아가 학벌 서사의 신뢰도로 확장된다. 그러나 내용의 중립성과 선택의 중립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가르칠 것인가는 언제나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이러한 도관들은 동시에 몰두의 임계질량을 형성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다수의 개인이 동일 서사에 몰두하면 매몰 비용이 축적되고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며 이탈 비용이 비대칭적으로 상승한다.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서사는 더 이상 믿

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조 자체가 그 서사를 따르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III장에서 논의할 서사 붕괴가 믿음의 변화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붕괴는 신념의 전환이 아니라 임계질량의 해체를 요구한다.

이처럼 구조 형성 이후 서사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세 층위에서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이러한 서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사의 확산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내생적 경로(endogenous path)는 개인과 소집단의 경험에서 형성된 서사가 집단 서사로 응고되고, 나아가 지배 서사로 상승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과정이다. Berger & Luckmann(1966)의 외재화·객관화·내재화 순환은 이 경로를 설명한다. 유럽 자본주의 서사가 민중의 경험과 사상가의 개념화를 통해 형성된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둘째, 외생적 경로(exogenous path)는 이미 외부에서 형성된 지배 서사가 엘리트·지식인·국가를 통해 수입되고, 교육·미디어·정책을 통해 확산되는 위에서 아래로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사는 기존 사회의 전-서사적 조건 및 기존 구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구성된다. 한국 자본주의 서사가 유럽의 시민권·투쟁 서사에서 국가주도 성장·반공 서사와 결합된 형태로 변형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현실에서는 내생적·외생적 경로가 결합된 혼합형이 일반적이다.

셋째, 구조적 증폭 경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확산 메커니즘이다. 알고리즘은 독립적인 서사 생산자가 아니라 기존 사용자 선호를 입력으로 받아 이를 선택적으로 증폭·필터링하는 구조적 장치다. 이 경로는 Luhmann의 자기생산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규칙이 자기강화될수록, 의도 없이도 특정 서사가 선택적으로 증폭된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doxa 강도(V2)를 국지적으로 급격히 상승시킨다. 에코 챔버 내에서는 특정 서사의 자명성이 강화되고 대안 서사와의 접촉은 차단된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전체의 doxa 밀도(V3)를 높이기보다는, 복수의 서사가 각각의 폐쇄적 공간에서 고밀도로 공존하는 파편적 분포를 형성한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 단일 서사가 높은 V3를 달성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수의 서사가 중간 수준의 V3를 분산적으로 점유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는 Lyotard가 지적한 거대 서사의 해체를 확산 경로의 구조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환경은 V1—즉 구조 변화와 서사·doxa 조정 속도 간의 간극—에도 질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환경에서는 서사의 조정 속도가 비교적 느렸던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서사가 빠르게 생성·확산·소멸한다. 이로 인해 서사적 조정이 구조 변화를 선행하거나 더욱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V1 역전 현상의 빈도와 조건은

아직 경험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2.5 구조적 조건의 세 종류와 이중 구속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구조적 조건은 세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서사 이전의 물리적 조건으로 자연환경, 생물학적 제약, 물리적 법칙이 이에 해당하며 어떤 서사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2.1절에서 확립한 순환의 기원점이다. 둘째, 자기 서사가 만들어낸 조건으로 내가 내재화한 서사에 따라 행동한 결과 만들어진 나의 현실이며 내 서사를 바꾸면 변할 수 있다. 셋째, 타인의 서사가 만들어낸 조건으로 사회의 다수가 내재화한 서사에 따라 행동한 결과 만들어진 사회적 현실이며 내 서사를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다. Weber(1904/1905)가 분석한 자본주의 구조가 그 전형이다.

구조적 강제는 물질적 층위와 규범적 층위로도 나뉜다. 규범적 강제는 타인이 내재화한 서사의 시선과 기대로 작동하며, 서사 전환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강제는 생존을 위한 실질적 필요로 작동하며 서사 전환과 무관하게 지속된다.

이 두 층위의 강제가 작동하는 인간학적 토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needs) 개념을 두 층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서사적 필요다. 식량, 물, 체온 유지, 안전, 수면과 같은 생물학적 생존 조건이 여기 해당한다. 이 층위의 필요는 인간 종의 진화적 조건이며, 서사 매개 없이 직접 신체에서 발생한다. 굶주림은 어떤 사회에서도 굶주림이고 추위는 어떤 사회에서도 추위다. 이 층위는 2.1절에서 확립한 전-서사적 현실과 같은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 둘째는 서사화된 필요다.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필요의 대부분은 첫째 층위가 아니라 둘째 층위에 속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필요”, “결혼해야 한다는 필요”, “특정한 형태의 소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이런 것들은 주관적으로 절실하게 경험되지만 그 절실함의 원천은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사회적 서사다. 같은 사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 소비가 절실한 필요로 경험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의 서사적 자기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사화된 필요는 그 자체로 단일한 층위를 이루지 않는다. 1.1절에서 제시한 서사성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 필요인가에 따라, 그 필요의 강제 성격과 붕괴 시의 고통 양상이 달라진다. 규범 층위의 서사가 만든 필요—예컨대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생활 규범—는 행위에 대한 압박으로 작동하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반면 두꺼운 윤리 층위에서 행위자 자체를 평가하는 서사가 만든 필요—“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청—는 수행 실패가 행위자의 도덕적 위상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

다. 세 요소가 자기 정체성과 통합된 고서사성 구조가 만든 필요—“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청—는 수행 실패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의 붕괴로 경험된다. 스펙트럼 상위에서 발생한 서사화된 필요일수록 자기관련성이 깊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때의 실존적 비용이 크다. 본 논문이 4.2절부터 4.5절에서 분석하는 고통 유형들은 주로 이 상위 지점에서 발생한 서사화된 필요의 동학에 해당한다.

두 층위는 분리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 구조와 결합하면 융합된다. 서사화된 필요는 처음에는 서사 차원의 압박이지만, 그것이 만든 구조가 자원 배분과 생존 조건까지 매개하게 되면 서사화된 필요를 거부하는 것이 첫째 층위의 필요인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한국 청년이 학벌 서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의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면 소득과 주거와 의료 접근과 같은 생존 조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 융합이 4.5절에서 분석할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이 작동하는 인간학적 메커니즘이며, 이중 구속이 단순한 의미의 교착이 아니라 생존 조건과 결합된 강제로 경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정식화는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한다. 첫째, 본 논문의 서사 이론이 모든 필요를 자기 안으로 흡수하지 않으며 전-서사적 필요는 별도 층위로 인정된다. 둘째, 서사화된 필요라는 범주를 통해 본 논문은 한국 청년의 고통이 단순한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는 출발 직관을 이론적으로 정초할 수 있다. 셋째, 서사화된 필요 내부에 스펙트럼상 층위 차이가 존재한다는 명시를 통해, 4장에서 분석할 고통 유형들이 서사성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 필요와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위치지을 수 있다.

이 순환 구조가 확립되면 이중 구속이 발생한다. 서사를 바꾸려면 구조를 바꿔야 하고, 구조를 바꾸려면 서사를 바꿔야 한다. 본 논문에서 이중 구속(double bind)이라는 표현은 Bateson 등(1956)의 원래 용법—대인 관계 내에서 상반된 명령이 동시에 부과되는 의사소통 구조—과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다. 여기서 이중 구속이란, 서사의 사실적 층위는 이미 현실과 어긋났음을 인지하면서도 규범적 층위가 잔존하여 그 서사의 경로를 멈출 수 없는 상태, 즉 따르는 것도 멈추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데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교착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IV장의 고통 유형론에서 핵심적 구분 기준이 된다. 이중 구속 상태에서는 서사의 규범이 여전히 주체의 행동을 이끈다.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실천의 반복이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핵심이다. 반면 4.4절에서 논의할 아노미적 고통은 서사의 규범마저 더 이상 주체의 행동을 조직하지 못하는 상태, 즉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의 기준 자체가 부재한 공백의 경험이다.

그러나 이 이중 구속은 개입 불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종류의 구조가 개념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개입 지점도 분리된다. 타인의 서사가 만든 조건은 개인의 서사 전환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구조적 조건의 회복이 일차적 과제다.

그러나 구조의 즉각적 회복이 불가능할 때, 자기 서사가 만든 조건은 대안 서사의 지원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구조적 개입과 서사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나아가 이중 구속은 완전한 의미에서 폐쇄될 수 없다. 어떤 서사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한 강도로 doxa로 내재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시즘과 전체주의 체제는 교육·미디어·당·비밀경찰을 총동원하여 서사의 동질화를 시도한 역사적 극단이지만, 그 안에서도 지하 출판, 망명 지식인, 내면의 이탈자는 항상 존재했다. 완전한 doxa의 동질화는 역사적으로 달성된 적 없는 이상형이다. 전-서사적 현실에 가까운 것들조차 동일한 doxa로 수렴되지 않는다. 모두가 밥을 먹는다는 수준에서는 합의가 가능하지만,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는가는 문화와 계급,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doxa는 단일한 속성이 아니라 특정 서사가 당연한 것으로 작동하는 정도가 사회 내부에 어떻게 분포하는가의 문제다. 이중 구속 역시 유무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이며, 그 강도는 해당 서사의 doxa 분포 밀도와 이를 지지하는 구조적 장치들의 강제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점에서 이중 구속은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 항상 균열 가능성을 내장한 구조다.

이 두 층위의 구분은 V 변인 체계의 인간학적 기반을 이룬다. 전-서사적 필요는 어느 사회에서나 충족되어야 하는 불변 조건이며, 이 조건의 존재가 V1 간극이 단순한 의미의 불일치가 아니라 생존 조건과 결합된 강제로 경험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다. 서사화된 필요는 V2의 내용을 채우는 것—내재화된 doxa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며, 스펙트럼 상위일수록 V1 붕괴 시의 고통 강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연결이 명시됨으로써, 이하 4장의 고통 유형 분석은 추상적 의미 분석이 아니라 생존 조건과 연결된 구체적 강제의 분석으로 자리잡는다.

Ⅲ. 서사의 붕괴

3.1 붕괴의 스펙트럼과 임계점

서사의 붕괴(Narrative Collapse)란 기존에 객관화되고 내재화된 서사가, 그것을 지탱하던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설명력과 효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다. 서사는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 즉 서사가 약속하는 것이 그 서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현될 때 — 그 정당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구조적 조건이 변화하여 서사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때, 서사는 의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고 정당성의 기반을 점차 잃어간다.

서사의 붕괴는 하나의 고정된 상태라기보다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서사는 내재적 균열을 포함하고 있다. 그 균열은 서사를 내재화하지 않은 외부자의 시선에서도, 때로는 당사자 일부에게도 처음부터 존재한다. 그러나 구조적 조건이 서사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한, 그 균열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1.3절에서 논의한 관찰자 의존성의 구조가 여기서 작동한다. 균열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은 서사가 약속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 때이며, 이 균열은 집단적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재화된 서사가 자신의 실제 삶과 충돌하는 경험이 반복될 때, 개인은 집단적 서사 붕괴에 앞서 스스로 그 균열을 감지할 수 있다.

간극이 임계점을 넘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서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될 때, 붕괴가 시작된다. 임계점은 서사적 토대의 강도, 대안 서사의 가용성, 균열 경험의 집단성, 그리고 구조적 조건 변화의 속도·가역성·가시성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밀한 규명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이 복합적 변수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구조가 변화하는 속도와 서사·doxa가 그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 사이의 간극이다. 이 간극을 V1으로 표기한다. 보다 정밀하게 말하면, 구조 변화 속도는 고용·임금·주거 등 전-서사적·제도적 구조 지표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가를 가리키고, 서사·doxa 조정 속도는 그 변화에 맞추어 서사의 사실적 층위와 doxa 분포가 현실을 반영하도록 수정·재조정되는 속도를 가리킨다. V1은 이 두 속도 사이의 간극, 다시 말해 현실 조건의 변화율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서사의 조정 속도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형식 변수다.

여기서 V1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V1은 구조-서사 관계의 시간적 측면, 즉 구조 변화에 서사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가의 문제만을 포착한다.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조정의 속도가 V1의 내용이다. 그러나 구조-서사 관계에는 또 다른 축이 있다.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정의 결과로

형성된 서사가 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의 문제다. doxa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서사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되었더라도 사실적 부합성이 낮거나 내적 정합성이 깨졌거나 해로운 구조를 양산하는 경우, 그 상태 자체가 고통의 원천이 된다. 이것은 V1이 포착하는 시간적 간극과 구별되는 별도의 차원이며, 본 논문은 이를 조정의 질 변수($Q1 \cdot Q2 \cdot Q3$)로 형식화하여 5.2절에서 정의한다. V1과 Q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실제 사회에서는 두 변수가 독립적으로 조합되어 상이한 고통 유형의 발생 조건을 구성한다.

V1의 간극이 클수록 서사의 사실적 층위가 현실과 괴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간극이 없을수록 서사와 구조가 동시에 조정되어 붕괴보다는 점진적 전환에 가까워진다. 간극이 역전될 경우 — 서사가 구조보다 먼저 흔들릴 때 — 붕괴 순서도 역전될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 이 간극은 거시 지표(고용률, 임금 구조, 진학률 등)의 변화율과 담론·인식 지표의 변화율을 비교함으로써 근사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정밀한 측정 방법론의 개발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그러나 V1은 구조 변화와 서사·doxa 조정 사이의 시차를 포착할 뿐, 조정된 서사가 덜 해로운 방향인지 오히려 배제와 폭력을 강화하는 방향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서사의 질적 평가는 5.2절에서 제시한 사실적 부합성·내적 정합성·양산하는 구조의 성격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V1이 0에 가깝다고 해서 아노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실과 서사가 서로 다른 세계를 가리키는” 비대칭 붕괴의 위험은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V1이 커질수록 3.3절에서 논의할 아노미적 상태와 4.4절의 아노미적 고통이 발생할 구조적 조건이 강화된다.

다만 사실적 층위가 먼저 붕괴하고 규범적 층위가 마지막까지 잔존한다는 이 순서는 보편적 법칙이 아니라 조건부 명제다. 한국 청년 세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이 패턴으로부터 다음의 조건부 형식 명제를 도출한다. 서사의 사실적·가치적·규범적 층위가 비대칭적 순서로 붕괴하는 경향은, 다음 세 조건이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첫째, 구조 변화와 서사·doxa 조정 속도 사이의 간극(V1)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둘째, 해당 서사의 doxa 강도(V2)가 높은 경우. 셋째, doxa 밀도(V3)가 높아 이탈 비용이 큰 경우이다.

역사적·비교 사례에서 이 조건들이 달라질 때 붕괴 순서는 달라진다. 1960년대 서구 반문화 운동처럼 규범이 먼저 거부되는 사례, 소련 말기처럼 가치가 먼저 침식되는 사례, 동독처럼 세 요소가 동시에 무너지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 명제의 반증이지 아니라, 조건 변수의 값이 달라졌을 때 이론 내부에서 이미 예측되는 결과다. 특히 전쟁, 대규모 테러, 정권 붕괴와 같은 서사적 충격(narrative shock) 사건은 별도의 주의를 요한다. 서사적 충격이란 구조적 조

건과 서사적 토대가 단기간에 동시에 급격히 타격을 받는 사건으로, V1의 간극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폭발하는 특수 조건이다. 이 경우 사실·가치·규범 층위가 순차적으로 붕괴하기보다 동시적으로 균열을 노출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비대칭 붕괴 명제는 구조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을 기본 전제로 하며, 서사적 충격 사건은 V1의 극단값으로 처리된다.

이 명제의 반증 조건은 다음과 같다. V1·V2·V3의 값과 무관하게, 서사의 사실적·가치적·규범적 층위가 동일한 속도와 시점에서 붕괴하거나, 어느 층위도 선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패턴이 복수의 독립적 사례에서 확인될 경우, 비대칭 붕괴 명제는 해당 맥락에서 반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비대칭 붕괴 명제와 별도로, V1 변수 자체의 반증 조건과 V1-고통 연결의 반증 조건을 분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층위의 반증 부담을 갖는다.

첫째, V1 자체의 반증 조건이다. V1이 확대되었다는 해석이 기각되려면, 구조가 변했다고 해석되는 시기에 서사도 함께 조정되었어야 한다. 한국 사례에서 V1 확대 해석이 기각되려면 1997년 이후 노동시장·주거 지표가 악화되는 동안 앞서 제시한 세 추론 경로—담론적 명명의 출현, 집단 간 doxa 조정 비동시성, 행동 패턴 관성—가 모두 서사 조정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N포세대”·“헬조선” 같은 담론이 1997~2000년대 초반에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거나, 사교육비·스펙 경쟁 강도가 1997년 직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거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doxa 조정 시차가 관찰되지 않았다면, V1 확대 해석은 해당 맥락에서 기각된다.

둘째, V1-고통 연결의 반증 조건이다. V1 확대가 4.3·4.4·4.5 유형 고통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이 기각되려면, V1이 확대되지 않은 사회·시기에서 본 이론이 예측하는 메커니즘—사실적/규범적 층위 비대칭 붕괴, 아노미적 공백, 구조적 이탈 비용의 강제—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어야 한다. 단순한 증상 유사성은 반증 근거가 되지 않는다. 증상이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본 이론이 기술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메커니즘(순수 물질적 박탈, 생물학적 우울, 개인적 상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한다. 본 이론이 기술한 메커니즘이 V1 확대 없이 작동하는 사례가 복수로 확인될 경우에만 필요조건 주장이 기각된다. 이 구분은 2036년 비교사회학 논문에서 동독·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시험될 예정이다.

V1은 수학적으로 직접 계산 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복수 지표의 수렴 패턴을 통해 해석적으로 추론되는 분석 단위다. 이 해석적 지위는 임의적 추론을 허용하

는 결함이 아니라, 본 논문이 분석하는 대상 자체의 인식론적 속성에서 도출되는 필연이다. Doxa는 정의상 “명제화되지 않음, 의심되지 않음, 세계 자체로 경험됨”의 상태이며, 작동 중인 doxa는 관찰 가능한 언어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담론이 나타나는 순간은 doxa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고, 담론이 부재한 시기는 doxa가 작동 중일 수도 있고 단순히 관심 밖에 있을 수도 있어 직접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은 Bourdieu가 doxa를 orthodoxy와의 관계에서만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Doxa는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만 관찰 가능한 대상이 되고, 작동 중에는 부재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V1의 해석은 세 가지 추론 경로를 통해 수행된다. 첫째, 담론적 명명의 소급적 마커다. “N포세대” (2011년경 등장), “헬조선” (2014~2015년경 확산), “이생망”, “쉬었음” 같은 간극 명명 언어의 출현 시점은 그 시점까지의 지연 기간을 소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마커로 기능한다. 한국의 경우 구조 악화가 시작된 1997년과 담론적 명명이 등장한 2014년 사이의 약 17년 시차가 V1 간극의 규모에 대한 해석적 근거가 된다. 담론의 등장은 doxa가 깨진 증거이자 동시에 이전까지의 지연 기간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중 기능한다. 둘째, 집단 간 doxa 조정의 비동시성이다. 1.3절에서 재구성한 doxa 분포 개념은 사회 내부에서 집단별로 doxa 조정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한다. 2010년대 초반에 N포 담론을 사용한 청년층과 여전히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규범을 유지한 기성세대 사이의 비동시성이, 사회 전체의 doxa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해석적 근거로 기능한다. 셋째, 행동 패턴의 관성 지표다. Doxa 자체는 관찰 불가능하지만, doxa가 지속된다면 그것을 따르는 행동은 관찰 가능하다. 구조가 악화되는 동안에도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 토익·자격시험 응시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 스펙 경쟁 강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doxa의 관성에 대한 간접 지표로 기능한다. 이 세 경로는 서로를 보강한다. 어느 한 지표의 인식론적 약점이 다른 지표의 강점에 의해 상쇄되며, 세 층위가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할 때 V1 해석의 강도가 확보된다.

이 추론 구조에서 대학 진학률은 V3(doxa 밀도)의 대리 지표로만 사용되며, doxa 조정 지연의 직접 근거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분리가 본 논문의 V1 해석에서 순환 논증을 차단한다.

V1 간극은 개인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의미 구조와 외부 현실 사이의 불일치이므로, 직접 측정 가능한 변인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추론되는 분석 단위다. 이 추론 방식은 Weber가 칼뱅주의 서사를 직접 수치화하지 않고 금융적 생활양식과 자본 축적의 제도적 결과를 통해 내면 구조를 해석한 방식, Bourdieu가 habitus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장(field) 내 행위 패턴과 위치 차이를 통해 내면화된 성향 체계를 추론한 방식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의미 차원을 다루는 사회학적 분석에서 변인의 직접 측정 불가능성은 형식 이론의 결함이 아니라 인식론적 조

건이다. 본 논문은 세 층위의 지표를 통해 V1 간극의 확대를 간접적으로 논증한다. 첫째는 거시 구조 지표로, 서사가 약속한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대졸 청년 고용률 및 직업 지위 추이, 학력 인플레이션 지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변화가 여기 해당한다. 둘째는 중범위 행위 패턴 지표로, 개인들이 서사와 현실의 간극을 감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집합적 패턴이다—청년 혼인율·출산율 급락, 수능·공시 응시 대비 포기율 변화, “N포세대”·“헬조선”처럼 간극을 명명하는 언어의 출현과 확산이 여기 해당한다. 셋째는 미시 서사 재구성 지표로, 간극 경험이 개인의 대안 서사 채택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FIRE·비혼·로컬 라이프 선택 증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존 서사를 문제화하는 담론 밀도가 여기 해당한다. 이 세 층위의 지표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V1 간극의 존재를 시사하지만, 세 층위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때 간극의 확대에 대한 해석적 논증의 강도가 높아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청년이 마주한 구조적 조건은 단속적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악화와 재구조화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면서 “정규직 대기업”을 전제한 생애경로는 점점 더 좁은 계층에게만 실현 가능한 경로가 되었다. 같은 시기 청년 실업과 NEET 비율은 2000년대 이후 20%대 중반 수준까지 고착화되었고, 중소기업·서비스·플랫폼 부문의 저임금·고용불안 구조는 하나의 예외적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자리 잡았다. 구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1997년 이후 한국 사회는 “학교→대학→대기업 정규직→내 집 마련”이라는 전후 세대의 표준 생애경로를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기간 동안 이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서사·doxa의 조정 속도는 훨씬 더 느렸다.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7.1%에서 2008년 83.8%까지 거의 직선적으로 상승했고, 외환위기 이후 청년 고용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2000년대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대학 진학률은 70%대를 꾸준히 유지했고, 토익과 각종 자격시험 응시 인원, 사교육·스펙 경쟁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조적 조건의 시계열과 비교해 보면, “대학 진학-스펙 강화-대기업·전문직 진입”이라는 생애경로 서사는 1997년 이후 10년 이상 구조 변화에 후행하며 유지되었고, 구조와 서사의 괴리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구조 변동의 속도와 서사·doxa의 조정 속도 사이의 간극이 바로 V1이다. V1이 0이라면 구조가 변하는 만큼 서사도 함께 조정되어, “좋은 삶”에 대한 서사가 구조적 현실과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의 시계열은 구조 지표가 먼저 급격히 악화된 뒤, 그 구조를 전제하던 생애경로 서사가 한참 뒤까지 관성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구조는 이미 “모두가 대학에 가도 모두가 안정적 중산층이 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서사는 여전히 “대학-스펙-대기업”을 유일한 정상 경로로 제시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V1의 간극이 앞서 제시한 비대칭 붕괴 명제 — 서사의 사실적 층위가 먼저 현실과 어긋나고 규범·가치 층위가 더 오랫동안 잔존하는 패턴 — 을 낳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3.2 기능 저하와 소멸: 붕괴의 두 형태

붕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기능 저하로, 서사가 아직 존재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설명하는 힘이 점차 약해지는 상태다. 다른 하나는 소멸로, 구조적 조건 자체가 사라지면서 서사가 작동 불가능해지는 상태다. 그러나 이 두 형태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서사의 운명은 단순히 구조적 조건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구조적 조건이 사라졌음에도 서사가 잠복하며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서사를 경험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서사적 토대가 남아 있거나, 그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서사적으로 전달되어 새로운 서사적 토대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로 전달된 경험은 서사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서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구조적 조건이 사라지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서사적 토대마저 소멸하며, 그 경험의 서사적 전달까지 단절되었을 때다. 수렵채집 공동체의 서사가 현재 온전히 복원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구조적 조건을 상실한 이후에도 서사적 토대를 통해 유지되다가 특정 조건 하에서 재부상하는 서사를 잠복 서사(Latent Narrative)로 개념화한다. 역사적으로 서사의 대규모 붕괴 이후에는 과거 서사를 현재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복고적 흐름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으며, 이는 인간이 완전히 낡은 서사보다 이미 내재화된 서사의 변형을 통해 의미 공백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억압 자체가 하나의 구조적 조건이 되어 서사를 능동적으로 재생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 서사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그 사례다. 억압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작동한다. 첫째, 자유가 부재하다는 현실이 매일 경험될수록 자유가 필요하다는 서사는 지속적으로 갱신되며, 억압이 강할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 서사도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둘째, 탄압이라는 공동의 경험이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사는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 생존과 연대의 언어로 전환된다.

본 논문은 형식 이론으로서 서사의 내용을 선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한 서사가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비난과 실패감을 강화하는 잠복 서사로, 다른 상황에서는 의미 회복과 재구성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양면성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잠복 서사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서사가 조우하는 구조적 조건의 상태다. 구조적 조건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V2(doxa 강도)만 높게 유지될 때, 잠복 서사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자기 비난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 구조적 조건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거나 서사적 토대가 새로운 맥락과 접합될 때, 잠복 서사는 과거의 경험적 기억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대안적 생애 경로를 구성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두 방향의 예측은 다음과 같이 조작화된다. 동일한 서사를 공유하는 두 집단 가운데 구조적 조건이 개선된 집단에서는 잠복 서사의 재부상이 관찰되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자기 비난 패턴이 관찰된다는 것이 이 명제의 경험적 함의다. 이 패턴이 역전되는 사례가 복수로 확인될 경우, 잠복 서사의 양면성에 관한 기술은 수정을 요한다.

3.3 아노미: 서사 붕괴 이후의 존재 상태

아노미란 본 논문에서 Durkheim적 의미의 규범 공백을 넘어, 서사 붕괴 이후 개인이 세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 정의는 2.1절에서 확립한 인간학적 토대와 직접 연결된다. 아노미는 인간이 본래 갖춘 서사화 역량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그 역량의 활성화 조건이 doxa 분포의 불균등과 구조적 강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봉쇄된 상태다. 따라서 아노미는 인간학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며, 이 점에서 그것을 해소하는 경로 역시 인간 본성의 회복이 아니라 활성화 조건의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서사는 세계의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이므로, 서사가 붕괴하고 새로운 서사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넘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서사의 붕괴와 그에 따른 아노미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다. Bauman(2000)이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로 명명한 이 조건은 단순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가 유동화되면서 삶을 조직하던 안정적 틀들이 해체되고, 그 공백 속에서도 사회가 집합적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액체 근대에서는 구조적 실패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무기력·혼란·방향 상실로 나타나고,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의 차원에서는 공통된 의미 체계의 부재와 집단적 결속력의 약화로 나타난다. 두 차원은 분리되지 않는다. 사회적 서사의 붕괴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부담은 다시 사회적 아노미를 심화시킨다.

서사의 붕괴가 심대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종교 서사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신의 존재와 구원의 약속을 삶의 전체적 의미로 삼아온 개인에게,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험은 단순한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조직하던 틀 자체의 와해에 해당한다. 이는 서사가 단순한 믿음 체계가 아니라 실질적 적응 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4 대안 서사의 탐색

대안 서사(Alternative Narrative)란 기존 서사가 붕괴하거나 기능 저하에 처했을 때, 그 의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등장하는 새로운 서사다. 대안 서사는 서사 일반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형성되고 확산되며, 그것이 구별되는 것은 기존 서사의 붕괴라는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안 서사는 완전히 새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이미 개인이나 집단의 서사적 토대 안에 잠복해 있던 서사가 새로운 조건 하에서 재활성화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사의 균열이 반드시 대안 서사의 탐색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Festinger(1957)가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적 조건을 상실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그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이처럼 균열에도 불구하고 강화되거나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서사는 잠복 서사의 한 형태이며, 대안 서사의 탐색은 이 잠복의 지속과 해소 사이의 기로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고통의 유형론

4.1 네 유형의 분류 기준

한국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고통은 단일한 종류가 아니다. 동일한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도 고통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이 서사와 맺는 관계의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사와의 관계란 단순히 어떤 서사를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서사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자명한 현실로 작동하는가, 그 서사의 사실적·가치적·규범적 층위 가운데 무엇이 붕괴하고 무엇이 잔존하는가, 그리고 기존 서사를 대체할 새로운 서사가 구성되었는가의 문제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네 유형은 이러한 서사와의 관계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는 서사 안에 완전히 있는 상태, 둘째는 서사의 경계에 걸쳐 있는 상태, 셋째는 서사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새로운 서사를 갖지 못한 상태, 넷째는 서사 바깥으로 나왔음에도 구조적 강제에 의해 수행을 지속하는 상태다. 이 네 상태는 현실에서 명확히 분리된 고정 범주라기보다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의 분석적 위치다. 그러나 고통의 발생 경로를 명료하게 분리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를 네 가지 이념형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점은, 이 유형론의 분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네 유형은 네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서사와의 관계 상태에 따라 고통이 발생하는 네 가지 상이한 경로를 가리킨다. 따라서 동일한 개인이 상황과 시점에 따라 복수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메커니즘에서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행하거나 역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유형론의 약점이 아니라, 유형론이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고통의 발생 경로를 분류하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적 귀결이다. 이 유형론의 목적은 개인을 범주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분리하고, 각 경로에 적합한 개입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네 유형 모두에서 구조적 강제는 배경으로 작동한다. 2.5절에서 논증했듯, 타인의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는 개인이 그 서사를 내면화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를 가한다. 다만 각 유형에서 구조적 강제가 개인에게 착지하는 방식은 다르다. 서사 내부의 고통에서는 구조적 강제가 내면화된 서사의 기준을 통해 자기 착취로 번역된다. 이중 구속의 고통에서는 붕괴한 사실적 층위와 잔존하는 규범적 층위 사이의 교착으로 경험된다. 아노미적 고통에서는 기존 서사가 무너졌지만 대안 서사가 구성되지 못한 공백으로 경험된다.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에서는 서사적 믿음이나 규범적 긴장마저 사라진 뒤에도 생존 조건 자체가 수행을 강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마지막 유형은 구조적 강제가 거의 유일한 수행 동력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앞의 세 유형과 구별된다.

동일한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도 개인이 서사와 맺는 관계가 달라지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서사의 내재화가 사회 내부에서 균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5절에서 논의했듯 doxa는 단순히 어떤 서사가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서사가 당연한 것으로 작동하는 정도가 사회 내부에 어떻게 분포하는가의 문제다. 학벌 서사는 한국 사회 다수에게 비가시적인 전제로 경험되지만,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강도로 내재화된 것은 아니다. 어떤 이에게 “대학은 가야 한다”는 굵주림이나 참처럼 자명한 현실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처음부터 외부의 주장으로 들리거나 이미 균열이 난 신념으로 수용된다.

1.1절에서 제시한 서사성의 두 차원을 여기에 적용하면, 전-서사적 현실에 가까운 층위에서는 doxa의 분포가 좁고 안정적이다. 반면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가 멀고 역사적 특수성이 높은 서사일수록, 동일한 사회 안에서도 doxa의 분포는 넓어지고 불균등해진다. 서사 내부의 자기 착취, 서사 경계에서의 이중 구속, 서사 이탈 이후의 아노미, 서사 바깥에서의 구조적 강제는 이 불균등한 doxa 분포 위에서 각기 다른 위치를 점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상이한 고통의 메커니즘이다.

이 네 유형의 발생 조건은 V 변수와 Q 변수의 조합으로 기술할 수 있다. 먼저 서사 내부의 고통은 doxa 강도, 즉 V2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때 해당 서사가 전제하는 사실적 층위는 아직 결정적으로 붕괴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개인에게는 붕괴한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V1이 낮거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유형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핵심 조건은 V1이 아니라 높은 V2다. 서사가 여전히 세계 자체로 경험되기 때문에, 개인은 서사의 기준을 외부 현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

이중 구속의 고통은 V1 축의 문제다. 여기서는 V2가 여전히 높지만, 구조 변화로 인해 서사의 사실적 층위는 이미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규범적 층위는 아직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고, 기존 서사가 요구하던 행동 명령은 계속 잔존한다. 즉 V1이 확대되었으나 서사의 규범적 층위가 뒤늦게 조정되는 시차 구간에서 이중 구속이 발생한다. 이 유형의 핵심은 붕괴와 잔존 사이의 시간적 비동시성이다.

아노미적 고통은 Q 축의 문제다. 이 유형에서는 doxa가 이미 약화되었거나 사망하여 V2가 낮아졌고, 기존 서사의 사실적·규범적 층위도 더 이상 주체를 조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서사가 구성되지 못했거나, 구성되었더라도 Q1·Q2·Q3 가운데 하나 이상의 축에서 낮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아노미적 고통의 강도는 단순히 기존 서사가 붕괴했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기존 서사를 대체할 새로운 서사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는지(Q1), 내적으로 정합적인지(Q2), 그리고 덜 해로운 구조를 산출하는지(Q3)

가 관건이 된다. 새로운 서사가 부재하거나 이 세 축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낮은 값을 가질 때, 서사 이탈은 해방이 아니라 공백으로 귀착된다.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은 V3 축의 문제다. 이 유형에서는 V2가 낮고, 기존 서사의 사실적·규범적 층위가 모두 붕괴했으며, Q 축에서도 새로운 서사가 충분히 구성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doxa 밀도, 즉 V3가 사회적으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탈 비용은 계속 크다. 개인은 더 이상 그 서사를 믿지 않지만, 다수가 여전히 그 서사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 서사가 만든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여기서 고통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생존 조건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 재배치는 네 유형이 V1 단일 축이 아니라 V1·V2·V3·Q라는 복수 축의 상이한 조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이 네 조합에 부합하지 않는 패턴이 복수의 사례에서 관찰된다면, 그것은 이론의 예측에 반하는 사례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컨대 V2가 높고 사실적 층위는 이미 붕괴했는데도 이중 구속이 아니라 곧바로 아노미가 나타나는 경우, 또는 V2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사 내부의 자기 착취가 지속되는 경우는 각 유형의 메커니즘 기술이 수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부 IV절에서 각 고통 유형의 한국적 발현을 분석할 때에는, 여기서 제시한 조합 가운데 해당 유형에 대응하는 조건을 사례별로 검토함으로써 이 이론적 예측을 점검한다.

네 가지 고통 유형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특정 메커니즘이 충족될 때 발현되는 동적 궤적이다. 전형적인 진행은 서사 내부의 고통, 이중 구속의 고통, 아노미적 고통,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의 순서를 따른다. 그러나 이 순서는 필연적인 발전 단계가 아니다. 각 단계는 반복·역행·중첩될 수 있으며, 어떤 메커니즘적 조건이 충족되는가에 따라 어느 유형이든 특정 시점에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의 초점은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서사 조합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어느 순서와 강도로 작동하는가”에 있다. 이 동적 성격이 본 유형론을 단순한 분류표가 아니라 궤적 모델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doxa와 이중 구속은 사회적 실체의 영향을 받으며, 그 강도와 분포는 계층·세대·지역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상위·중위·하위 계층은 전-서사적 토대, 즉 소득, 자산, 문화자본, 사회적 관계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학벌 서사를 내재화하더라도 서사 붕괴에 대응할 수 있는 경로의 폭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상위 계층은 사교육 강화, 해외 유학, 경제적 기반을 활용한 대안 서사 탐색 등 기존 서사의 기능 저하를 완충하거나 우회하는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하위 계층은 동일한 붕괴 앞에서도 선택 가능한 경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 청년”이라는 집합 내부에서도 학벌 서사의 doxa 밀도와 이중 구속 강도는 계층·세대·지역 축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분포한다. 이

이질성은 doxa가 단일한 속성이 아니라 분포 개념이라는 본 논문의 재구성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사 붕괴의 결과가 동일한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도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착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사는 본질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반응적 이해 구조다. 그 자체로 병리이거나 방어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에 대한 구조적 적응이다. 그러나 V1이 확대되거나 V2가 극단으로 향할 때, 동일한 서사는 적응적 기능에서 부적응적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임상심리학이 개인 수준에서 포착해온 고통의 패턴들은 이 전환이 개인에게 착지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 각 유형의 이념형 서술은 해당 유형에 상응하는 임상 개념과 국소적으로 접합한다. 이 접합은 임상 개념을 사회 이론으로 환원하거나 사회적 고통을 개인 병리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사가 반응적 구조라는 사실에서 도출되는 형식적 유비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4.2 첫 번째 유형: 서사 내부의 고통 — 서사 안에 있는 상태

서사 내부의 고통은 doxa 강도(V2)가 높고, 해당 서사가 전제하는 사실적 층위가 아직 결정적으로 붕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 유형은 서사가 멈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 아니다. 오히려 서사가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다. 개인은 서사를 의심하지 않는다. 서사가 제시하는 기준을 현실 판단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학별 서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자기 점수를 기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소진되는 상태가 이 유형의 전형적 사례다.

Han(2010)은 『피로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전환으로 분석했다. Foucault(1975)의 규율사회에서 억압의 주체는 타자였다. 그러나 Han이 분석한 성과사회에서는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동일인이 된다. 개인은 외부의 금지, 즉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내부의 능력 명령, 즉 “할 수 있다”에 의해 소진된다. Han의 분석은 성과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강력하지만, 성과 주체가 왜 그 내부 명령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진단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조건이 어떻게 개인의 심리적 자기 착취로 번역되는가의 중간 단계는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은 그 중간 단계를 서사 이론으로 설명한다. 서사를 깊이 내재화한 개인은 그 서사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심급을 내면에 갖게 된다. 서사가 제시하는 이상적 자아상과 현재의 자아 사이의 간극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생산하고,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소진을 낳는다. 평가 주체와 평가 대상이 동

일인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이기 이전에 서사 내재화의 일반적 귀결이다. 내면화된 서사의 기준이 Han이 말한 내부 명령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구조는 종교 서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신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측정하는 신자는 외부의 강제 없이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죄책감 속에서 더 높은 헌신을 요구한다. 한국의 학업 맥락에서 학벌 서사를 완전히 내재화한 학생도 유사한 구조 안에 놓인다. 그는 매일 자기 점수를 서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경쟁자보다 뒤처지면 수치심을 느낀다. 서사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비판하는 언어는 생산되지 않는다. 고통은 외부 억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내면화된 서사의 기준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처벌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고통은 서사 붕괴 이전에도 이미 존재한다. 이것은 서사 붕괴를 단순한 외부 충격으로만 해석하는 시각을 수정할 근거를 제공한다. 서사 붕괴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가 가하는 외부 충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사 내부에 이미 내장되어 있던 압박과 모순이 임계점을 넘는 과정이기도 하다. 1.1절에서 논의한 서사성 스펙트럼의 언어로 말하면, 가치·규범·자기관련성이 고밀도로 결합된 서사일수록 그것을 내재화한 개인에게 더 강한 성과 압박을 생산한다.

서사가 doxa 상태일 때 개인은 서사의 기준을 외부 현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 서사가 요구하는 행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불안이 상승하고, 수행하면 불안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이 불안-행동-해소의 순환은 Salkovskis(1991)가 기술한 안전 행동 기제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안전 행동은 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을 직접 검토하는 대신 특정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불안의 근거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 서사 내부의 고통은 이 기제가 서사라는 의미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형태다. V2가 높을수록, 즉 서사가 세계 자체로 경험될수록 순환의 강도는 높아지고 서사 자체를 검토할 가능성은 좁아진다.

수능을 준비 중인 A에게 “좋은 대학에 가야 안정된 삶을 산다”는 명제는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서사를 의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A는 알지 못한다. 매일 오전 모의고사 점수가 공개되면 A는 그 수치를 서사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수면을 줄이고, 식사를 건너뛰고, 쉬는 시간을 없앤다. 이 행동은 외부의 강제 없이 작동한다. A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사가 제시하는 이상적 자아상과 현재 자아 사이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불안을 잠시 억제하기 위한 반복 행동이다. 점수가 오르면 불안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다음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은 다시 상승한다.

이 구조에서 행동의 반복은 불안의 원천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

더 열심히 할수록 서사의 기준은 자기 평가의 유일한 척도로 굳어지고, 그 척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더욱 좁아진다. 불안의 근거를 검토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다. A는 서사를 검토하지 않는다. 서사를 따르는 행동이 검토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서 고통은 서사가 틀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가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4.3 두 번째 유형: 이중 구속의 고통 — 서사의 경계에 걸쳐 있는 상태

이중 구속의 고통은 V2가 여전히 높지만, 서사의 사실적 층위가 이미 현실과 어긋났음에도 규범적 층위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 유형의 개인은 서사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서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다. 서사가 약속한 현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 서사가 요구하는 행동을 수행한다.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좋은 대학이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스펙 경쟁이 실제 가능성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계속 수행하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을 포착하는 데 기존 이론들은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Merton(1938)의 아노미 모델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를 인지한 개인이 의례주의, 즉 목표를 포기하고 수단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적응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개인이 이미 목표를 포기했다고 전제한다. 이중 구속 상태의 개인은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고, 믿지 않지만 멈출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

Bourdieu(1977)의 아비투스 개념은 이 잔존의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아비투스는 의식적 선택 이전에 작동하는 성향 체계로, 구조가 변해도 관성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나 아비투스 개념은 잔존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잔존하는 규범과 붕괴한 믿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긴장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중 구속의 핵심은 단순한 관성이 아니라, 믿음의 붕괴와 규범의 잔존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데 있다.

Han은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이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청년 세대의 이중 구속은 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국 청년에게 Sollen, 즉 “해야 한다”는 규범적 압박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위에 Können, 즉 “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 명령과 성과주체로서의 자기 착취가 중첩되었다. 억압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억압 위에 자기 착취가 적층된 것이다. 이 이중 부담이 이중 구속의 구조적 조건이다.

본 논문은 이 긴장의 구조를 서사의 층위 간 비대칭으로 설명한다. 서사가 기능 저하에 접어들 때, 사실적 층위가 먼저 현실과 어긋나고, 가치적 층위가 그 다음에 흔들리며, 규범적 층위가 마지막까지 잔존한다는 가설이다.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인과적 믿음이 먼저 무너지고, “안정된 직장은 좋은 것이다”라는 가치 판단이 뒤이어 흔들리며, “그래도 취업 준비는 해야 한다”는 행동 규범은 가장 오래 남는다. 이 비대칭이 이중 구속을 만든다. 인과적 믿음은 이미 흔들렸지만 규범적 압박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개인은 무의미하다고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이 규범의 잔존은 두 경로로 유지된다. 하나는 2.4절에서 분석한 ISA의 관성적 작동이다. ISA는 서사의 사실적 층위가 붕괴한 이후에도 규범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임계질량이 유지되는 한 이탈 비용을 높인다. 다른 하나는 개인적 합리화다. 이미 규범에 투자한 부모 세대는 그 규범을 자녀에게 전달하며, 매물 비용이 클수록 합리화의 강도는 높아진다(Festinger, 1957). “남들은 다 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라는 진술은 이 두 경로가 합산된 압력의 표현이다.

다만 사실적 층위가 먼저 붕괴하고 규범적 층위가 마지막까지 잔존한다는 순서는 보편적 법칙이 아니라 한국 청년 세대에서 특히 강하게 관찰되는 특정 패턴이다. 1960년대 서구 반문화 운동처럼 규범이 먼저 거부되는 사례, 소련 말기처럼 가치가 먼저 침식되는 사례, 동독처럼 사실·가치·규범의 세 층위가 거의 동시에 무너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붕괴와 잔존의 순서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역방향 이중 구속이 관찰된다. 이는 기존 서사의 가치적 층위가 먼저 거부되었지만, 그 서사가 만들어놓은 제도·시장·관계의 구조적 잔존물이 여전히 개인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상태다. 이 경우 기존 서사는 더 이상 주체의 행동을 규범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만든 구조는 제거되지 않는다. 동시에 대항 서사는 아직 doxa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 의식적 유지 비용을 요구한다. 대항 서사를 선택한 개인은 여전히 기존 서사의 언어로 평가받는 환경 속에서 그 선택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실적 층위가 먼저 붕괴하고 규범적 층위가 마지막까지 잔존한다는 순서는 한국 학벌-취업 서사에서 관찰되는 특정한 패턴이지 보편 법칙은 아니다. 서사의 종류와 역사적 조건에 따라 가치적 층위가 먼저 거부되거나, 사실적·가치적·규범적 층위가 동시에 붕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본 논문은 한국 청년 세대의 학벌-취업-결혼-주거 생애 경로 서사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역방향 또는 동시 붕괴의 체계적 비교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이중 구속의 고통은 단순한 심리적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교착이다. 그러나 그 교착이 개인에게 경험되는 방식은 두 임상 기제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서사의

사실적 충위는 붕괴했으나 규범적 충위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개인은 두 방향 모두에서 비용을 감당한다. 따르면 소진되고, 이탈하면 배제된다. 이 구조는 Miller(1944)의 접근-회피 갈등과 유비적 관계를 가진다. 나아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이는 Litz 외 (2009)가 분류한 *perpetration-based moral injury*, 즉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행해야 했을 때 발생하는 도덕적 손상과 형식적으로 접합된다.

취업을 준비 중인 B는 스펙 경쟁이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모두가 동시에 스펙을 강화할 때 각자의 추가 노력은 탈락 기준선을 집합적으로 끌어올릴 뿐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멈추지 못한다. 이탈할 때 감당해야 할 즉각적 손실이 계속할 때의 소진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르면 소진되고, 이탈하면 배제된다. 두 방향 모두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한 교착이 발생한다. B가 경험하는 소진은 단순히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교착이 장기화될 때 또 다른 충위의 손상이 발생한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B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위치에 놓인다. 자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자신이 반복한다. 이 손상은 이탈 시도를 더 어렵게 만든다. 자기 배신의 감각이 누적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침식되고, 그 침식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역량을 약화시킨다. 구조적 교착이 내적 손상을 생산하고, 그 손상이 다시 교착을 강화하는 순환이다.

4.4 세 번째 유형: 아노미적 고통 — 서사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

아노미적 고통은 *doxa* 강도(V2)가 낮아지고, 기존 서사의 사실적·규범적 충위가 더 이상 주체를 조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유형의 핵심은 단순히 기존 서사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지 않다. 기존 서사를 대체할 새로운 서사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형성되었더라도 현실 부합성(Q1), 내적 정합성(Q2), 산출하는 구조의 성격(Q3)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낮은 값을 가질 때 아노미적 고통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문제는 조정이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조정의 질이다.

세 번째 유형은 서사의 사실적 충위가 현실과 어긋났음을 인지하고 서사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서사를 갖지 못해 공백에 놓인 상태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갔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다. 서사가 약속한 경로가 막혔다. 이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다. 서사 바깥으로 나왔지만, 아

직 서사 바깥의 언어를 갖지 못한 상태다.

Merton(1938)은 아노미를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정의했다. Merton의 분석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계층 구조의 문제로 포착한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그러나 그 괴리가 왜 단순한 좌절을 넘어 정체성의 붕괴로 경험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Merton의 아노미 개념을 서사 이론의 언어로 재기술함으로써 이 공백을 채운다. 목표를 향한 경로가 막혔다는 인식이 정체성의 붕괴로 경험되는 이유는, 그 경로 자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서사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수단의 박탈이 곧 의미의 박탈이 되는 것이다. Merton이 “목표 포기”로 분류한 적응 양식은, 실제 경험의 층위에서는 서사 공백의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

3.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액체 근대에서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다. 서사의 붕괴로 아노미 상태에 놓인 개인은 그 공백의 원인을 자신의 무능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귀인하게 되고, 대안 서사의 탐색조차 전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떠안는다. 구조가 생산한 공백을 개인이 홀로 메워야 하는 이 이중 부담이 아노미의 고통을 단순한 방향 상실을 넘어 깊은 무기력과 무력감으로 심화시킨다. 이 무기력은 인간이 본래 보유한 서사화 역량이 작동할 사회적 조건 자체가 봉쇄되었을 때 발생하는 인간학적 박탈로 이해할 수 있다. 아노미적 고통이 단순한 인지적 혼란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위축으로 경험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 종의 생존 조건이었던 서사화 역량의 작동 자체를 차단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노미적 고통은 서사라는 보호 기제 자체가 좌절된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 좌절이 개인에게 경험되는 방식은 Shay(1994)가 기술한 betrayal-based moral injury와 유비적 관계를 가진다. 국가가 보증하고 제도가 강제한 경로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 즉 정당한 권위를 가진 자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배신했다는 인식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도덕 도식 자체의 손상으로 경험될 수 있다. 서사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세계를 조직하는 구조로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사의 배신은 세계 자체의 붕괴로 경험된다. 아노미적 고통이 단순한 방향 상실을 넘어 존재론적 공백으로 경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졸업하고 2년째 취업 준비 중이다. B와 달리 C는 스펙 경쟁을 멈췄다. 더 해봤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사가 약속한 경로를 충실히 따랐다. 토익 점수를 높이고, 자격증을 추가하고, 면접 스터디에 참여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이 노력이 경로를 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사의 사실적 층위가 붕괴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가가 보증하고 제도가 강제한 경로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단순한 좌절을 넘어 도덕적 손상으로 경험된다. C가 분노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적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보호 기제 자체가 좌절된 경험이다.

그러나 이 분노는 향할 곳을 찾지 못한다. 서사의 규범적 층위마저 C의 행동을 조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노는 외부 표적을 찾지 못한 채 자기 자신으로 귀속되거나 무기력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서사를 구성할 관계적 자원도 소진된 상태다. 신뢰할 수 있는 타자가 부재하고, 새로운 의미 구조를 함께 만들어갈 서사적 토대가 없다. 이것이 3.3절에서 정의한 아노미다. 규범의 공백이 아니라, 서사화 역량의 활성화 조건 자체가 봉쇄된 상태. C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을 넘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다.

4.5 네 번째 유형: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 — 서사 바깥에 있는 상태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은 doxa 강도(V2)가 낮고 기존 서사의 사실적·규범적 층위가 모두 붕괴했음에도, doxa 밀도(V3)가 사회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이탈 비용이 큰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 유형의 개인은 서사를 믿지 않는다. 규범적 긴장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서사가 만들어놓은 제도와 시장과 관계의 배치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다 의미 없다. 그렇지만 먹고살아야 하니까 한다.” 이 문장이 네 번째 유형의 핵심을 압축한다.

4.3의 개인이 “해야 한다”는 규범적 긴장 속에서 수행한다면, 4.5의 개인은 그 긴장마저 잃은 상태에서 수행한다. 수행의 유일한 동력은 생존이다. 그는 더 이상 학벌 서사를 믿지 않지만 졸업장은 필요하다. 스펙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지만 채용 구조가 그것을 요구한다. 기존 서사의 정당성은 사라졌지만, 기존 서사가 만든 구조적 장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유형의 고통은 믿음의 붕괴 이후에도 구조가 남는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Marx(1844)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Marx의 소외 분석은 주로 노동 관계 내부에 한정되었으며,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가 서사 이탈자에게도 강제를 가하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다루지는 않는다. Žižek(1989)은 이데올로기가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그것을 행한다”는 Marx의 허위의식 모델을 수정하여, “그들은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행한다”는 냉소적 이성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Žižek의 분석은 왜 알면서도 행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냉소적 이성의 존재를 포착했지만, 그 냉소가 어떤 구조적 강제에 의해 유지되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분석했다.

본 논문은 그 이유를 2.5절에서 분석한 타인의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적 강제로 설명한다. 학벌 서사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스펙을 쌓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할 구조적 배제, 즉 서류 탈락, 소득 절벽, 사회적 낙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서사를 따르면 경쟁과 소진의 고통이 있고, 따르지 않으면 구조적 배제의 고통이 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Žižek이 포착한 냉소적 이성(냉소적 이성)은 개인의 태도이지만, 그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서사가 양산한 구조의 강제다.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은 서사적 개입만으로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서사를 내면화하지 않은 개인도 타인의 서사가 만든 구조 안에서 수행을 지속해야 할 때,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경험이 반복된다. 이 반복이 개인에게 착지하는 방식은 Seligman과 Maier(1967)가 기술한 학습된 무력감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저항 시도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때 저항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의지의 약화가 아니라 반복 경험의 신체적 학습이다.

D는 대학교 3학년이다. 학벌 서사가 자신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 사이의 거리를 느끼고, 졸업장이 안정된 삶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매 학기 등록금을 내고, 출석을 하고, 학점을 관리한다. 믿어서가 아니다. 그만뒀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계속 다니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졸업장 없이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채용 구조, 중퇴자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낙인, 학자금 대출 상환 구조는 D가 내면화한 서사가 아니라 타인들의 서사가 집합적으로 만들어낸 구조다. D의 서사가 바뀌어도 이 구조는 곧바로 바뀌지 않는다.

D의 수행을 추동하는 것은 신념도 규범도 아니다. 유일한 동력은 구조적 강제다. Žižek(1989)이 포착한 냉소적 이성, 즉 “그것이 거짓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행한다”는 구조가 여기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 냉소는 D의 성격이 아니라 구조가 생산한 태도다. 냉소는 D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막힌 시도들이 누적되면서 형성된 적응이다. 이 상태가 장기화될 때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경험이 축적되고, 저항 시도 자체가 점차 소거된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의 시도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신체로 학습한 것이다. 새로운 서사는 D가 매일 대면하는 구조적 현실과 충돌하고, 그 충돌이 새로운 서사 자체를 소진시킨다.

이 유형이 앞의 세 유형과 구별되는 점은 처방의 방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사 내부의 고통은 서사의 내용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개입의 경로가 될 수 있다. 이중 구속의 고통은 잔존하는 규범적 충위를 재구성할 때 개입 가능성이 열린다. 아노미적 고통은 대안 서사의 탐색과 형성이 해소의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은 서사적 전환만으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 타인의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는 내 서사를 바꾸어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서사적 지원은 고통의 강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 강제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개입의 핵심 초점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야 하며, 서사적 지원은 그러한 구조 개편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조건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위치 지워진다.

4.6 네 유형의 공존과 경제적 환원 불가능성

이 네 유형은 상호 배제적이지 않다. 동일한 개인이 상황과 시점에 따라 복수의 유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아침에는 학벌 서사의 성과 압박 속에서 공부하고(4.2), 그래봤자 취업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중 구속 속에 있으며(4.3), 취업 문이 막혔다는 것을 인식하며 방향을 잃고(4.4),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계속한다(4.5).

이 복잡성이 한국 청년 세대의 고통이 경제적 박탈로 환원되지 않는 이유다. 경제적 접근은 주로 4.5 유형의 물질적 층위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그러나 4.2의 자기 착취, 4.3의 이중 구속, 4.4의 방향 상실은 소득과 자산의 변수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네 유형 각각에 상이한 처방이 필요하며, 구조적 조건의 회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안 서사의 지원이 동시에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동일한 구조-서사 조건 아래에서도 개인이 실제로 밟게 되는 경로는 일정 부분 개인 수준의 요인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제시한 네 가지 고통 유형은 $V1 \cdot V2 \cdot V3$ 와 Q 축의 조합으로 기술되는 구조-서사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며, “왜 어떤 종류의 고통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1차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같은 $V1 \cdot V2 \cdot V3 \cdot Q$ 조건 안에서도 어떤 개인은 반복적인 시행착오와 대안 탐색을 감당하며 기존 서사 내부 혹은 주변부 서사들을 계속 시도하는 반면, 다른 개인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도 자체를 중단하고 4.4절에서 분석한 아노미적 공백 상태나 4.5절의 구조적 강제 상태로 이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시적 분기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 정동적 자원, 사회적 지지망, 과거의 인정 경험 등 개인·관계 차원의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본 이론은 이와 같은 차원을 별도의 분석 층위로 남겨두되, 네 가지 고통 유형의 1차 분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구조-서사 변수($V1 \cdot V2 \cdot V3 \cdot Q$)의 조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이 이론은 고통을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 특성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구조-서사 조건 아래에서 관찰되는 경험의 다양성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V. 형식과 서사 평가 이론의 분리

5.1 형식 이론의 범위와 한계

I 장에서 III장까지 구축한 서사-구조 순환 모델은 형식 이론이다. 형식 이론이란 서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서사 일반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의 기술이다. 본 논문의 형식 이론은 다섯 가지 명제로 요약된다. 첫째, 서사는 전-서사적 구조적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다. 둘째, 서사의 집합적 내재화는 새로운 구조를 생산한다. 셋째, 서사가 만든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서사를 지탱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그 기원이 망각된다. 넷째, 구조는 복수의 경로(해게모니적, 자기생산적, 합리화적)를 통해 파생 서사를 생성하고 재생산한다. 다섯째, 서사의 존속력은 진리 가치가 아니라 구조와의 기능적·이해관계적·정서적 정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 형식 이론은 기독교 서사, 마르크스주의 서사, 학벌 서사, 레드필 서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식 이론에는 두 가지 명시적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평가 불가능성이다. 형식 이론은 서사의 작동 방식을 기술하지만 서사의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서사들이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양산한다는 사실 — 어떤 서사는 구성원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어떤 서사는 배제와 소진을 생산한다 — 은 형식 이론의 범위 바깥이다. 두 번째는 내용 중립성이다. 어떤 서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형식 이론은 답하지 않는다. 이 한계를 채우는 것이 서사 평가 이론(narrative assessment theory)이다. 본 논문에서 서사의 우열을 따지는 설명틀로서 사용해 온 '질 이론'이라는 표현은 국제 학술 담론에서 measurement theory 등과 혼동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후 이를 서사 평가 이론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서사 평가 이론은 형식 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이론 위에 중첩되는 것이다. 형식 이론의 기술 없이 서사 평가 이론의 평가는 공허하고, 서사 평가 이론의 평가 없이 형식 이론의 기술은 가치 중립적 관찰에 그친다.

5.2 서사의 질을 평가하는 세 기준

서사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이 세 기준이 가능한 모든 평가 기준을 망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들은 인류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정교화해온 지적 전통 안에서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수렴된 방식들이다. 사실적 기술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는 경험과학이, 내부 구성 요소들이 모순 없이 작동하는가는 논리학이,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어떻

게 평가할 것인가는 윤리학과 사회과학이 각각 다듬어온 질문이다.

첫째, 사실적 부합성이다. 서사의 인과적 내용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문제다. Popper(1934)는 과학적 명제의 조건으로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이 기준을 서사의 사실적 층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서사는 사실적 기술과 가치 판단의 결합이며, 가치 판단의 층위는 반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력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학벌 서사의 사실적 층위는 1990년대까지는 높은 부합성을 유지했지만, 2000년대 이후 고학력 청년 실업이 확산되면서 이 부합성이 급격히 낮아졌다. 사실적 부합성의 저하가 서사 붕괴의 1차 계기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내적 정합성이다. 서사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모순 없이 작동하는가의 문제다. '노력하면 성공한다'와 '구조가 너를 막는다'는 동일한 청년 서사 공간에 공존하면서 내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전자는 개인의 능동성을 전제하고 후자는 구조적 제약을 강조한다. 이 두 주장이 통합된 상위 서사 없이 공존할 때, 개인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할지 구조 탓으로 돌려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IV장에서 분석한 이중 구속의 인식론적 기반이 여기 있다.

셋째, 양산하는 구조의 평가다. 서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현실이 어떤 종류의 구조를 낳는가의 문제다. 이 기준이 가장 논쟁적이다. 구조의 평가는 다시 다른 가치 서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환은 평가의 불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척도는 현실 안에 존재한다. 어떤 서사가 만들어내는 구조가 그 안의 구성원에게 가하는 고통의 양, 배제의 범위, 이탈 가능성의 정도는 경험적으로 추적 가능한 사실이다. 다만 그 사실을 나쁘다고,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서사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절대적 평가 기준의 불가능성은 Rawls(1971)의 무지의 베일이 본 논문의 doxa 개념 앞에서 직면하는 난점에서도 확인된다. 무지의 베일은 사고 실험 참여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능과 가치관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1.3절에서 재구성한 doxa 개념을 따르면 이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doxa는 의식적으로 배제하거나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의견이 아니라 세계 자체로 경험되는 것이며, 강도(V2)와 밀도(V3)의 분포 위에서 작동한다. 어떤 인간도 자신이 내재화한 doxa로부터 자유로운 메타적 위치에 설 수 없으며, “베일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위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doxa의 본성과 충돌한다. 이 비판은 Rawls의 기획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평가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가 doxa 분포의 사회적 실재 앞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의 평가 이론은 절대적 기준을 세우는 대신 관계적 비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절대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Mannheim(1929)의 관계주의적 해법이 이 난점을 해소한다. 어떤 서사가 만들어내는 구조가 그 구조 안의 구성원에게 가하는 고통의 양, 배제의 범위, 이탈 가능성의 정도를 다른 서사가 만들어내는 구조와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절대적 선이 아니라 상대적 덜 나쁨의 기준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세 기준은 서사를 단일한 척도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서사가 사실적 부합성은 높지만 양산하는 구조는 배제적일 수 있고, 내적 정합성은 높지만 사실적 충위가 현실과 유리될 수 있다. 서사 평가는 이 세 기준의 조합적 분석이다.

나아가 서사 평가 이론의 기준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메타적 반성이 필요하다. Weber가 제시한 이념형(Idealtypus) 개념은 이 문제를 조명하는 유용한 장치다. 이념형은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현실과의 괴리를 드러내거나 반대로 현실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면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세 기준(사실적 부합성·내적 정합성·양산하는 구조의 성격) 사이의 가중치와 “상대적으로 덜 나쁨”의 판단은 연구자·서사 내재자·서사 생산자의 시대적·문화적 위치성에 부분적으로 종속된다. 그러나 이 위치성 자체도 하나의 현실이다. 특정 시대와 문화가 실제로 산출한 구조와 고통의 분포를 어느 정도라도 반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해당 평가가 설득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이론의 평가 기준은 완전한 상대주의가 아니라, 위치성에 열려 있으면서도 구조적 강제와 고통의 분포라는 관찰 가능한 현실에 의해 다시 제약되는 평가이다.

Q1·Q2·Q3 변수 각각에도 반증 조건이 적용된다. Q1(사실적 부합성)은 해당 서사의 인과적 기술이 경험적 현실과 체계적으로 어긋나는 경우 낮은 값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가 기각되려면 서사가 주장하는 인과 관계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Q2(내적 정합성)는 서사의 구성 요소 간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는 경우 낮은 값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가 기각되려면 모순으로 지목된 요소들 사이의 논리적 매개가 확보되어야 한다. Q3(양산하는 구조의 성격)은 해당 서사가 양산하는 구조가 배제·이탈 봉쇄·고통 생산의 지표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경우 낮은 값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가 기각되려면 그 구조가 생산하는 고통의 양이 비교 대상 서사의 구조보다 체계적으로 적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본 논문이 Q 변수를 통해 레드필과 배타적 래디컬 페미니즘을 낮은 질의 서사로 평가한 것은 이 반증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진 평가이며, 그 평가는 후속 경험 연구의 검증에 열려 있다. V-Q 조합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V1이 확대되었으나 Q 축에서 높은 질의 조정 서사가 형성된 사회에서는 4.4 아노미적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 V1이 축소된 상태(조정이 빠른 상태)에서도 Q가 낮으면 해악적 대안 서사가 확산되어 2부 V장의 해악적 대안 서사 문제가 발생한다. 이 독립성이 V 축과 Q 축을 별도 변수로 두어야 하는 이유이며, 두 축의 조합이 네

고통 유형의 실제 발생 조건을 구성한다.

이 이론은 어떤 서사가 옳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서사에 대한 가치 판단은 특정 서사의 인식론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서사에 보편적으로 부합하는 절대적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사 자체가 전-서사적 현실, 시대적·문화적 위치성, 구조적 조건의 영향 아래 형성되며, 가치 판단의 기준 역시 그 맥락 안에서 수립되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인식론적 순환이 평가의 불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서사가 제시하는 인과적 이해를 현실에 적용했을 때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준으로 서사의 덜-나쁨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시적으로, 이중 구속을 문제로 인식하는 서사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사람의 이중 구속 강도를 낮추는 서사가 덜 나쁜 서사의 조건에 부합할 것이며, 대안 서사에 대한 개방성을 중시하는 서사의 관점에서는 대안 서사 탐색의 여지를 더 많이 남기는 서사가 지지받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임의적이지 않다. 특정 서사가 산출하는 이중 구속의 강도와 대안 탐색 가능성의 폭은 경험적으로 비교 가능하며, 그 비교의 결과는 관찰 가능한 현실에 의해 검증된다. 이것이 이 이론이 완전한 상대주의를 피하면서도 절대론적 규범 주장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념형이 현실 옹호 장치로 기능할 때, 구조적 조건의 수준에서는 기존 제도와 자원 배분 구조가 정상적·합리적인 것으로 기술되고 정당화되며, doxa 패턴의 수준에서는 지배적 상식이 “원래 그런 것”으로 강화된다. 서사적 자기 이해의 수준에서는 개인이 자신을 제도와 상식에 부합하는 행위자로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정당화에 이른다. 반대로 이념형이 비판 도구로 기능할 때, 이념형은 현실을 설명하는 모형이 아니라 현실과의 괴리를 드러내는 잣대로 작동한다. 구조적 조건의 수준에서는 제도가 약속한 것과 실제로 수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부각되고, doxa 패턴의 수준에서는 “상식”이 어떻게 역사적·계급적 조건의 산물인지를 해체하며, 서사적 자기 이해의 수준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내면화한 서사와 구조 사이에 거리를 두고 반성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든다. 이처럼 이념형은 동일한 형식 도구가 지배적 서사를 방어하는 장치로도, 그 서사를 비판하고 다른 서사를 상상하게 하는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형식 이론은 모든 서사가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는 점을 기술할 뿐, 어떤 서사가 해로운지를 스스로 말해주지 않는다. 본 논문이 제시한 세 기준 — 사실적 부합성, 내적 정합성, 양산하는 구조의 성격 — 에 더하여,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 doxa 밀도, 구조적 강제성의 정도를 보조 지표로 추가할 수 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는 학벌 서사는 전-서사적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대안 서사를 실패와 일탈로 낙인찍고, 학교·기업·국가 장치가 이를 강하게 강제하는 고밀도 doxa다. 반면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하다’는 서사는 생물학적 현실에 가깝고, 섭취 방식의 대안이 다원적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생애 경

로 전체가 봉쇄되지는 않는다. 전-서사적 토대에 가까울수록 doxa의 균질성이 높아도 해악은 제한적이다. 해로운 서사는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 사실적 부합성의 약화, 대안 억압, 구조적 강제, 높은 doxa 밀도라는 조건이 동시에 결합된 지점에서 발생하며, 그때 이중 구속은 가장 강한 형태로 개인의 고통을 생산한다.

5.3 거대서사 붕괴 테제의 수정

거대서사는 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화의 독점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단일 독점 구조가 해체되면서, 지배 서사의 위치를 점하려는 복수의 서사들이 서로 충돌하는 국면이 도래했다. 이제 서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국지적 언어게임이 아니라, 각 서사가 자신의 규범과 가치를 보편적 기준으로 확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언어전쟁이다.

Lyotard(1979)는 『포스트모던적 조건』에서 근대가 의존했던 두 거대서사 — 해방의 서사와 사변적 정신의 서사 — 에 대한 불신의 시대를 포스트모더니티로 정의했다. 아우슈비츠 이후 진보의 서사는 설득력을 잃었고, 소련의 붕괴 이후 해방의 서사는 역사적 반증에 직면했다. 거대서사의 붕괴 이후 지식의 정당화는 국지적 서사들의 경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Lyotard의 진단은 서사의 역사적 운동에 관한 중요한 관찰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진단이 두 가지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거대서사에 대한 불신'이 '서사 자체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라진 것은 거대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가 지식과 정당화의 기준을 단독으로 장악하던 단수 정당화 구조다. III장에서 논증했듯 서사는 삶의 방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그 기능적 필요는 특정 서사의 붕괴와 무관하게 지속된다. 특정 거대서사에 대한 불신은 서사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 — 아노미 — 가 새로운 서사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낸다. 이 갈망이 향하는 곳이 파편화된 대안 서사들이다. 레드필 서사, FIRE 서사, N포 서사는 단일한 정당화 구조가 약화된 자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점유하려는 시도들이다.

둘째, 이 파편화 자체가 새로운 지배 서사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낸다. 복수의 대안 서사들이 경쟁하는 상태는 방향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부재라는 아노미로 경험될 수 있다. 어느 서사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자체가 고통이 된다. 이것이 역설이다. 서사의 독점은 억압적이지만 방향을 제공하고, 서사의 파편화는 자유롭지만 방향을 박탈한다. 역사는 거대서사의 종말이 아니라

지배 서사의 형성-약화-과편화-재형성의 순환이다. Lyotard가 포착한 것은 이 순환의 특정 국면 — 약화에서 과편화로의 이행 — 이지, 순환의 종료가 아니다.

본 논문의 서사 정의를 Lyotard 자신의 테제에 적용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서사임이 드러난다. “거대서사에 대한 불신“은 사실적 기술(20세기 이후 거대서사의 설득력이 약화되었다)과 가치 판단(보편적 정당화를 주장하는 서사는 의심해야 한다)이 결합된 인과적 이해 구조다. Lyotard의 테제는 거대서사를 불신하라는 또 하나의 서사이며, 자신만을 예외로 두는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

Ⅶ. 기존 이론과의 관계: 본 논문의 위치

1부의 형식 이론은 서사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서사-구조 순환, 서사 붕괴, 고통의 유형론, 형식과 서사 평가 이론의 분리에 이르는 이론적 연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구축 과정에서 선행 이론들은 각 절에서 필요한 지점에 개별적으로 소환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 방식은 이론 구축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본 논문이 기존 이론 지형 안에서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Ⅵ장은 이 공백을 채운다. Ⅵ장은 본 논문이 제시한 형식 이론과 고통 유형론이 어떤 이론적 계보 위에 위치하는지를 정리함으로써, 이 논의가 고립된 설명이 아니라 Ricoeur-MacIntyre-Berger & Luckmann-Bourdieu-Beck-Reckwitz 등으로 이어지는 서사·구조·근대성 논쟁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Ⅵ장은 개별 이론 소개가 아니라, 본 논문의 모델이 기존 논쟁과 어떻게 접속·변형·이전을 제기하는지를 밝히는 ‘위치 규정의 장’이다. 이를 통해 논문이 제시하는 서사-구조 이론이 한국 청년 연구를 넘어 더 넓은 이론 논쟁에 기여할 수 있는 일반성을 갖는다는 점을 정당화한다.

본 논문이 대화하는 선행 이론들과의 관계는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원류(原流)다. 본 논문이 핵심 전제와 개념을 가져오되, 분석의 축을 이동시키는 이론들이다. Ricoeur와 MacIntyre는 서사적 존재론을, Berger & Luckmann은 외재화·객관화·내재화의 변증법적 순환을, Giddens는 구조-행위 상호 구성의 기본 틀을, Bourdieu는 doxa와 재생산 메커니즘의 언어를 제공했다. 두 번째 유형은 수렴(收斂)이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같은 현상에 도달한 이론들이다. Rosa는 시간 구조에서 출발하지만,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조건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미 상실과 고통을 핵심 문제로 다룬다. 세 번째 유형은 재구성(再構成)이다. 본 논문이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핵심 개념을 재정의하는 이론들이다.

6.1 서사적 존재론의 토대: Ricoeur와 MacIntyre

Paul Ricoeur(1983-1985; 1990)와 Alasdair MacIntyre(1981)는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존재론적 명제에 도달했다. 인간은 서사 없이는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이 명제는 본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기반이다.

Ricoeur는 시간의 역설에서 출발한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으며 현재는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면,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경험을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삶으로 통합하는가. Ricoeur의 답은 서사다. 미메시스 1(전형상화)은 이야기 이전에 이미 상징과 규범으로 채워진 인간적 세계이며, 미메시스 2(형상화)는 파편적 사건들을 하나의 줄거리로 엮는 능동적 행위이고, 미메시스 3(재형상화)은

완성된 이야기가 삶에 돌아와 삶을 다시 구성하는 단계다. 이 세 단계의 순환 속에서 정체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동일성(idem)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이야기를 통해 자기를 유지하는 자기성(ipse)이다(Ricoeur, 1990).

MacIntyre(1981)는 리쾨르와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론에 이른다. 현대 도덕 논쟁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권리“, “공리“, “덕“ 같은 개념들이 원래 의미를 가졌던 서사 전통이 파괴된 채 탈맥락화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MacIntyre의 핵심 주제에 따르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하려면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해야 하며, 그 이야기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살아 있는 전통(living tradition)이 제공한다.

Ricoeur가 개인이 경험을 이야기로 엮는 내부적 과정에 집중했다면, MacIntyre는 그 이야기의 틀이 공동체 전통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외부적 조건에 집중했다. 본 논문의 주제는 이 두 계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경험을 이야기로 엮고(Ricoeur), 그 엮음은 공동체적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며(MacIntyre), 충분히 공유된 이야기는 외재화되고 객관화되어 지배 서사로 굳는다(Berger & Luckmann, 1966). 기원의 망각은 이 순환이 한 바퀴 돌고 난 자리에서 발생한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굳는 순간, 그것이 원래 특정한 구조적 조건 속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지워진다.

다만 Ricoeur의 *seconde naïveté* 개념 — 서사가 구성물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다시 서사 안으로 들어가는 해석학적 태도 — 은 결론에서 서사 붕괴 이후의 실천적 태도를 논의할 때 다시 소환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두 사람이 각각 다루지 못한 문제 앞에서 이탈한다. Ricoeur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탈이 있다. 첫째, Ricoeur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사후적·해석적이다.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줄거리로 읽는가의 문제다. 본 논문의 서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삶의 경로를 사전에 규정하는 규범적 지침이다. 둘째, Ricoeur가 설정하는 순환의 기원점인 미메시스 1은 이미 상징과 규범으로 채워진 인간적 생활세계다. 본 논문이 설정하는 전-서사적 현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에 있다. 중력은 인간이 그것을 서사화하기 이전에도 사물을 낙하시켰고, 기후는 인간이 그것을 의미화하기 이전에도 생존 조건을 규정했다. Ricoeur의 미메시스 1은 이미 인간화된 세계를 전제하지만, 본 논문의 전-서사적 현실은 인간화 이전의 세계를 가리킨다.

MacIntyre에 대해서는, 그의 처방인 살아 있는 전통의 복원이 결정적 한계를 가진다. MacIntyre는 전통이 왜 파괴되었는가를 근대의 문화적·철학적 오류로 설명하지만, 전통을 지탱하는 물질적·구조적 조건의 변화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

다. 본 논문의 서사-구조 순환 모델에 따르면, 전통의 파괴는 철학적 오류의 결과 아니라 구조적 조건 변화의 귀결이다.

본 논문은 이 지점에서 철학적 서사 이론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이탈한다. 서사를 실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개인의 의미 구성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메커니즘으로 다룬다는 것. 이 이탈이 이후 모든 절의 전제다.

6.2 사회적 구성과 변증법적 순환: Berger & Luckmann

Peter Berger와 Thomas Luckmann(1966)의 『사회적 실재의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은 본 논문의 서사-구조 순환 모델이 직접적으로 서 있는 이론적 토대다. 1.2절에서 이미 외재화·객관화·내재화의 변증법적 순환을 서사의 사회화 과정을 기술하는 기본 틀로 활용했으나, 본 논문이 Berger & Luckmann에게서 정확히 무엇을 가져오고 어디서 이탈하는지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Berger & Luckmann의 핵심 테제는 사회적 현실이 인간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객관적 사실로 경험된다는 역설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의미 체계를 외재화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제도로 객관화되며, 객관화된 제도가 다음 세대에 의해 내재화될 때, 인간이 만든 것이 마치 본래부터 존재하던 사실인 것처럼 고착된다. 이 순환은 본 논문의 서사-구조 순환과 구조적으로 동형이다. 서사가 외재화되어 집단 서사로, 객관화되어 지배 서사로, 내재화되어 다음 세대의 서사적 토대로 전환되는 과정(1.2절)은 Berger & Luckmann의 순환을 서사 개념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Berger & Luckmann이 남긴 세 가지 공백을 채운다.

첫째, 순환의 기원점 문제다. Berger & Luckmann은 순환 자체의 논리에 집중했으나 그 순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2.1절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이 공백을 전-서사적 현실이라는 존재론적 출발점으로 채운다. 세계는 서사 이전에 있었으며, 서사는 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Berger & Luckmann이 괄호 안에 넣은 기원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두 종류의 구조 분리다. Berger & Luckmann은 객관화된 제도를 단일한 범주로 다루지만, 본 논문은 2.3절에서 서사를 지탱하는 구조(supporting structure)와 서사가 만든 구조(produced structure)를 분리한다. 이 분리가 없으면 기원의 망각 메커니즘이 포착되지 않는다. Berger & Luckmann이 “인간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망각되고 본래부터 존재하던 사실처럼 고착되는” 과정을 기술했

지만, 그 망각이 서사가 만든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사를 지탱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특정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은 본 논문의 독자적 분석이다.

셋째, 붕괴의 메커니즘이다. Berger & Luckmann의 관심은 사회적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있었지, 구성된 현실이 어떻게 해체되고 그 해체가 어떤 고통을 만드는가에 있지 않았다. 본 논문이 III장 이후에서 전개하는 서사 붕괴, 아노미, 고통의 유형론은 Berger & Luckmann의 구성 이론을 해체 이론으로 확장한 것이다. Berger & Luckmann이 건물의 설계도를 제공했다면, 본 논문은 그 건물이 무너지는 과정과 무너진 뒤 주민이 경험하는 상이한 고통을 분석한다.

동시에 Berger & Luckmann에 대한 비판적 거리도 필요하다. Berger & Luckmann은 사회적 현실이 인간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구성 이전의 물질적 현실이 구성에 가하는 제약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전-서사적 현실의 존재론적 선행성을 명시함으로써 이 경향을 수정한다. 사회적 현실은 인간의 구성물이지만, 그 구성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조가 아니라 물질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는 구성이다. 서사가 구조를 만들지만, 서사가 만들 수 있는 구조의 범위는 전-서사적 현실에 의해 제한된다. 이 비대칭성이 Berger & Luckmann의 구성주의를 제약된 구성주의로 수정하는 본 논문의 입장이다.

6.3 이데올로기론의 재구성: Marx와 Althusser

Marx와 Althusser의 이데올로기론은 본 논문이 가장 명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론적 전통이다. 거리를 두는 이유는 이데올로기 개념 자체에 본 논문의 서사 개념과 양립하기 어려운 세 가지 전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거리두기를 형식적으로 미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데올로기는 서사의 특수한 극단적 형태로 위치 지을 수 있다. 서사 가운데 허위성·의도성·정치성이라는 세 속성을 모두 갖춘 경우가 이데올로기이며, 이데올로기는 서사 개념의 한 부분 집합이지 서사 일반의 속성이 아니다. 본 논문의 서사 개념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되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구분이 갖는 분석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doxa V1의 붕괴를 이데올로기 폭로로 환원할 경우, 서사 형성 당시의 현실 부합성과 그 이후의 구조 변화라는 역사적 과정이 지워진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한국의 생애경로 서사는 처음부터 허위 의식이었던 것이 아니라, 1970-80년대의 구조적 조건에서는 사실적 부합성을 갖추고 작동했던 서사다. 그것이 1997년 이후 기능 저하에 접어든 것은 서사가 본래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서사를 지탱하던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사 일반과 이데올로기를 형식적으로 분리하고, 본 논문이 다루는 것이 전자임을 명

시해야 한다. 이하의 세 전제 비판은 이 형식적 분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다.

첫 번째 전제는 진실/허위의 이분법이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벗겨낼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 이데올로기 바깥에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 — 진실한 계급 이익, 실재하는 구조 — 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탈이데올로기적 시선이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본 논문의 서사 개념은 이 전제를 거부한다. 서사는 허위가 아니다. 서사는 구조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인과적 이해 구조이며, 구조적 조건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 사실적으로 부합하는 서사다. “좋은 대학을 가면 안정된 삶을 산다”는 서사가 현재 기능 저하에 접어든 것은 서사가 처음부터 허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서사를 지탱하던 구조적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III장). 결정적으로, Marx의 틀에서 이데올로기를 벗겨내면 진실에 도달하지만, 본 논문의 틀에서 서사를 벗겨내면 아노미에 도달한다. 문제는 서사의 허위성이 아니라 어떤 서사가 지배하는가, 그 서사가 어떤 구조적 조건 위에 서 있는가이다.

두 번째 전제는 부과의 단방향성이다.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이 설계하거나 그 이익을 반영하는 의식 체계가 피지배계급에게 주입되는 구도를 취한다. 본 논문의 서사-구조 순환은 이 단방향성을 수정한다. 지배 서사는 처음부터 지배계급이 설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특정 구조적 조건 속에서 수백만 명의 집합적 경험이 이야기로 엮이고, 그 이야기가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다시 다음 세대의 경험 조건을 규정한다. 한국의 학벌 서사는 산업화 시대의 구조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2.2절),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부과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형성되어 구조로 굳은 서사다. 물론 국가가 서사 생산에 능동적으로 개입한 측면이 있지만(1974년 정부 홍보 포스터 등), 국가의 개입만으로는 대학 진학률 83.8%라는 집합적 내재화가 설명되지 않는다.

세 번째 전제는 기능적 목적성이다. 이데올로기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며, 이데올로기 비판은 그 수혜자를 찾아내고 그 기능을 폭로하는 작업이다. 학벌 서사가 현재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그것은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부산물이다. 서사는 구조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데올로기론은 수혜자를 찾는 분석에 강하지만 수혜자 없이 작동하는 서사의 형성과 붕괴를 설명하기 어렵다. 2.4절에서 분석한 Luhmann(1984)의 자기생산 경로가 이 점을 보여준다. 구조는 아무의 의도 없이도 자기 재생산에 필요한 서사를 기능적으로 생성한다.

이러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Althusser(1971)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 개념은 본 논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다만 그 위상이 재배치된다. Althusser에서 ISA는 이데올로기의 생산자다. 본 논문에서 ISA는 도관이다. ISA는 서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과 집합적 경험에서 이미 형성된 서사를 표준화하고 정

당화하며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경로다(2.4절). 이 재배치가 가져오는 설명력의 차이는 서사 붕괴의 메커니즘에서 드러난다. Althusser의 구도에서는 ISA가 완벽하게 작동하면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므로, 서사 붕괴를 설명하려면 ISA의 균열이나 혁명적 의식의 등장을 상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SA가 멀쩡히 작동하고 있어도 구조적 조건이 변화하면 서사는 기능 저하에 접어든다. 도관이 아무리 완벽해도 원천이 말라가면 흐름은 약해진다. 1997년 이후 학벌 서사의 기능 저하는 ISA의 균열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의 변화 — 안정된 일자리의 감소(현대경제연구원, 2007), 학력 프리미엄의 약화 — 로 설명된다.

6.4 아비투스, 장, doxa의 재구성: Bourdieu

Pierre Bourdieu(1977)는 구조주의와 합리적 행위론의 양극단을 동시에 넘어서기 위해 아비투스·장(champ)·doxa로 구성된 개념 체계를 구축했다. 본 논문이 가장 많은 개념적 부채를 지면서 동시에 가장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이론적 원천이다.

아비투스(habitus)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축적된 지속적·전이가능한 성향 체계로, 구조화된 구조(structured structure)이면서 동시에 구조화하는 구조(structuring structure)다(Bourdieu, 1977). 아비투스는 본 논문의 서사 내재화 개념과 깊이 연결된다. 지배 서사가 수십 년에 걸쳐 체화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의식적 믿음이 아니라 전의식적 성향으로 전화된다. 이 의미에서 2.4절이 “세 경로가 장기간 중첩 작동하면, 서사는 의식적 선택 이전의 신체적·습관적 성향으로 침전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은 아비투스를 서사의 장기 내재화가 침전된 결과로 재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체화가 완료된 성향을 설명하지만, 본 논문의 서사 개념은 체화 이전의 규범적 의미 구조, 균열이 시작된 서사, 붕괴 중인 서사, 붕괴 이후의 아노미 상태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아비투스는 서사의 특정 국면의 특정 형태이지, 서사 개념 자체와 등치될 수 없다.

장(champ) 개념은 본 논문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의 학벌 서사가 교육·취업·결혼·주거·자녀 양육을 아우르는 생애경로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이다. Bourdieu의 장이 경계 있는 하위 게임이라면, 지배 서사가 작동하는 공간은 장의 경계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생애 전체의 의미 구조에 가깝다.

doxa는 본 논문이 가장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개념이다. Bourdieu에게 doxa는 논쟁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명제로 꺼낼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다(Bourdieu, 1977). Bourdieu는 사회적 인식을 doxa, orthodoxy, heterodoxy로 구분하며, 기본적으로 있거나 없거나의 구도 위에 서 있다. 본 논문은 1.3절에서 이 구도를 거부하고 doxa를 두 차원의 연속적 스펙트럼으로 재구

성했다. doxa 밀도(doxa density)는 특정 서사를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집합적 분포이고, doxa 강도(doxa intensity)는 특정 개인에게 그 서사가 얼마나 깊이 체화되어 있는가의 개인적 깊이이다.

이 재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동일한 구조적 조건 아래서 고통의 양상이 분기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1997년 이후 학벌 서사가 기능 저하에 접어든 동일한 시점에, 누군가는 여전히 그 서사 안에서 자기 착취를 경험하고(4.2절), 누군가는 사실적 충위는 불신하면서 규범적 충위에 묶여 이중 구속에 시달리며(4.3절), 누군가는 서사 밖에서 아노미에 빠지고(4.4절), 누군가는 구조적 강제만을 경험한다(4.5절). 이 분기는 doxa가 유무의 이분법이면 설명되지 않는다. doxa가 밀도와 강도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적 조건 아래서도 개인이 서사와 맺는 관계 상태가 달라지고, 그 관계 상태의 차이가 고통의 유형을 분기시킨다.

완전한 doxa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강도로 동일한 서사를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상태 — 는 이론적 극한값으로만 존재한다.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doxa 동질화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역사적 실험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지하 출판, 망명 지식인, 내면의 이탈자는 항상 존재했다(2.5절). 이 불완전성은 사회 변화의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상시적 원천이다.

Bourdieu는 본 논문이 장(champ)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그는 “당신이 '생애경로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교육장, 경제장, 가족장이라는 복수의 장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상동성(homology)이다. 장의 경계를 무시하고 하나의 서사로 묶으면, 교육장 안에서의 학벌 서사와 결혼장 안에서의 학벌 서사가 다른 자본 구조와 다른 게임 규칙 위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반박했을 것이다.

이 비판은 분석적 층위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Bourdieu의 장 개념은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자의 도구이다. 현실을 교육장, 경제장, 가족장으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의 분석 행위이지, 실제 행위자의 경험 구조가 아니다. 실제 행위자에게 “좋은 대학 → 좋은 직장 → 결혼 → 내 집”은 장의 경계 없이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경험된다. 서사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복수의 장을 가로질러 하나의 인과적 이해 구조로 묶는 것, 그것이 서사의 핵심 기능이다.

이 지점에서 장과 서사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장이 구조의 언어라면 서사는 경험의 언어이다. Bourdieu의 장 개념은 어떤 장에서 누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지만, 행위자가 복수의 장을 가로질러 자신의 생애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의미 연속체로 경험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

다. 서사는 그 경험의 통합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 자체가 그 반박의 증거이기도 하다. 교육, 노동, 가족, 주거를 하나의 서사-구조 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독자적 기여를 Bourdieu와의 관계에서 명시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표어로 걸리는 순간,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당연하게 살아지던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의 자명성이 이미 스펙트럼 하단으로 이동했다는 징후다. 1.3절에서 제시한 이테제 — 명제화는 doxa의 복원 시도이지만 동시에 doxa의 종언을 선고한다는 명제 — 는 Bourdieu가 doxa에서 orthodoxy로의 전환을 다루면서도 발전시키지 않은 방향이다.

6.5 구조화이론의 확장: Giddens

Anthony Giddens(1984)는 구조주의와 해석학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제시했다. 핵심 개념인 구조의 이중성(duality of structure)에 따르면, 구조는 행위를 제약하는 동시에 행위를 가능하게 하며, 행위자가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재생산된다. 이 구조의 이중성은 본 논문의 서사 개념에 직접 적용된다. 제약으로서의 서사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서사가 다른 삶의 경로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자원으로로서의 서사는 그 서사가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생기고 오늘을 버티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서사가 없으면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그것이 아노미다. 이것이 Marx의 이테올로기론(제약만 하는 허위의식)과 본 논문(제약이면서 동시에 자원)이 갈라지는 지점을 Giddens의 언어로 재확인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Giddens가 다루지 않는 세 가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첫째, 기원점의 문제다. Giddens는 구조와 행위의 상호 구성을 말하지만, 그 순환의 최초 원천을 묻지 않는다. 본 논문은 전-서사적 현실이라는 존재론적 출발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두 종류의 구조 분리다. Giddens는 구조를 규칙과 자원의 복합체로 단일하게 다루지만, 본 논문은 서사를 지탱하는 구조와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를 분리한다(2.3절). 이 분리가 기원의 망각 메커니즘을 포착하게 한다. Giddens의 단일한 구조 개념으로는 이 망각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붕괴 메커니즘과 고통 유형론이다. Giddens는 구조의 재생산을 분석하지만, 구조적 조건 변화에 의한 서사 붕괴와 그 이후에 어떤 고통이 어떤 메커니즘

으로 생산되는가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Giddens의 구조화이론은 안정적 재생산의 이론이지, 붕괴의 이론이 아니다.

Giddens(1991)가 후기 작업에서 발전시킨 존재론적 안전(ontological security) 개념은 본 논문의 서사적 토대 개념과 기능적으로 대응한다. 존재론적 안전은 세계와 자기 자신의 연속성에 대한 기본적 신뢰이며, 일상적 루틴과 지속적 관계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Giddens는 이 안전의 원천을 주로 서사와 관계적 신뢰에서 찾으며, 물질적·구조적 조건을 분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1.1절에서 서사의 존속 조건을 구조적 조건(외재적 현실)과 서사적 토대(심리적·관계적 기반)로 분리했으며, 이 두 조건이 독립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고통의 유형 분기를 설명한다. 구조적 조건이 상실된 후에도 서사적 토대가 잔존할 때 잠복 서사가 형성되고(3.2절), 이 비대칭이 이중 구속의 조건이 된다(4.3절).

6.6 아노미론의 재정의: Durkheim과 Merton

Émile Durkheim은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나타나는 병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노미 개념을 도입했다. 『사회분업론(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1893)』에서 아노미는 기존 규범 체계가 해체되었으나 새로운 규범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를 가리키며, 『자살론(Le Suicide, 1897)』에서는 경제적 번영과 불황 모두가 규범적 조절 기능을 붕괴시킬 때 아노미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물질적 개선이 곧바로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Durkheim의 통찰은 본 논문이 계승하는 핵심 감각이다.

그러나 Durkheim의 아노미가 규범 자체의 공백에 초점을 맞춘다면, 본 논문은 아노미를 서사 붕괴 이후 의미 있는 서사 없이 살아가는 존재 상태로 재정의한다(3.3절). 규범이 없어서 욕구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경로가 인과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한지에 대한 서사적 이해 구조 자체가 붕괴한 상태가 아노미의 핵심이다. 이 재정의는 Durkheim이 다루지 못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첫째, 왜 물질적 박탈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경험되는가. 둘째, 왜 동일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도 고통의 양상이 분기하는가. Durkheim의 규범 공백 개념으로는 이 두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Robert Merton(1938)은 Durkheim의 아노미 개념을 정밀화하여,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 사이의 괴리로 재정의했다. Merton은 이 괴리에 대한 적응 방식을 동조, 혁신, 의례주의, 퇴행, 반역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했다. 본 논문은 Merton의 구조-기대 괴리라는 틀을 서사론적으로 계승하되, 세 가지 점에서 수정한다.

첫째, 본 논문은 Merton의 목표-수단 괴리를 서사의 사실적 층위와 규범적 층위 사이의 구조적 비대칭으로 재개념화한다. 서사의 사실적 층위(“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온다”)가 먼저 현실과 어긋나고, 가치적 층위(“안정된 직장은 좋은 것이다”)가 그 다음에 흔들리며, 규범적 층위(“그래도 취업 준비는 해야 한다”)가 가장 오래 잔존한다는 비대칭 가설이 4.3절의 핵심이다. Merton은 목표와 수단을 분리했지만, 서사 내부의 층위 간 비대칭적 붕괴는 다루지 않았다.

둘째, Merton의 의례주의 개념과 본 논문의 이중 구속 개념은 유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르다. Merton의 의례주의는 목표를 이미 포기한 채 수단만 반복하는 적응 양식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이중 구속은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4.3절). 사실적 층위는 불신하지만 규범적 층위가 ISA의 관성(Althusser, 1971)과 세대 간 합리화(Festinger, 1957)에 의해 잔존하여, 개인은 서사 안에 머물 수도 서사 밖으로 완전히 이탈할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놓인다. “해도 소용없다고 알면서 멈추지 못하는” 상태는 목표를 포기한 적응이 아니라, 포기가 구조적으로 차단된 고착이다.

셋째, 본 논문은 아노미를 단일 상태가 아니라 서사와의 관계 상태라는 단일 변인에서 도출되는 고통 메커니즘의 네 유형으로 분기시킨다(IV 장). 이는 행동 적응 양식을 유형화한 Merton의 5유형과 달리, 분류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며, 동일한 개인이 복수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이다. Merton의 5유형은 개인을 하나의 범주에 배치하지만, 본 논문의 4유형은 고통의 발생 경로를 분리함으로써 각 경로에 적합한 개입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7 문화지체론의 재구성: Ogburn

William F. Ogburn(1922)은 물질문화가 비물질문화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이 속도 차이가 사회적 부적응과 갈등을 만든다는 문화지체(Cultural Lag) 개념을 제시했다. 본 논문의 언어로 번역하면, 문화지체란 구조적 조건의 변화 속도가 서사적 토대의 형성 속도를 초과하는 현상이다. 서사적 토대는 가정, 공동체, 반복적 생활 환경을 통해 축적되므로 형성에 시간이 걸리며(1.1절),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 서사적 토대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간극이 서사의 사실적 부합성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Ogburn의 문화지체론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물질문화가 먼저 변하고 비물질문화가 뒤따른다는 단방향적 인과를 전제하며, 가치와 규범을 뒤쳐진 채 적응해야 하는 수동적 층위로 취급한다. 본 논문의 서사-구조 순환 모델은 이 단방향성을 수정한다. Weber(1904/1905)가 분석했듯 칼뱅주의 서사가 자본주의

구조를 만들었고, 한국의 학벌 서사가 사교육 시장과 학벌 기반 채용 구조를 만들었다(2.2절). 물질이 의미를 앞서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가 물질을 앞서는 경우도 존재하며, 두 방향의 인과가 순환한다. Ogburn의 문화지체는 이 순환의 한 국면을 포착한 것이지, 변화의 전체 구조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Ogburn의 통찰을 순환적으로 재구성하면, 근대성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도구가 된다. 6.8절에서 논의할 Rosa(2005)가 정밀화한 바와 같이, 근대 사회에서 기술적 가속화, 사회 변동의 가속화, 삶의 템포의 가속화는 서로를 강화하면서 순환한다. 본 논문의 언어로 재기술하면, 이 가속화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 주기가 서사적 토대의 형성 주기보다 구조적으로 짧아지는 현상이다. 서사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 서사를 지탱할 구조적 조건이 이미 변해버리는 상태 — 이것이 아노미가 특정 위기의 일시적 산물이 아니라 근대 사회의 만성적 조건이 될 수 있는 구조적 이유다. Ogburn이 1922년에 포착한 현상을 본 논문은 서사-구조 순환의 비동시성으로 재기술한다. 단방향적 지체가 아니라, 순환 안에서 서사적 토대의 형성 속도와 구조적 조건의 변화 속도 사이의 비동시성이 핵심이며, 이 비동시성의 폭이 근대 이후 가속화에 의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진단이다.

6.8 성과사회와 가속화: Han과 Rosa

Han Byung-Chul(2010)은 현대 사회를 Foucault(1975)의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전환으로 분석하면서,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동일인이 되는 자기 착취의 구조를 포착한다. 본 논문은 4.2절에서 Han의 이 분석이 현상 차원에서는 정확하다고 인정하되, 두 가지 점에서 수정한 바 있다. 첫째, 규범적 명령을 뜻하는 Sollen(“해야 한다”)에서 능력의 담론인 Können(“할 수 있다”)으로의 단선적인 이행이 아니라, 두 명령이 적층되어 동시에 작동한다고 본다. 둘째, 이러한 자기 착취가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의 공백을 서사 이론으로 보완한다. 여기서는 1부에서 전개된 논의를 반복하기보다, 선행 이론 지형 안에서 Han과의 관계만을 간략히 정리한다. Han의 분석은 본 논문의 고통 유형론에서 첫 번째 유형(서사 내부의 고통)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Han은 성과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통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중 구속, 아노미적 고통,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화하지 않는다. 이 분화가 없으면 한국 청년 세대의 고통은 단일한 자기 착취로 환원되며, 각 유형에 상이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본 논문의 핵심 귀결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Han의 성과사회 테제는 본 논문의 네 고통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는 부분 이론으로 재배치된다.

Hartmut Rosa(2005)의 사회적 가속화 이론은 본 논문과 독립적으로 동일한 현상에 도달한 수렴 관계에 있다. Rosa의 분석은 시간 구조에서 출발하고, 본 논문의 분석은 의미 구조에서 출발하지만, 두 진단이 겨냥하는 도착점은 겹친다. 둘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왜 사람들이 의미를 상실한 채 고통을 경험하는가를 핵심 문제로 삼으며, 그 답을 경제적 변수만이 아니라 의미와 관계의 층위에서 찾는다. 6.7절에서 논의했듯, Rosa의 Beschleunigung(사회적 가속화)은 본 논문의 언어로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 속도가 서사적 토대의 형성 속도를 앞지르는 상태”로 재기술될 수 있다.

Rosa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의미 상실이 어떤 사회적 메커니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화된 분석이다. Rosa는 가속화가 소외를 낳는다고 진단하지만, 같은 가속 조건 아래에서 왜 어떤 개인은 서사 내부에서 자기 착취를 경험하고, 다른 개인은 아노미에 빠지며, 또 다른 개인은 구조적 강제만을 경험하는지를 세분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고통 유형론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며, 가속이라는 동일한 시대 진단 아래에서도 서사와 구조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고통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Rosa는 후기 작업인 『Resonanz』(2016)에서 소외의 대안으로 Resonanz(공명) 개념을 제시한다. 공명은 세계와의 응답적 관계, 다시 말해 내가 세계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세계에 응답하며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변형되는 관계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본 논문의 서사적 토대 개념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 서사적 토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개인이 경험하는 관계는 Rosa가 말하는 공명 상태에 가깝고, 서사 붕괴가 만들어내는 아노미는 Rosa가 말하는 소외 상태에 가깝다고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Resonanz와 서사적 토대가 같은 층위의 현상을 지시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분석 수준(정동적 경험과 서사적 이해 구조)을 가리키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 접합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는 작업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6.9 거대서사론의 재구성: Lyotard

Lyotard(1979)의 거대서사 붕괴 테제에 대한 본 논문의 재구성은 5.3절에서 상세히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그 재구성이 선행 이론 지형 안에서 갖는 위치만을 확인한다.

Lyotard 이후의 논쟁은 대체로 “거대서사는 끝났는가, 아닌가”라는 프레임 안에서 찬반을 나누었다. 본 논문은 그 프레임 자체를 해체한다. 문제는 서사의 유무가 아니라 서사의 독점 상태의 변화이며, 그 변화의 메커니즘은 Lyotard의 역사적 서술(아우슈비츠, 소련 붕괴)보다 서사를 지탱하던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더 정밀하게 설명된다. 5.3절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Lyotard가 포착한 것은 지배 서사의 형성-약화-파편화-재형성 순환의 특정 국면이지 순환의 종료가 아니며, “거대서사에 대한 불신”은 본 논문의 서사 정의를 적용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서사라는 자기모순을 안고 있다.

이 재구성의 독자적 기여는 두 가지다. 첫째, 서사 붕괴의 원인을 역사적 서술에서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이동시킨 것. 둘째, 서사의 파편화가 방향의 다양성이 아니라 방향의 부재로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을 아노미 개념과 연결한 것. 서사의 독점은 억압적이지만 방향을 제공하고, 서사의 파편화는 자유롭지만 방향을 박탈한다(5.3절). 이 역설이 Lyotard의 해방적 독해가 놓치는 것이다.

6.10 서사적 정체성론과의 관계: Somers

Margaret Somers(1994)는 서사를 사회학의 중심 분석 범주로 격상시켰다. 그 이전까지 사회학에서 서사는 주로 방법론적 도구 —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 생애사 연구의 형식 — 로 사용되었다. Somers는 이것을 뒤집어서, 서사가 단순한 연구 방법이 아니라 정체성이 실제로 구성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Somers는 네 가지 서사 유형을 구분한다. 존재론적 서사(ontological narrative)는 개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이야기이고, 공적 서사(public narrative)는 제도와 조직에 의해 유통되는 이야기이며, 메타서사(metanarrative)는 진보나 해방 같은 거시적 이야기이고, 개념적 서사(conceptual narrative)는 학자들이 분석을 위해 구성하는 이야기다(Somers, 1994).

본 논문과 Somers가 공유하는 것은 서사가 정체성의 토대라는 핵심 감각이다. Somers의 공적 서사 개념은 본 논문의 집단 서사/지배 서사 개념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우리는 서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사적으로 존재한다”는 Somers의 테제는 본 논문이 전제하는 존재론과 정확히 겹친다. 그러나 본 논문은 Somers가 멈춘 자리에서 분석을 시작한다. Somers는 서사가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세 가지 후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첫째, 서사-구조 순환이다. Somers는 서사의 구성적 역할을 분석했지만, 서사가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다시 서사를 재생산하는 순환 메커니즘을 체계화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2.2절-2.4절이 이 공백을 채운다.

둘째, 서사의 붕괴와 고통이다. Somers는 서사의 형성은 분석했지만, 서사가 해체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서사의 구성에서

서사의 붕괴와 그 붕괴가 만드는 고통의 메커니즘으로 분석을 확장한 것이 본 논문의 III장과 IV장이다.

셋째, Somers의 네 서사 유형과 본 논문의 고통 유형론은 분류의 대상이 다르다. Somers의 네 유형은 서사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위치에 따른 분류이고, 본 논문의 네 유형은 서사 붕괴 이후 고통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따른 분류다. 전자는 서사의 존재 양식을 분류하고, 후자는 서사의 부재가 만드는 고통을 분류한다. 이 차이가 본 논문의 분석이 Somers와 겹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이유다.

6.11 후기 근대의 물질적 실재와 단독화 논리: Beck과 Reckwitz

Ulrich Beck과 Andreas Reckwitz는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에 속하지만, 본 논문이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에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한다. Beck은 전-서사적 현실의 존재론적 선행성을 지지하는 구조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Reckwitz는 같은 주장을 실천이론의 언어로 보강하는 동시에 후기 근대의 단독화(singularization, 단독적·고유한 것에 가치를 두는 논리) 논리를 통해 대안 서사의 실패 구조를 이론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두 이론가를 하나의 절에서 다루는 것은 이 두 기여가 독립적이면서도 “서사 이전에 이미 작동하는 물질적·구조적 조건”과 “서사 이후에 등장하는 단독화 요구”라는 동일한 분석적 지점에서 수렴하기 때문이다.

Beck(1986/1992)은 『Risikogesellschaft』에서 후기 산업 사회의 위험이 개인의 서사적 구성과 무관하게 신체와 생태계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객관적 구조임을 논증했다. 핵폐기물의 방사성과 화학물질의 독성은 그것을 위험으로 서사화하는 인식 틀이 형성되기 이전에도 실재하며, 그 실재는 서사적 해석의 차이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 논증은 2.1절에서 본 논문이 제시한 존재론적 비대칭—인식이 언어를 경유한다는 사실이 매개 이전의 현실이 없다는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사회이론의 언어로 독립적으로 지지한다. 해석학적 전통의 비판이 인식론적 층위에서 타당하다면, Beck의 위험사회론은 그 인식론적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존재론적 층위에서는 다른 귀결이 도출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식이 항상 매개되더라도, 위험은 인식 이전에 신체에 작용한다.

Beck이 진단한 Normalbiographie의 해체와 Bastelbiographie로의 전환은 본 논문의 결론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제도적으로 주어지던 표준화된 생애경로가 해체된 후, 개인은 교육·고용·가족·주거와 같은 제도적 ‘부품’을 조합해 생애를 스스로 조립해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 Beck(1986)은 이 전환을 Individualisierung(개인화)의 귀결로 읽으면서,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선택의 자유

가 주어지지만 그 자유는 구조적으로 박탈된 선택지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의 자유라는 역설을 안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 필요로 하는 이론적 보강이다. 대안 서사의 재건 가능성은 Bastelbiographie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돌봄 네트워크, 문화 자본—이 확보될 때 열린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서사를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허한 낙관론에 머문다.

그러나 Beck에 대한 거리는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Beck의 개인화 테제는 Normalbiographie의 해체를 궁극적으로 해방적 과정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Wahlbiographie가 가능해진다는 진단에는 서사 붕괴 이후 개인이 대안적 서사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제가 내장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III장과 IV장에서 논증했듯, 서사의 붕괴는 선택의 공간을 열기 이전에 먼저 아노미적 공백과 이중 구속의 고통을 생산한다. Beck은 Normalbiographie 붕괴가 개인에게 가하는 고통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며, Wahlbiographie가 계층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충분히 이론화하지 못한다. 진단은 타월하지만 붕괴 이후의 존재 상태에 대한 이론화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Beck을 전-서사적 현실과 생애경로 제도화의 분석 도구로 부분적으로만 활용한다.

Reckwitz(2002)의 실천이론은 전-서사적 현실의 논증을 다른 경로로 보강한다. Reckwitz는 soziale Praktiken이 신체적 수행, 물질적 배치, 감정과 지각 양식, 그리고 명시적 언어화에 앞서 작동하는 암묵적 know-how의 복합체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실천은 언어적 진술이나 서사적 해석에 환원되지 않는 물질적·신체적 차원을 포함하며, 이 차원은 서사화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현실 접근은 이미 언어와 개념 틀을 통해 매개된다”는 해석학적 반론에 대한 실천이론적 응답이다. 인식이 언어를 경유하더라도, 실천의 물질적·신체적 층위는 그 언어화 이전에 작동한다. 2.1절에서 확립한 전-서사적 현실의 존재론적 선행성은 이로써 추가적인 이론적 기반을 얻는다. 서사 이전에 실천이 있고, 실천 이전에 신체와 물질이 있다.

Reckwitz(2017)의 『Die Gesellschaft der Singularitäten』은 본 논문의 대안 서사 분석에 직접 기여한다. Reckwitz는 후기 근대의 지배적 문화 논리가 Standardisierung(표준화)에서 Singularisierung(단독화, 개별적·유일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로 이동했다고 진단한다. 후기 근대 사회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자아와 생애경로를 구성하도록 구조적으로 요구하며, 이 Singularisierung의 논리가 레드필, N-job, FIRE, 비혼, 로컬 라이프 등 대안 서사들의 동시 폭발적 등장을 설명한다. 그러나 Reckwitz는 Singularisierung가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함을 보여준다. 단독적 서사를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원—문화 자본, 경제적 기반, 도시적 인프라—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간극이 Singularisierung 논리 자체에 의해 확대된다. 이것이 2부 V 절에서 본 논문이 대안 서사들의 계층적 제한을 지적한 이론적 근거를 명시화한다. FIRE와 로컬 라이프가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전제한다는 분석은 Singularisierung 불평등 테제의 한국적 사례이며, 사실적 부합성이라는 본 논문의 서사 평가 기준과 구조적으로 동형이다.

Reckwitz가 남긴 공백 또한 명시해야 한다. Singularisierung 논리는 문화 논리 수준의 거시 분석이며, Singularisierung의 요구 앞에 놓인 개인이 서사 붕괴 이후 어떤 고통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경험하는지를 분석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고통 유형론(IV 장)은 이 공백을 채운다. Singularisierung가 왜 대안 서사의 탐색을 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아노미를 생산하는가—선택지는 폭발하지만 그 선택을 조직하는 서사적 이해 구조가 부재하다—라는 미시적 메커니즘은 Reckwitz의 분석 언어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Beck과 Reckwitz는 각각 “전-서사적 현실”과 “후기 근대의 Singularisierung 논리”를 제공하고, 본 논문은 그 사이에서 서사-구조 순환과 고통의 이념형을 제시함으로써 두 진단의 사이를 메우는 이론적 고리를 형성한다.

또한 Reckwitz의 분석에는 본 논문의 서사-구조 순환 모델이 지적하는 추가적 한계가 있다. Reckwitz는 표준화(Standardisierung)에서 단독화(Singularisierung)로의 이행을 진단했지만, 그 단독화 자체가 다시 표준화된다는 역설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본 논문의 틀에서 이 역설은 다음의 순환으로 기술된다. 지배 서사의 독점성 감소는 Singularisierung로의 이행의 조건이다. 표준화 논리가 약화되면서 개별성의 논리가 헤게모니적 지위를 점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개별성의 서사 역시 외재화·객관화·내재화의 변증법적 순환을 거쳐 집합적으로 내재화되면, doxa화가 진행된다. 개별성이 doxa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개별적이지 않다. “나만의 길을 가라”가 모두의 구호가 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표준화이다. 그 결과 또 다른 개별성의 탐색이 시작되고 순환이 반복된다.

이 순환 구조 안에서 Singularisierung가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한다는 Reckwitz의 통찰은 보존되지만, 그 불평등의 메커니즘이 더 정밀해진다. 문화자본 등의 차이가 대안 서사를 구축하는 능력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개별성의 논리 자체가 새로운 서사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현실을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헤게모니를 조작한다. “존나 찌는 상남자가 되자”나 “국제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식의 서사들은 개별성의 논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doxa이다. 표준화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표준화이다.

나아가 이 현상은 단순한 서사의 붕괴가 아니라 서사에 극도로 몰입한 결과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구별된다. 서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게 작동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것은 4.2절에서 분석한 서사 내부의 자기 착취가 극대화되면서 서사 자체를 변형시키는 경로와 연결된다.

또한 이 순환은 V1과 연결된다. 개별성의 doxa화 속도가 빠를수록 새로운 개별성 탐색의 주기가 짧아지고, 그 주기가 짧아질수록 서사적 토대 형성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이 Rosa(2005)의 가속화 이론과 접합되는 지점이다. 6.8절에서 논의한 사회적 가속화는 단지 구조적 조건의 변화 속도 문제가 아니라, Singularisierung 순환 자체의 주기를 단축시키는 메커니즘으로도 작동한다.

6.12 인정 조건과 서사 재건의 규범적 기반: Honneth

Axel Honneth는 본 논문의 결론부에 직접 개입하는 이론 자원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균열과 잠복 서사를 통해 다른 생애경로를 상상하고 구성할 여지가 있다”고 제시하지만, 이 여지가 어떤 조건에서 실제로 열리는가를 충분히 이론화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Honneth는 그 조건을 Anerkennung(인정) 개념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

Honneth(1992)는 『Kampf um Anerkennung』에서 개인의 자아 실현은 세 층위의 인정—Liebe(사랑·돌봄), Recht(법적 권리), soziale Wertschätzung(사회적 존중)—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세 층위의 인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서사로 구성할 수 있는 관계적·심리적 기반이다. 인정의 박탈, 즉 Missachtung(무시)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기반 자체를 침식하는 사회적 병리다. 본 논문의 언어로 번역하면, Honneth의 세 층위는 새로운 서사의 재건이 가능해지기 위한 서사적 토대의 관계적 조건이다.

Honneth의 인정 이론은 본 논문의 고통 유형론과 규범적 층위에서 정합적으로 연결된다. 서사 내부의 고통(4.2절)은 soziale Wertschätzung이 학벌 서사를 유일한 통화로 삼는 구조와 겹친다. 서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수치심을 낳는 것은, 학벌 서사가 사회적 존중 인정의 단일 척도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아노미적 고통(4.4절)은 세 층위의 인정 관계가 모두 불안정해진 상태—돌봄 관계도, 법적 권리도, 사회적 존중도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서사를 구성할 관계적 기반 자체가 붕괴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4.5절)은 비정규·플랫폼 노동 구조 안에서 최소한의 법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 즉 Honneth가 말하는 법적 인정 층위의 체계적 침식과 겹친다.

이 연결이 가져오는 이론적 이득은 명확하다. 세 층위의 인정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때, 개인은 아노미적 공백을 대안 서사로 채울 관계적 토대를 갖는다. 반대

로 세 층위 모두가 붕괴한 조건에서는 대안 서사의 탐색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 이것이 구조적 조건의 회복이 서사적 개입에 앞서 필요하다는 2.5절의 결론에 규범적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Honneth(2011)의 『Das Recht der Freiheit』가 사회적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 제시한 세 영역—친밀한 개인 관계, 시장적 경제 행위, 민주적 의지 형성—은 본 논문의 supporting structure 개념과 기능적으로 대응한다. 이 제도적 인프라가 서사적 토대를 뒷받침하는 지탱 구조로 작동할 때 서사 재건의 조건이 열린다.

그러나 본 논문은 Honneth로부터도 중요한 거리를 유지한다. Honneth의 인정 투쟁은 개인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Missachtung을 인식하고 그에 저항하는 주체를 전제한다. 인정 투쟁의 주체는 무엇이 인정이고 무엇이 무시인지를 식별하는 규범적 감수성을 이미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노미적 고통(4.4절)에 놓인 개인은 서사적 이해 구조 자체가 붕괴하여 무엇이 인정이고 무엇이 무시인지를 판단할 기준마저 상실한 상태일 수 있다. 서사가 붕괴하면 미인정을 식별하는 언어도 함께 붕괴한다. Honneth의 인정 투쟁은 저항의 방향을 아는 주체를 전제하지만, 본 논문의 아노미 개념은 저항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주체를 포착한다. 이 간극은 Honneth의 인정 이론이 고통 유형론의 완전한 규범적 기반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본 논문의 분석이 인정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을 가짐을 확인한다. Anerkennung 이론은 서사 재건의 조건을 이론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서사 붕괴가 그 조건 인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를 다루려면 Honneth를 넘어서는 개념들이 필요하다.

Honneth에 대한 비판적 거리는 또 다른 층위에서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 Honneth(1992)는 인정 투쟁의 원초적 동기로 “전-서사적 도덕 감각(pre-narrative sense of injustice)”을 제시하며, 신체적 고통, 수치심, 분노가 서사 이전에 작동하는 도덕적 감각이라고 주장한다. 이 반론은 본 논문의 전-서사적 현실 개념과 역설적으로 공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주장이 물질적 전-서사적 현실과 고밀도 doxa를 혼동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고통은 전-서사적이다. 불에 손을 대면 아픈 것은 서사 이전에 작동하는 물질적·생물학적 층위의 경험이다. 그러나 수치심과 분노는 다르다. 수치심은 내가 어떤 기준에 미달했다는 감각이며,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서사이다.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 서사,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는 규범 서사가 작동하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한다. 재산 개념이 없는 사회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감각이 온다.

이 논점을 명확히 하는 반례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신체·생존·자원에 직접적인 손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적 서사를 내재화하지 않은 무신론자는 신성모독 그 자체에 분노하지 않는다. 이해는 가능하다. “저 사람들은 저 서

사를 내재화했기 때문에 분노하는구나“라는 서사 외부에서의 관찰로서의 이해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분노 자체가 아니다. 도덕 감각이 전-서사적이라면 신성모독에 모든 인간이 분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Honneth의 명제를 반증한다.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이 영웅적 행위로 경험되는 사례도 동일한 구조이다. 서사가 맥락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Honneth가 전-서사적 도덕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가 매우 짧아서 사실적 부합성이 극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고밀도 doxa이다. 살인·절도에 대한 도덕 감각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서사의 doxa 밀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이다. 생존과 자원이라는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실적 부합성이 안정적이고, 그 결과 도덕 감각이 자명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전-서사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견고한 서사이기 때문이다.

이 논점은 서사 평가 이론의 첫 번째 기준 — 사실적 부합성 — 이 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지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한다. 전-서사적 현실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사실적 부합성이 안정적이고, 그 결과 doxa 밀도가 높게 유지되기 쉽다. 이 연쇄가 본 논문의 존재론과 서사 평가 이론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통합한다.

결론적으로 인정 투쟁은 전-서사적 정동과 서사적 구조의 결합에서만 발생한다. 원초적 고통·분노라는 정동은 인정 투쟁의 재료일 수 있지만, “무엇이 부정의인가”를 규정하고 투쟁의 방향을 조직하는 것은 서사이다. Honneth의 인정 이론은 그 서사적 조건이 충족된 이후의 투쟁 논리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조건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의 관계가 재정립된다.

6.13 역사학자들의 영향: Braudel, Historicism, Nipperdey

본 논문이 전-서사적 현실과 서사-구조 순환을 상정하는 방식은 사회학 내부 논의뿐 아니라 현대 역사학, 특히 Fernand Braudel과 독일 Historicism 전통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Braudel, 1981/1979; F. A. Lange, 1866/1873). Braudel과 Annales 학파는 역사를 사건(événement), 경기·순환(conjoncture), 장기지속(longue durée)으로 삼분하면서, 장기지속의 층위를 물질생활의 구조로 파악했다(Braudel, 1981/1979). 곡물 위주의 식단, 주거 형식, 교통·에너지 체계, 기후와 지형 같은 요소들은 수십 년, 때로는 수세기에 걸쳐 거의 변하지 않는 바닥을 이루고, 그 위에서 정치적 사건과 단기 변동이 흘러간다(Braudel, 1981/1979; Burke, 2019). 이는 사회를 지탱하는 현실의 일부가 개인의 의식이나 정책 변화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는 점을 드러낸다(Burke, 2019).

2장에서 논의했듯이, 본 논문에서 전-서사적 현실은 특정 서사가 성립하기 이

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환경적·물질적 조건의 충위를 가리킨다(Diamond, 1997; Braudel, 1981/1979). Diamond(1997)가 지형과 기후, 작물과 가축의 분포 같은 생태·지리적 요인을 통해 문명의 장기적 궤적을 설명하듯이, 한 지역의 지형, 무역로, 국가 간 경쟁 구조는 이후 형성될 서사가 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미리 좁혀 둔다(Diamond, 1997). 이 전-서사적 충위는 아직 “어떤 삶이 좋은가”라는 서사로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것이 문제로 부상하고 무엇이 배경으로 남을지를 미리 설정한다(Diamond, 1997). 서사는 이 토대 위에서만 생겨날 수 있고, 일단 형성된 서사는 다시 전-서사적 조건을 해석하고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Diamond, 1997).

Braudel의 삼분법이 본 논문에 기여하는 것은 방법론적 태도가 아니라 개념적 계보다. Braudel이 장기지속의 충위를 도입한 것은, 사건(*événement*)도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관념과 서사도 아닌, 그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던 물질적 구조의 충위를 역사 분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곡물 생산량, 기후, 지형, 이동 비용 — 이것들은 당대인의 의식에 포착되기 이전에 이미 삶의 가능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전-서사적 현실 개념은 이 통찰의 사회학적 번역이다. “서사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Braudel은 장기지속의 물질 구조로 답했고, 본 논문은 그것을 서사-구조 순환의 기원점으로 재개념화한다. 장기지속적 요소들 — 지형, 자원 배분, 인구 구조, 제도적 선행 조건 — 이 이 논문의 언어로 번역되면 전-서사적 토대가 된다. 산업화 이전 농촌 공동체에서 가능한 생애경로 서사는 곡물 생산량, 토지 소유 구조, 계절 노동 리듬, 이동 비용이라는 장기 구조를 전제로 하고, 20세기 후반 한국의 “대학-대기업 정규직-결혼-내 집 마련” 서사는 고도성장, 대량 교육, 도시화, 금융·주택 제도의 장기 구조 위에서만 상상 가능했다(Diamond, 1997). Braudel이 역사학에서 사건과 관념 아래에 있는 충위를 개념화했다면, 본 논문은 서사와 구조 아래에 있는 동일한 충위를 사회학적 형식 이론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다.

한편 이해 방법론의 차원에서, 본 논문은 독일 Historicism 전통과 그 핵심을 정식화한 Leopold von Ranke, 그리고 이를 19세기 독일사 서술에 구현한 Friedrich Meinecke, Thomas Nipperdey의 작업 태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Ranke, 1824/1973; Meinecke, 1936; Nipperdey, 1983). Historicism 전통은 인간 세계를 이해할 때 단일한 법칙이나 보편 공식 대신, 구체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의미 구조와 전체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anke, 1824/1973; Droysen, 1857/1977; Dilthey, 1883/1990). Ranke에게서 “이해(*Verstehen*)”란 개별 행위나 제도를 그것이 속한 시대적·사회적·문화적 전체 속에서 읽어내는 작업이며, 부분은 전체를 통해, 전체는 부분들의 상호 연관을 통해 파악된다(Ranke, 1824/1973; Dilthey, 1883/1990).

이념사적 차원에서는 Friedrich Meinecke와 Friedrich Albert Lange의 작업이

참고점이 된다. Meinecke는 *Die Idee der Staatsräson in der neueren Geschichte*(1924)와 *Die Entstehung des Historismus*(1936)에서, 권력(Raison d'État)과 도덕, 국가와 자유의 긴장 속에서 사상의 전개를 따라가는 이념사적(Ideengeschichte) 접근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Meinecke, 1924; 1936). 그의 관심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Staatsräson·자유·민족·국가 같은 핵심 개념이 어떻게 형성·변형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대의 Bildung 이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추적하는 데 있다(Meinecke, 1924; 1936). Lange의 *Geschichte des Materialismus und Kritik seiner Bedeutung in der Gegenwart*(1866)은 물질주의의 역사를 통해 근대 사상의 전개를 재구성하면서, 철학적·과학적 개념들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사유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F. A. Lange, 1866/1873). 인간 인식과 개념 체계가 시간 밖의 추상적 구조가 아니라 역사적·심리적 조건에 뿌리내린 구성물이라는 이 관점은, 서사·doxa·고통이라는 개념들 자체를 역사적 구성물로 취급하려는 본 논문의 입장과 상응한다(F. A. Lange, 1866/1873; Meinecke, 1936).

추가로 Meinecke는 이를 보다 전통적인 이념사(Ideengeschichte)의 언어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이념이 스스로 세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긴장이, 어떻게 그 이념의 변형을 촉발하는가”였다. 한국의 학벌 서사는 평등주의적 약속(“누구나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과 위계적 결과(“실제로는 소수만이 상층에 도달한다”)를 동시에 내포하는 이념이며, Meinecke는 바로 이 내적 긴장을 학벌 이념의 구조적 모순으로 읽었을 것이다. 이때 현실의 변화 — IMF 이후 고용 구조, 학력 인플레이션, 비정규·플랫폼 노동의 확대 — 는 단지 외재적 충격이 아니라, 애초에 이 이념 안에 잠재해 있던 긴장을 표면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일 뿐이다.

이 논문이 택하는 서술은 기본 구조에서 Meinecke와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이념의 내적 논리”를 텍스트 내부의 순수한 사유사(史)로 환원하기보다, 이념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드러나는 서사의 현실 부적합성으로 설명한다. 학벌 서사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는 현실을 조직하는 강력한 이야기였지만,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그 서사가 약속한 삶의 경로와 실제 삶의 궤적 사이의 괴리가 누적되고, 결국 행위자들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경험적 깨달음에 도달하는 순간, 이념의 내적 결함은 서사 붕괴의 형태로 가시화된다. Meinecke라면 이를 “이념 내부의 긴장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폭발한다”고 말했을 것이고, 이 논문은 같은 현상을 “서사가 더 이상 현실을 견디지 못할 때, 그 서사는 폐기·변형된다”는 언어로 서술한다. 두 서술은 이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누적·심화될 때, 그것이 이념의 내적 위기이자 서사적 붕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전통의 언어로 표현된 동형적 진단에 가깝다.

Nipperdey는 19세기 독일사 연구에서 정치사·사회사·정신사·일상사를 분리된 하위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 서술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실증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때 그의 시도는 단순한 영역 나열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변화가 생활세계의 의미 구조와 고통의 양상에 어떻게 착지하는지를 한 서술 틀 안에서 함께 포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Nipperdey가 제도·구조·사유·일상을 하나의 총체적 서술로 묶는 것이 가능함을 실증했다면, 본 논문은 그 가능성을 사회학적 형식 이론의 언어로 반복하려는 시도다. 서사-구조 순환 모형과 V1/V2/V3, 그리고 네 가지 고통 유형은, Nipperdey가 역사 서술의 수준에서 구현한 총체사의 지향을 개념 장치의 수준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Nipperdey, 1987, 1992).

본 논문이 서사와 구조, doxa와 고통을 하나의 개념틀 안에 배치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Ranke적 Historicism과 Meinecke-Nipperdey식 이념사·총체사 전통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Ranke, 1824/1973; Meinecke, 1936; Nipperdey, 1987). 한국 청년 세대의 고통은 개별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지속적 구조(전-서사적 현실), 중기적 제도 변화, 단기적 세대 담론과 개인 경험, 그리고 그 위에서 형성된 “좋은 삶”에 대한 Bildung과 자기 이해의 서사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된다(Diamond, 1997; Ranke, 1824/1973; Meinecke, 1936; Nipperdey, 1987, 1992). 따라서 이 논문은 특정 지표나 단일 요인으로 청년 문제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Historicism 전통이 강조해 온 것처럼 부분(청년의 고통)을 전체(장기 구조, 사회적 서사, 시대의 자기 이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Ranke, 1824/1973; Meinecke, 1936; Nipperdey, 1983). 다시 말해, Nipperdey의 총체사는 “정치사·사회사·정신사·일상사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본 논문은 한국 청년의 생애경로·구조·고통을 하나의 형식 이론으로 연결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사회학적 이론의 층위에서 계승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Braudel과 Annales의 장기 구조 분석은 전-서사적 현실과 V1의 존재론적 전제를, 역사주의와 Nipperdey의 총체사는 서사-구조-고통을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이 논문의 지향을 뒷받침한다(Braudel, 1981/1979; Ranke, 1824/1973; Meinecke, 1936; Nipperdey, 1987). Braudel과 Ranke, 그리고 Nipperdey에 대한 참조는 본 논문의 두 층위를 지지한다. 하나는 전-서사적 현실을 장기지속하는 물질 구조로 구체화하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와 경험, 장기와 단기를 하나의 총체적 틀 안에서 파악하려는 이해 방법론이다(Braudel, 1981/1979; Ranke, 1824/1973; Meinecke, 1936). 이 두 전통 위에 F. A. Lange-Meinecke가 보여준 이념사적 통찰과 서사-구조-고통이라는 사회학적 개념틀을 세움으로써, 본 논문의 형식 이론은 거대서사와 미시적 경험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사학과 사회학의 접점에서 한국 청년 세대의 서사 붕괴를 정위하려는

후속 시도로 자리 잡는다(Lange, 1866/1873; Nipperdey, 1992). 다시 말해, 이 이론은 기존 전통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 붕괴와 아노미, 네 가지 고통이라는 개념 장치를 통해 “어떤 생애 경로가 좋은 삶으로 인정되고, 그 서사가 붕괴할 때 어떤 고통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분석 가능하게 만드는 형식적 틀을 제시한다.

6.14 Weber의 이념형(ideal type)과 본 논문의 서사적 구성

Max Weber의 이념형(ideal type)은 경험적 현실에서 관찰된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특정 측면을 선택·강조하고, 이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적 틀로 조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인식 도구이다. 이념형은 그 개념적 순수성 때문에 현실 어디에도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성격을 갖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실을 비교·설명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념형은 (1) 현실에서 요소들을 관찰하고, (2) 그 요소들에 이름을 부여하며, (3) 그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틀 속에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을 일정한 관점 아래에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이념형은 단순한 분류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주변화할지, 어떤 인과 관계를 상정할지를 함께 제시하는 하나의 서사적 이해 형식을 제공한다. 1장에서 제시한 서사 평가의 세 기준(사실적 부합성, 내적 정합성, 구조적 포용성) 역시 이러한 이념형의 역할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Weber의 이념형은 현실에 대한 기술이자,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정렬하는 서사적 장치라는 두 층위를 동시에 가진다.

본 논문은 이 메커니즘을 개별 연구자의 분석 도구라는 수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역사적 차원에서 이해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로 확장해 본다. 현실에서 추출된 요소들에 이름이 붙고, 그것들이 하나의 틀로 통합될 때, 이 틀은 특정 시대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주요한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성장-입시-취업-가족 형성”에 관한 일련의 표상들은, 단일한 이론이 아니라 교육 제도, 노동시장 제도, 복지 체계와 같은 제도적 장치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통계와 정책 담론은 이 틀에 부합하는 경로를 기준값으로 제시하고, 일상 언어와 상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표현한다. 개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성공으로, 무엇을 실패나 지체로 부를지를 이 틀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2장에서 논의한 지원 구조와 산출 구조, 그리고 oblivion of origin 개념은 바로 이러한 이해 틀이 어떻게 제도와 상식 속에 굳어지는지를 가리킨다. 이때 이 틀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선택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서사라는 점, 다시 말해 다른 구성가능성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점차 의식의 전면에서 물러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축적되면, 이해 틀은 여러 서사적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으로 전제되는 기본 구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현실은 이 틀

을 통해 설명될 뿐 아니라, 이 틀에 비추어 평가되고 해석된다. 어떤 삶의 경로는 이 틀의 “정상값”에 근접한 것으로, 다른 경로는 그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읽히며, 당사자들 자신도 자신의 삶을 그러한 좌표 위에 위치시키게 된다. 이때 현실이 더 이상 그 틀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변화하면, 개인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내면화한 서사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결국 기존 서사로는 자신의 삶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한국 청년들이 겪는 서사 붕괴와 구조적 강제의 한 배경으로 제시한다. 3장과 4장에서 제시한 1997년 이후의 통계 지표, NEET 비율, 생애경로 자료들은 이 이해 틀과 현실 조건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과거의 특정 시기에 형성된 “정상 생애경로”에 대한 집합적 이해가 이후 세대에도 수정 없이 유지될 때, 현실 조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이해가 지속되면, 개인이 자신의 삶을 그 서사에 맞추어 해석하려 할수록 실패감과 자기부정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Weber의 이념형과 본 논문이 분석하는 사회적 이해 구조는 모두 현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 요소들을 선택하고 연결하는 서사적 장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Weber의 이념형이 현실을 하나의 이야기적 틀 속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면, 본 논문에서 전개하는 서사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한국 청년의 생애경로와 아노미를 일정한 상위 서사로 묶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지원 구조와 산출 구조, 서사적 기반과 서사 붕괴에 대한 논의는 개별 청년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설명 자체가 또 하나의 서사라는 점을 의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기존 서사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한편,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서사를 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5장에서 제시한 서사 평가 이론의 세 기준은 외부 서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상위 서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 본 논문은 Weber적 전통에서 드러난 이념형의 서사적 성격을 참고하면서, 관찰-명명-통합을 통해 형성된 이해 틀이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현실을 조직하고, 다시 그 현실에 의해 변화와 도전을 받는지를 한국 청년 아노미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6.15 본 논문의 이론적 위치

이상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본 논문의 위치가 기존 이론들의 단순한 종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은 이미 확립된 이론들을 하나의 틀로 엮는 작업이지만, 본 논문이 시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전통들이 각자 남겨 놓은 공백들을 하

나의 형식 이론으로 관통하는 작업에 가깝다. 다시 말해, 기존 이론들의 교집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들 사이의 틈새에서만 보이는 서사 붕괴와 구조적 강제의 메커니즘을 포착하려는 시도다.

각 이론이 남긴 공백은 다음과 같다. Ricoeur와 MacIntyre는 인간의 서사적 존재론을 정초했으나, 서사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붕괴 이후 어떤 고통과 재구성이 발생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Berger & Luckmann은 사회적 현실 구성의 순환을 정교하게 기술했으나, 그 순환이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떤 조건에서 붕괴하는지, 즉 기원점과 파열의 지점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 Giddens는 구조와 행위의 상호 구성을 통해 구조의 이중성을 설명했으나, 제도적·물질적 구조와 서사적·의미 구조라는 두 종류의 구조를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았고, 이 둘이 어긋난 이후 행위자에게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를 전면화하지 않았다. Bourdieu는 doxa와 재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했으나, doxa가 스펙트럼상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doxa가 명제화되고 “인지” 되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doxa의 종언을 예고하는 역설을 체계화하지 않았다. Marx와 Althusser는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을 분석했으나, 진실/허위의 이분법과 “위에서 아래로”의 단방향적 부파를 전제함으로써, 행위자가 이미 깨진 서사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조정하며, 때로는 냉소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지의 복잡한 국면을 충분히 담지하지 못했다.

Durkheim과 Merton은 아노미를 강력한 개념으로 제시했으나, 상이한 서사 층위(개인·집합·지배 서사) 사이의 비대칭과 이중 구속(double bind)이 어떻게 구체적 삶의 궤적을 찢어 놓는지를 미시적으로 포착하지 못했다. Ogburn은 문화지체(cultural lag)를 포착했으나, 제도·경제·문화·서사가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 복수의 시간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여전히 단방향적 인과 도식에 머물렀다. Han은 자기 착취와 성과사회를 탁월하게 분석했으나, “자유의 명령”이 어떻게 내면화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고통(죄책, 수치, 무가치감, 분노)이 서로 구분되며, 또 어떤 서사적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다. Rosa는 가속화와 소외, 공명(resonance)의 부재를 통해 현대인의 세계 관계를 분석했으나, 동일한 가속화 조건 아래에서도 왜 어떤 삶은 붕괴로, 어떤 삶은 냉소적 적응이나 다른 서사로 분기하는지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Somers는 서사적 정체성을 정초했지만, 서사가 붕괴할 때 정체성이 어떻게 분열·잠복·우회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 구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재조직되는지를 충분히 전개하지 않았다.

이 연쇄를 변수 차원에서 정리하면, 본 논문은 두 개의 독립 축으로 구성된 이중 변수 체계를 제시한다. V 축(V1·V2·V3)은 구조-서사 관계의 시간적·분포적 기하학을 포착하며, 구조 변화와 서사 조정의 시차, doxa의 개인적 강도, doxa의 사회적 밀도를 측정한다. Q 축(Q1·Q2·Q3)은 그 기하학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서사의 내용적 성격을 평가하며, 사실적 부합성, 내적 정합성, 양산하는

구조의 성격을 측정한다. 두 축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V1이 축소된 상태(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Q가 낮을 수 있고, V1이 확대된 상태에서도 Q가 높은 대안 서사가 형성될 수 있다. 고통의 네 유형은 이 두 축의 상이한 조합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메커니즘이며, 이 이중 축 체계가 기존 이론들—Bourdieu의 doxa, Merton의 아노미, Han의 성과사회, Rosa의 가속화—이 각각 단일 축에서만 포착했던 현상들을 하나의 좌표평면 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더해, Ranke-Droysen-Dilthey로 이어지는 전통과 Meinecke, Nipperdey로 대표되는 역사주의는 “특정 시대의 핵심 개념(Idee)이 어떻게 형성·변형되었는가”를 추적했으나, 그 개념들이 일상적 서사와 생애 궤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특정 세대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고 붕괴시키는지까지는 내려가지 못했다. Braudel과 Annales 학파의 장기지속(longue durée) 분석, Diamond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생애주기 제도화·IMF 이후의 구조 변동을 조망할 강력한 렌즈를 제공하지만, 그 속에서 개별 행위자의 서사와 고통이 어떻게 경험되는지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Kohli의 생애주기 제도화 이론 역시 제도적 생애 궤적의 틀을 잘 보여주지만, 그 틀 속에서 서사가 어떻게 붕괴하고 “대체 서사”가 어떻게 발명되는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Meinecke는 Staatsräson, 자유, 민족, Bildung과 같은 이념들이 스스로 세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탁월하게 분석했으나, 그 이념들이 구체적인 세대·계층의 서사 붕괴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에 가깝다.

본 논문이 택하는 길은, 이러한 공백들을 하나의 형식 이론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서사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서사-구조 순환, 전(前)서사적 현실의 존재론적 선행성, 두 구조(제도적/물질적 구조와 서사적/의미 구조)의 분리, 기원의 망각, doxa의 스펙트럼적 재구성(V1/V2/V3), 세 재생산 경로(ISA·행위자·서사), 서사 붕괴의 스펙트럼, 잠복 서사, 고통의 네 유형, 형식과 질의 분리에 이르는 이론적 연쇄는, 기존 이론들이 개별적으로 포착했던 통찰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재배열하면서도, 그 틈새에 남아 있던 영역 — 특히 서사 붕괴와 구조적 강제가 만나는 지점 — 을 드러내려는 시도다.

이 연쇄는 동시에, 역사주의와 이념사의 통찰을 이 논문 특유의 서사 이론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예컨대 Meinecke라면 한국의 학벌 서사를 Bildung의 한국적 변형이자 “교육적 Staatsräson”의 이념으로 읽었을 것이다. 이 이념은 평등주의적 약속(“누구나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과 위계적 결과(“실제로는 소수만이 상층에 도달한다”)를 동시에 내포하며, IMF 이후의 구조 변동과 함께 그 긴장이 폭발한다. Meinecke의 언어로 말하면, 이는 이념 내부의 긴장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폭로·심화되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같은 현상을 “서사가 더 이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그 서사는 붕괴·변형된다”는 언어로 서술한다. 즉, 이념의 내적 모순과 서사의 현실 부적합성은 서로 다른

전통의 언어로 표현된 동형적 진단이며, 이 논문은 그러한 긴장을 서사-구조-고통의 연쇄 속에서 재구성한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본 논문이 계몽주의 전통과 다양한 환원주의들 — 곧 경제 환원주의, 마르크스주의, Habermas적 합리성 이론 등 — 을 하나의 “절대적 토대” 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서사들, 즉 한 시대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구성한 메타 서사들로 다룬다는 점이다. 이 이론들은 “이성”, “계급”, “커뮤니케이션” 을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본 논문의 형식 이론 안에서는 모두 하나의 doxa, 곧 특정 구조와 세대에 특유한 자기-이해의 형식으로 재배열된다. 이는 계몽의 가능성과 필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 역시 다른 서사들 위에 우위를 점하려는 하나의 서사적 시도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동시에, 본 논문이 제시하는 이론적 연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형식 이론은, 앞서 검토한 이론적 자원들(서사 이론, 이데올로기·doxa 이론, 아노미·문화지체·가속 이론, 역사주의·이념사 등)이라는 기존의 서사적 토대들과, 한국 청년 세대가 처한 전(前)서사적 현실과 구조적 현실 — IMF 이후의 제도적 변동, 생애주기의 제도화, 학벌·N세대·NEET 담론 등 — 의 결합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서사적 이해틀이다. 다시 말해, 이 이론은 자기 자신을 “근본” 이나 “최종 토대” 로 주장하지 않고, 역사주의와 Verstehen 전통 위에 선 방법론적 상대주의적 이해 방법론의 산물로서,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유효한 하나의 이념형적 서사로 남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논문이 제시하는 이론적 연쇄는 (1) 서사적 존재론과 사회적 구성 이론, (2)이데올로기론·doxa이론·구조화이론, (3) 아노미·문화지체·가속·Singularisierung·인정 이론, (4) 역사주의·이념사·이념형 개념을 하나의 틀 안에서 접속시킨다. 그 결과 이 연쇄는, 한국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서사 붕괴와 구조적 강제를 “한 시대의 자기 이해가 구성되고 흔들리고 붕괴하는 과정” 으로 읽어낼 수 있는 상위 서사, 곧 Weber적 의미에서의 이념형적 이해 틀을 제공한다. 이 틀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험적 설명력을 갖는지, 그리고 한국 청년의 생애 궤적과 아노미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는, 이어지는 2부에서 통계·정책 자료와 기존 경험 연구를 통해 검토할 과제다.

2부. 한국 청년 세대의 적용

2부에서 활용하는 경험적 자료는 성격이 상이한 자료들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통계청,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의 행정 통계는 전국 대표성을 갖지만, 민간 기관(대학내일20대연구소 등) 및 선행 연구의 설문 자료는 특정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는 편의표본이며 표본 규모 또한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이 두 유형의 자료를 동일한 위상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후자에 통계적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자료의 한계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논문의 이론적 성격에서 직접 도출되는 방법론적 선택이다.

본 논문은 경험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자료를 이론적 명제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절대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료는 특정 명제가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각되고 인식되는지를 보여 주는 예시적·지시적 장치다. 따라서 단일 지표의 추세를 기계적으로 추적하기보다, 상이한 영역의 변화들이 시간적으로 어떠한 방향성과 배열을 이루는지를 드러내는 '수렴 패턴(converging pattern)'을 읽어내는 데 집중한다. 이 점에서 2부의 자료 활용은 Durkheim이 자살 통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통합력의 변동을 읽어낸 방식과 같은 논리로 작동한다. 자료는 메커니즘 자체가 아니라, 그 메커니즘이 현실 위에 남긴 패턴을 가리킨다.

이 전제 위에서 2부의 분석은 1부의 형식 변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한다. 먼저 한국의 지배적 생애경로 서사가 형성되던 시기를 추적하여 독사의 강도(V2)와 밀도(V3)가 어떻게 안정화되었는지를 기술한다. 이어서 1997년 이후 구조적 조건의 변화 속도와 독사 조정 속도의 간극인 V1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변수의 조합이 1부 IV장에서 제시한 고통 유형들의 실제 발생 조건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1부의 형식 이론을 단순히 예시하는 것을 넘어, 이론이 예측하는 조건이 한국 청년의 현실에서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따라서 2부의 분석은 한국 청년 세대의 경험을 대표적으로 기술하거나 통계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1부에서 구성한 이론적 틀이 특정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적용적 서술이다.

I. 서사의 존재 확인

2부에서 활용하는 경험적 자료들은 단일 지표의 추세를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이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시간적으로 어떠한 방향성과 배열을 이루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인되는 노동시장 안정성의 약화, 주거 비용의 상승,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의 하락, 대인·제도 신뢰의 감소는 각각 독립된 현상이라기보다, 기존 생애경로 서사를 지탱하던 구조적 조건이 동시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수렴 패턴으로 읽힌다.

본 논문의 틀에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악화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좋은 대학 진학→안정된 직장→결혼 및 주거 안정”이라는 인과 경로의 사실적 부합성이 점차 약화되는 과정이다. 핵심 문제는 이 구조적 변화의 속도에 비해 해당 서사를 내면화한 doxa의 조정 속도가 지연된다는 데 있다. 이 비대칭적 속도차가 V1 간극을 형성하며, 그 간극은 개인이 기존 서사를 따르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긴장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지표들은 doxa의 강도(V2)나 밀도(V3)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doxa와 구조적 현실 사이의 정합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기능한다. 이 점에서 2부의 경험적 자료는 Durkheim이 자살 통계에서 사회적 통합력의 변동을 읽어낸 방식과 같은 논리로 작동한다. 자료는 메커니즘 자체가 아니라 그 메커니즘이 현실 위에 남긴 패턴을 가리킨다.

2부에서 활용하는 경험적 자료는 성격이 상이한 자료들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통계청·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공공기관의 행정 통계는 전국 대표성을 갖지만, 사람인·대학내일20대연구소·심재형 외(2025)의 설문 자료는 특정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는 편의표본이며 표본 규모 또한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두 유형의 자료를 동일한 위상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후자에 통계적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구분은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논문의 이론적 성격에서 직접 도출되는 방법론적 선택이다. 경험적 자료는 이론적 명제를 검증하거나 확증하는 근거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론이 전제하는 발생 조건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실제로 충족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해석적 단서로 기능한다.

이 전제 위에서 2부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 생애경로 서사가 형성되던 시기를 추적하여 V2·V3가 어떤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는지를 기술한다. 이어서 1997년 이후 구조적 조건의 변동 속도와 doxa 조정 속도 사이의 간극—V1—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변수의 조합이 1부 IV장의 고통 유형들의 발생 조건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이 분석은 한국 청년 세대의 경험을 통계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

나라, 1부의 이론적 틀이 특정 역사적·제도적 맥락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II. 서사의 내재화와 제도화

1.3절에서 doxa를 “명제로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판단임을 알 수 없는 상태“, 즉 서사가 세계 자체로 경험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과 표준 생애경로를 둘러싼 서사는 오랜 기간 이 doxa의 지위에 도달해 있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절에서 논의한 전-서사적 현실의 층위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선행적으로 형성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성장·노동·교육 집약형 발전 경로'를 강제하는 구조적 조건이었다. 6·25전쟁 이후 한국 경제는 전쟁 피해와 교역망 붕괴로 심각한 침체 상태에 있었다. 협소한 국토와 많은 산지, 작은 내수시장과 높은 인구밀도, 냉전 하 분단국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은 내수 중심 복지국가 모델보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 전략을 상대적으로 유일한 생존 경로로 만드는 전-서사적 구조를 먼저 형성했다. 이미 자본주의가 세계적 체제로 확산되어 있었고, 일제 시기 자본주의적 제도와 관행이 상당 부분 이식된 상황에서 “경제를 돌보는 것“은 선택적 정책 의제가 아니라 통치 권력이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이러한 전-서사적 조건 위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소비·거래 관행이 확산되며 경제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삶의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경제 서사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때 경제 서사는 단순한 생활양식의 묘사에 머물지 않는다. 다수가 이 경제적 생활 방식을 내면화하여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경제를 중시하지 않는 삶조차 그 구조 안에서 살아야 하는 실질적인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 경제 서사를 내면화한 다수의 행동이 노동시장, 임금체계, 가격·주거·교육 시장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면서, 경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삶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된다. 이 의미에서 경제적 사고는 하나의 서사이자 동시에 특정 방식의 수행을 강제하는 구조로 기능한다. 이렇게 형성된 경제 서사는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 높은 밀도로 응축되어,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일반 서사가 한국에서는 “교육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거의 유일한 정상 경로로 서사화하는 방향으로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적극적 매개자였다. 2.2절에서 분석했듯, 이 서사는 민간의 자생적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생산·유포한 것이었다. 1974년 정부 홍보 포스터 “1981 1,000불 국민소득의 길“은 상승 화살표를 따라 달려가는 어린이들의 이미지를 제시하며, 경제적 성공을 향한 전진이 올바른 삶이라는 서사를 국가 차원에서 시각적으로 각인시켰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조국 근대화“, “새마을운동“ 등의 표어는 국가주도 성장·수출·저축·교육이 결합된 형태의 지배 서사를 생산·유포하는 외생적 경로로 기능했다. 이 전-서사적 조건과

국가 서사는, 이후 생애경로 서사가 힘을 얻고 빠르게 doxa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마련했다.

이 서사가 doxa 수준으로 안정화된 것은 행동, 태도, 제도의 세 층위가 수렴한 결과다. 행동 층위에서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 27.1%에서 2008년 83.8%로 급등했으며(통계청, n.d.), 이는 대학 진학이 단순한 수요 팽창이 아닌 생애경로 서사의 핵심 단계로 제도화되었음을 지표화한다. 태도 층위에서 재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대학 진학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54%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했다”고 응답했고, 85%는 대학을 학문 수양 기관이 아닌 취업 준비 기관으로 인식했다(심재형 외, 2025). 이 응답들에는 회고적 사후 합리화가 개입할 수 있으나, 그 합리화가 수렴하는 방향 자체—대학 진학을 삶의 당연한 경로로 인식하는 것—가 현재 서사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doxa 강도에 대한 근사 지표로 읽을 수 있다. “당연하다”는 응답은 doxa의 정의—질문이 발생하지 않는 무반성적 수용 상태—와 정확히 일치하며, 개인 수준의 doxa 강도(V2)가 1에 가까운 고밀도 구간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제도 층위에서는 1.2절에서 정의한 지배 서사의 조건, 즉 “집단 서사가 제도와 결합해 사회 전체 차원에서 객관화되고 확대 재생산된 상태”가 충족되었다. Kohli(1986)가 말한 생애과정의 제도화가 구조적으로 이를 뒷받침했는데, 교육제도, 학벌 중심의 취업 기준, 정년·연금 체계, 주택 청약 제도 등이 “교육→노동→가족→은퇴”라는 생애경로를 실질적 보상 구조로 결속시켰다. 임금 층위에서 교육 수익률 역시 이 구조를 뒷받침했다. 최근 20년간 임금은 언제나 대학 졸업자가 다른 모든 학교급의 졸업자보다 높았으며, 전문대·고졸·중졸 이하 졸업자 간의 임금 차이는 미미했던 반면 4년제 대졸 이상 집단과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유지되었다(강상진, 2009). 더불어 사회이동 경로 분석에서도 “응답자 부의 교육 → 응답자 교육 → 응답자 초직 → 응답자 현직”이라는 기본 경로가 전 출생 집단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되어(박병영 외, 2010), 교육이 직업지위와 소득을 매개하는 제도적 사실로서 생애경로 서사의 물질적 근거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면화는 2.4절에서 제시한 세 가지 재생산·확산 경로가 중첩되면서 입체화된다. 내생적 경로에서 1970-80년대 농촌·도시 중하층 가구는 “학교 교육→도시 진출→공장·사무직 취업→소득 상승”이라는 경로를 반복 경험하며 “공부를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개인 서사를 집단 서사로 응고시켰다. 6·25전쟁으로 기존 계층 질서가 붕괴하고 토지개혁으로 지주-소작 관계가 해체된 사회에서, 교육은 물질적 자원 없이도 지위 상승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전쟁 이전 시기 양반·상인 계층의 문화 자본으로 제한되어 있던 교육 접근성이 전후 급격히 민주화되면서, 농촌 가구가 자녀의 교육을 통해 실제로 도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축적되었다. 이 반복 경험이 “교육→상승”이라는 개인 서사를 낳았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전승되면서 집단 서사로 응

고되었다. 외생적 경로에서 국가는 미국식 근대화·성장 담론을 수입해 위에서 언급한 표어들로 번역하는 동시에, 교육부·문교부·공보처 등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해 이 서사를 학교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공공 캠페인에 체계적으로 삽입했다. 전쟁 직후의 반공 교육과 경제 성장 교육이 하나의 서사 묶음으로 제시되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서사가 공식적 교육 내용으로 정착했다. 구조적 증폭 경로에서 2000년대 이후 입시·취업 플랫폼과 포털·SNS·유튜브는 “스펙 경쟁”과 “성과 중심 자기계발” 서사를 알고리즘적으로 증폭해 이미 내면화된 생애경로 서사와 정합적인 콘텐츠를 더 자주·더 오래 소비하게 만들었고, 대안 서사와의 접촉을 피드 구성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이 경로는 기존 내생적·외생적 경로가 형성해 놓은 서사를 디지털 환경에서 재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특히 취업 준비 세대에게 “스펙이 부족하다”는 자기 평가와 경쟁 서사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 83.8%로 대변되는 doxa 밀도(V3)와 “당연한 과정”이라는 54%의 응답으로 대변되는 doxa 강도(V2)는 극도로 높은 상태에 도달했다. 다만 이 강도와 밀도는 사회 내부에서 균질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계층·지역·학교 유형에 따라 생애경로 서사가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상이하며, 사교육비에서 소득 상위과 하위 가구 간 세 배 이상의 격차는 서사 내재화가 물질적 조건에 의해 매개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서사를 내면화하더라도 그 서사를 현실화할 물질적 토대의 차이는, 이후 IV절에서 분석할 네 가지 고통 유형이 동일한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도 계층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는 배경이 된다.

3.1절에서 도입한 V1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관점에서 보면, 이상의 서술은 다음을 확인시켜 준다. 구조 지표—정규직 비중, 청년 고용률, 실질임금—는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doxa 조정의 대리 지표인 대학 진학률과 스펙 경쟁 강도는 2000년대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다. 두 지표의 시계열을 비교하면 V1의 간극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패턴이 드러난다. 이 점진적 확대는 비대칭 붕괴 명제의 성립 조건—구조 변화와 doxa 조정 사이의 간극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부합한다. 동시에 대학 진학률의 높은 절대 수준과 “특별한 이유 없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응답이 시사하는 높은 V2·V3는, 이 세 조건의 동시 충족이 이후 분석할 고통 유형들의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열어놓는 배경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 해석에서 각 지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 V3 대리 지표로는 대학 진학률 83.8%(2008), “특별한 이유 없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응답 54%(심재형 외, 2025)가 사용된다. 이 지표들은 서사의 집합적 내재화 밀도를 보여주는 증거다. V1 확대를 해석하는 독립 지표로는 세 층위가 사용된다. 담론 층위에서는

“N포세대” · “헬조선” · “이생망” 같은 간극 명명 언어의 2010년대 중반 출현 시점이 1997년 구조 악화 이후의 지연 기간을 소급적으로 드러낸다. 태도 층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65~69% 인식(한국리서치, 2024)과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응답이 18.7%에서 14.7%로 오히려 하락한 패턴(통계청, 2024)이 규범 층위의 관성을 보여준다. 행동 층위에서는 구조 악화 이후에도 사교육비 지출, 스펙 경쟁 강도, 자격증 취득 경쟁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doxa의 관성에 대한 간접 지표가 된다. V1 확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2015년 이후 구간에 집중된 고통 지표들—NEET 비율 24.4%(국무조정실, 2024), 쉬었음 청년 42만 1천 명(고용노동부, n.d.), 고립 · 은둔 청년 54만 명(보건복지부, 2023), 청년 번아웃 32.2%(Park, 2025)—이 사용된다. 이 시간 축 분리를 통해 같은 논문 내 자료가 V1 해석 근거와 고통 결과 지표로 이중 사용되는 순환 위험이 차단된다.

앞 절까지의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생애경로 서사가 형성되고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면, 이 절은 그 서사가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한다. 동일한 학벌-취업-결혼-주거 서사가 사회 전체에 유통되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내면화하는 정도와 그 서사가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계층적 · 공간적 자원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doxa는 단일한 사회 전체의 평균값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특정 서사가 어떤 집단에게 얼마나 자명하게 경험되고, 어떤 집단에게 얼마나 강제적으로 작동하는가의 분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V2와 V3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V2는 개인이 특정 서사를 얼마나 강하게 내면화했는가를 가리킨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 한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이 정상적 삶의 경로다”와 같은 명제가 개인에게 얼마나 자명한 현실로 경험되는지가 V2의 문제다. 반면 V3는 개인의 믿음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전체가 그 서사를 전제로 움직이는 정도를 가리킨다. 개인이 학벌 서사를 더 이상 믿지 않더라도, 채용 구조가 학력과 스펙을 요구하고, 부모 세대의 기대가 지속되며, 또래 집단이 동일한 경쟁에 참여하고, 제도적 보상이 여전히 특정 경로에 배분된다면 V3는 높게 유지된다.

대학진학률, 사교육비, 스펙 경쟁과 같은 지표는 이 점에서 이중적이다. 그것들은 개인들이 학벌 서사를 내면화했다는 V2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그 서사를 믿지 않더라도 이탈하기 어려운 사회적 밀도, 즉 V3의 증거이기도 하다.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것은 많은 개인이 대학 진학을 당연한 경로로 받아들였다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 할 제도적 · 상징적 비용이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는 V2와 V3를 동시에 반영하는 혼합 지표로 보아야 하며, V3를 더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용의 학력 필터, 졸업장의 최소 자격화, 중퇴자 낙인, 학자금 대출 구조,

입시 중심 학교 운영, 스펙 인플레이션과 같은 이탈 비용의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분리는 계층 차이를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하다. 상위 계층은 학벌-취업 서사가 기능 저하를 겪더라도 그 붕괴를 완충하거나 우회할 자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다. 사교육, 해외 유학, 부모의 경제적 지원, 문화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실패 이후의 재도전 가능성은 기존 서사의 성공 가능성이 약화된 조건에서도 개인의 경로를 보정하는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 이들에게 생애경로 서사는 여전히 강한 V2로 작동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붕괴의 충격은 자원에 의해 흡수된다. 즉 상위 계층은 서사 내부의 자기 착취를 경험하더라도, 그 실패가 곧바로 생존 위협이나 경로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중위 계층은 기존 생애경로 서사의 이중 구속을 가장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학벌, 안정적 직장, 결혼, 주거 마련이라는 표준 경로를 강하게 내면화해왔지만, 그 경로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만큼의 자원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위 계층처럼 붕괴를 우회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고, 하위 계층처럼 애초에 서사의 약속을 낮은 기대 속에서 거리두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중위 계층에게 기존 서사는 “믿기 어렵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남는다. 이 지점에서 사실적 층위의 붕괴와 규범적 층위의 잔존이 겹치며, 이중 구속의 고통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가면 소진되고, 이탈하면 추락한다는 감각이 이 계층에서 특히 선명해진다.

하위 계층은 다른 방식으로 서사 붕괴를 경험한다. 이들에게 학벌-취업 서사는 여전히 규범적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그 서사를 수행할 자원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교육 접근성, 정보, 안정적 주거, 부모의 경제적 지원, 문화자본, 관계망이 부족할수록 기존 서사의 요구는 더 빨리 비현실적인 것으로 경험된다. 이 경우 V2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불안정할 수 있지만, V3는 여전히 높게 작동한다. 즉 개인은 서사를 충분히 믿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더라도, 사회가 여전히 그 서사를 기준으로 기회를 배분하기 때문에 구조적 강제를 감내해야 한다. 하위 계층에서 아노미와 구조적 강제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간적 자원의 분포 역시 이 차이를 심화한다. 동일한 학벌-취업 서사라도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은 교육, 노동시장, 문화 자본, 정보, 관계망, 대안적 삶의 모델이 밀집된 공간이다. 이 밀집성은 서사 수행의 기회를 넓히지만, 동시에 비교 가능성과 경쟁 압력을 극대화한다. 서울 청년은 더 많은 기회에 접근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 치열한 경쟁과 더 높은 기준 속에 놓인다. 이 경우 서사 내부의 고통은 과밀 경쟁형 자기 착취로 나타나기 쉽다.

반면 전남 농어촌과 같은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서는 동일한 서사가 다른 방식으로 착지한다. 이 지역의 청년은 학벌-취업 서사를 공유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자원, 진로 정보, 문화 자본, 노동시장 선택지, 다양한 포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데 더 큰 제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학벌 서사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역을 떠나라”는 탈출 서사와 결합한다. 서울형 이중 구속이 “해도 안 되지만 안 하면 더 불안하다”는 형태라면, 농어촌형 이중 구속은 “떠나도 불안하고 남아도 막힌다”는 형태에 가깝다.

다만 농어촌을 단순히 결핍의 공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낮은 주거비, 친족·지역 관계망, 지역 공동체, 자연환경, 토지 접근성, 느린 생활 리듬은 분명 자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자원이 어떤 서사 안에서 자원으로 인정되는가이다. 학벌-수도권-대기업 중심 생애경로 서사의 관점에서 농어촌의 관계망과 생활 기반은 성공 경로로 환산되기 어렵다. 반대로 로컬 라이프, 공동체 기반 삶, 생태적 삶, 지역 창업 서사에서는 같은 요소들이 대안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인 동시에 서사적으로 가시화되는 조건이다. 어떤 자원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지배 서사의 목표 체계 안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성공 경로의 수단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된다. 이 점에서 대안 서사의 한 기능은 기존 서사에서 쓸모없거나 낙후된 것으로 보이던 자원을 새롭게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재해석이 현실 조건과 부합하지 않으면 대안 서사는 쉽게 낭만화로 전락한다. 지역에 낮은 주거비와 공동체가 존재하더라도, 일자리, 의료, 교육, 이동성, 문화적 다양성, 관계의 개방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로컬 서사는 실제 대안이 아니라 기존 서사 붕괴 이후의 심리적 위안에 머물 수 있다.

결국 계층과 공간은 단순한 배경 변수가 아니다. 그것들은 V2, V3, Q를 동시에 조정하는 자원 분포의 조건이다.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은 동일한 서사를 서로 다른 강도로 내면화하고, 서로 다른 이탈 비용을 감당하며, 서로 다른 대안 서사 구성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서울, 수도권, 지방 대도시, 농어촌은 같은 생애경로 서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게 만들고, 그 붕괴 이후의 공백도 다르게 경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한국 청년”이라는 범주는 분석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최종 설명 단위가 될 수는 없다. 한국 청년 세대의 고통은 동일한 서사 붕괴의 결과이면서도, 그 붕괴가 계층적·공간적 자원의 분포 위에 다르게 착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Ⅲ. 구조적 토대의 변동과 서사 붕괴

서사 붕괴의 선행 원인은 이념적 회의 이전에 전-서사적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 전환점이었다. 본 논문에서 V1은 서사가 전제하는 인과 경로(교육→안정적 취업→주거 확보→결혼)와 이를 실현하는 구조적 조건 사이의 괴리로 정의된다. 비대칭 붕괴 명제에 따르면, 이 V1의 간극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때 서사의 사실적 층위가 먼저 현실과 어긋나고 규범적 층위가 가장 오래 잔존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이 맥락에서 생애경로의 구성 요소들은 위계적이다. 대학 진학은 생애 주기의 1차적 목표이자 수단이며, 대기업·공기업·정규직 취업은 실질적 채용을 통해 주어지는 물질적 보상이다. 주거 역시 노동소득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결혼은 이러한 사실적 성취 위에서 수행되는 규범적 이정표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붕괴한 것은 결혼 규범 자체가 아니라 그 규범을 지탱하던 취업과 주거라는 현실적·물질적 토대였다.

실제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사실적 층위의 붕괴는 명확한 수치로 나타난다. 대기업·공기업·금융업 등 안정적 일자리는 1997년 이전 154만 2천 개 수준에서 2004년 131만 개로 23만 2천 개 감소했고(현대경제연구원, 2007),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47.2%까지 급등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정점에 도달했고(김유선, 2016), 질적 격차도 고착화되어 2016년 기준 비정규직 평균 월임금은 151만 원으로 정규직 306만 원의 49.2% 수준에 불과했다(김유선, 2016). 이후 2007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세로 전환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정규직 확대의 결과라기보다 통계 분류 변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한 정책의 효과에 가까웠으며, 2014년 이후에는 44~45% 수준으로 재차 고착화되었다(김유선, 2016).

교육의 층위에서도 보상 체계의 와해가 확인된다. 교육 수익률은 대졸 이상에서 구조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강상진, 2009), 대졸자 공급과 고학력 일자리 수요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하향취업이 확산되었다. KLIPS 자료에 따르면 2009~2016년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중은 약 15%를 유지했으나(김기홍, 2019a), 같은 기간 2000~2018년 중 대졸자 수는 연평균 4.3% 증가한 반면 적정 일자리는 2.8% 증가에 그쳤고 최근 하향취업률은 3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오삼일·강달현, 2019). 하향취업자의 임금은 적정취업자의 약 75% 수준에 머물렀으며, 2014년 이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기홍, 2019a). 나아가 하향취업자는 적정취업자보다 이후 적정취업으로의 이행 비율이 낮고 임금상승률도 낮아, 초기 고용 형태가 경력 전반에 걸쳐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기홍, 2019a). 이는 대학 진학이 생애경로 서

사에서 약속하던 안정적 취업 경로로의 진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주거 영역의 변동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한국의 주택가격지수는 장기 평균인 59.20포인트에서 2022년 6월 역대 최고점인 100.90포인트까지 급등했으며(Trading Economics, 2026), 외환위기 직후의 일시적 조정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구조적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 1990년대 중후반의 상대적 안정 국면이 종료되면서 노동 소득만으로 주거를 확보한다는 생애경로의 물질적 전제가 절단된 것이다. 사회이동 연구에서도 최근 출생집단일수록 가정형편이라는 출신배경 변수의 영향력이 직업지위뿐 아니라 소득 결정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박병영 외, 2010),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구조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doxa 강도(V2)와 밀도(V3)가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학진학률은 1997년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여 2008년 83.8%에 도달했고(통계청, n.d.), 2021년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5~69%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한국리서치, 2024). 구조는 이미 약화되었으나 서사는 10년 이상 현실에 후행하며 유지된 것이다. 이 간극이 오랫동안 가시화되지 않은 것은 액체 근대의 책임 전가 담론이 결합했기 때문이다(Bauman, 2000). 구조적 실패가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되면서 “구조가 배신했다”는 인식보다 “내가 서사 기준에 미달했다”는 자기 귀속이 먼저 작동했고, 이는 사실적 층위가 붕괴했음에도 규범적 압박과 자기 착취를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낳았다.

이러한 구조와 서사의 간극(V1)은 세대 간 비대칭적으로 분배되었다. 1970년대생이 25~29세를 통과하던 1995~1999년에는 대기업·공기업·금융업의 안정 일자리 154만 2천 개가 유지되었고 주택가격지수도 장기 평균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김유선, 2013; 현대경제연구원, 2007; Trading Economics, 2026). 반면 1990년대생이 동일 연령대를 통과한 2015~2019년은 비정규직 사용이 기업의 표준 고용관행으로 자리 잡고 정규직 대비 임금이 49.2% 수준으로 고착화된 이후였으며, 주택가격지수는 장기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상승해 있었다(김유선, 2016; Trading Economics, 2026). 두 코호트 모두 동일한 doxa를 높은 강도로 내면화했지만, 그 doxa가 작동하는 구조적 토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따라서 V1 간극은 특정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각 코호트가 서로 다른 구조적 조건 위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경로 서사 자체가 가치론적 층위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한국리서치(2025)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 중 결혼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41%였으나,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의 1위는 경제적 여유 부족(45%)이었다. 통계청(2024) 조사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1위는 결혼자금 부족(32.4%)

으로 2022년(29.7%) 대비 오히려 상승한 반면, 서사적 이탈에 해당하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18.7%에서 14.7%로 4%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이후 20대 미혼 응답자의 56%는 “우리 사회가 미혼남녀에게 결혼할 것을 강요한다”고 체감하고 있었으며(한국리서치, 2025), 이는 규범적 압력이 여전히 제도적·사회적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은 결혼이 정당한 삶의 형태로 여전히 내면에 남아 있으나 구조적 조건에 의해 실현이 억압되고 있는 잠복 서사(latent narrative)의 전형적 상태를 입증한다. 3절의 개념 틀로 보면 이는 서사의 소멸이 아니라 기능 저하—서사가 아직 존재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조직하는 힘이 점차 약해지는 상태—에 해당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응답이 비용-편익 계산의 결과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에서 편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결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서사적 토대의 층위에서 작동하며, 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고용 불안, 주거비 상승, 양육 비용—은 구조적 조건의 층위에서 작동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주어진 선호 체계 내에서의 최적화를 설명하지만, 그 선호 체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동하는가는 서사 이론이 다루는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설명은 상이한 층위의 분석이며, 후자는 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서사 붕괴의 2차적 효과로서 신뢰 기반의 약화도 확인된다. 에텔만(2025)에 따르면 한국의 기관 종합 신뢰도는 28개국 중 27위(41%)였고, 대인신뢰도 역시 약 10여 년 사이 73.7%에서 52.7%로 하락했으며 특히 19~29세와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23). 서사 붕괴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세대가 동시에 제도와 사회적 타자에 대한 신뢰를 가장 적게 보유한 세대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대안 서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관계적·상징적 토대마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의 생애경로 서사는 붕괴 스펙트럼의 극단인 완전한 소멸 상태가 아니라, 사실적 층위는 크게 와해되었으나 가치·규범적 층위는 강하게 잔존하는 비대칭적 기능 저하 국면에 위치한다. 노동시장과 주거라는 두 핵심 도메인에서의 구조 변동은 1997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2010년대에 걸쳐 고착화되었고, 그 고착화의 부담은 특히 199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에 집중적으로 착지했다. 동일한 doxa를 높은 강도로 내면화했음에도 서로 다른 구조적 토대 위에 놓인 코호트들 사이에서 V1 간극은 세대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었으며, 그 간극은 담론적 차단 메커니즘을 통해 집합적 인식 대신 개인의 자기 귀속으로 먼저 전환되었다. 바로 이 불균등한 분배 구조와 차단의 논리가 IV절에서 분석할 네 가지 고통 유형의 발생 조건을 구조적으로 열어놓는다.

IV. 고통의 네 유형: 한국적 발현

1부 IV장은 네 유형의 고통이 상이한 V1·V2·V3 조합과 서사의 사실적·규범적 층위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정식화했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바—V1의 점진적 확대, V2와 V3의 높은 수준 유지, 사실적 층위의 선행 붕괴와 규범적 층위의 잔존—은 이 네 유형이 한국 청년 세대 안에서 각각 상이한 경로로 실현될 조건이 갖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서사 내부의 소진은 V2가 높고 V1이 아직 작은 단계, 즉 구조 악화가 시작되었으나 doxa가 충분히 흔들리지 않은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중 구속의 고통은 V1이 임계점을 넘어 확대되면서도 V2·V3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구간, 즉 사실적 부합성은 무너졌으나 규범적 층위가 강하게 잔존하는 현재의 기능 저하 국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할 것이다. 아노미적 고통은 V2가 하락하여 규범 층위마저 주체의 행동을 조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며,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은 V3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서사를 내재화하지 않은 개인이 타인의 서사가 만든 구조적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 예측되는 조건이 실제 한국 청년의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4.1절에서 네 유형의 분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며, 동일한 개인이 복수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경험하거나 시간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의 내용에 따르면, 각 유형은 V1/V2/V3와 사실·규범 층위 조합으로 도출되며, 2부 IV절은 이 조합들이 한국 청년의 현실에서 어떤 지표와 사례로 관찰되는지를 검토한다.

4.1 서사 내부의 고통 — 수능 체제 하 자기 착취

이 유형은 V2 높음·사실적 층위 미붕괴 조합에 해당하며, 서사 안에 완전히 있는 상태에서 서사가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다. 수능·내신 체제 하에서 학벌 서사를 깊이 내재화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경로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 서사가 제시하는 이상과 현재 자신 사이의 간극이 매일 점수와 등수의 형태로 가시화된다.

4.2절에서 Han(2010)의 성과주체 분석을 서사 이론으로 정밀화했듯, 내면화된 학벌 서사는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이라는 이상적 자아상을 제공하고, 학생은 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심급을 내면에 갖게 된다. 이때 평가 주체와 평가 대상은 동일인이고, 외부 명령 없이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수면·식사·휴식까지 성적 향상에 종속시키는 자기 착취가 발생한다.

이 구조는 주관적 인상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 체제가 청년층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 실증된다. 청년패널 2007의 2012년 추적조사 분석에 따르면, 20-35세 청년 근로자 3,332명 중 약 60%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50시간 초과 비율도 17%에 달한다(Lee et al., 2020). 주당 31-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주당 41-50 · 51-60 · 60시간 초과 집단의 스트레스 교차비는 각각 1.46, 2.25, 2.55, 우울은 2.08, 2.79, 4.09, 자살 생각은 1.98, 3.48, 5.30으로 추정되었다(Lee et al., 2020).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도 19-34세 청년의 32.2%가 지난 1년간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주요 원인으로 진로 · 경력 불안과 과도한 업무, 일에 대한 환멸이 지목되었다(Park, 2025).

이중 구속의 고통 — 취업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스펙을 쌓는 상태

이 유형은 V2 높음 · 사실적 층위 붕괴 · 규범적 층위 잔존 조합에 해당한다. 서사의 인과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음을 인식해도, 규범적 명령이 잔존해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다. IMF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고학력 청년 실업과 하방 이동이 반복되면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상식이 되었고, 실제로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지수는 특히 고학력층에서 크게 하락했다(통계청, n.d.-a). 서사를 가장 충실히 따랐던 집단이 서사의 사실적 부합성 붕괴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은 스펙 경쟁을 멈추지 못한다.

여기에 스펙 경쟁 자체의 구조적 동학이 이탈 비용을 추가로 높인다. 모든 개인이 동시에 스펙을 강화할 때, 각자의 추가 노력은 상대적 위치를 개선하지 못하고 탈락 기준선을 집합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기여한다. 이른바 붉은 여왕 효과(Red Queen effect)처럼, 모두가 더 빨리 달리지만 아무도 상대적으로 앞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멈추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확실한 불이익으로 귀결된다. 서사의 사실적 층위를 이미 불신하는 개인도, 타인이 계속 달리는 구조 안에서 혼자 멈추면 즉각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에 멈추지 못한다. 붉은 여왕 효과는 ISA의 관성과 세대 간 합리화와 함께 규범적 층위가 사실적 붕괴 이후에도 잔존하는 경로를 이룬다. 이 세 경로가 중첩될 때 이중 구속의 강도는 개인의 서사 전환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아노미적 고통 — 경로가 막힌 뒤 방향 자체가 사라진 상태

이 유형은 V2 낮음 · 사실적 층위 붕괴 · 규범적 층위 비잔존 조합에 해당한다. 서사의 인과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음을 인식해 더 이상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없지만,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서사를 갖지 못한 채 공백에 놓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설문에서 20대 응답자의 59.9%가 최근 한 달 사이 무기력 · 좌절 · 냉소 ·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세계일

보, 2016), NEET와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이 유형의 구조적 징후로 읽힌다. 한국의 NEET 비율은 24.4%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고(국무조정실, 2024), 2024년 기준 쉬었음 청년은 42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고용노동부, n.d.). 고립·은둔 청년이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들 중 75.4%가 자살 생각 경험, 26.7%가 실제 시도 경험을 보고했다는 사실은(보건복지부, 2023), 이 상태가 단순한 노동시장 이탈이 아니라 의미 공백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 — 서사 바깥에서 생존만 남은 상태

이 유형은 V2 낮음·사실적 층위 붕괴·규범적 층위 비잔존에 V3 높음이 결합된 조합에 해당한다. 학벌·생애경로 서사에 대한 신념도 규범도 해체되었지만, 생존이라는 물질적 강제 때문에 수행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다.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임금근로자 중 현 직무에 만족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하고(Park, 2025), 한국고용정보원(2024) 조사에서 15-29세 청년 중 임금·직종·근무지역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에 그친 반면 모든 조건에 불만족하는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상당수 청년이 저임금·불안정 고용에 놓여 있으며, 서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조차 생존을 위해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을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2.5절에서 말한 “타인의 서사가 만들어낸 구조는 그 서사를 내면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강제한다”는 명제가 한국 청년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앞 절들에서 제시한 A, B, C, D는 서로 다른 네 부류의 청년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들은 한국 청년이 생애경로 서사와 맺는 관계가 변화할 때 발현될 수 있는 네 가지 고통 메커니즘의 이념형이다. 따라서 수험생 A, 취업준비생 B, 지방대 졸업자 C, 냉소적 수행자 D는 각각 독립된 인간 유형이 아니라, 동일한 개인에게도 시간적·상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고통의 경로를 분석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의 유형론은 사람을 네 범주로 나누는 분류표가 아니라, 서사와 구조의 관계 변화에 따라 고통이 어떻게 이동하고 중첩되는지를 설명하는 궤적 모델이다.

가장 전형적인 궤적은 서사 내부의 고통에서 시작된다. 개인은 처음에는 학벌-취업-결혼-주거로 이어지는 생애경로 서사를 자명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때 좋은 대학, 안정적 직장, 정상가족, 주거 안정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삶의 당연한 순서로 경험된다. 개인은 그 서사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할수록 더 강한 수행을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 고통은 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사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 자기 착취는 이 정상 작동의 심리적 형태다.

그러나 반복된 실패, 노동시장 정보의 축적, 또래의 불안정한 경로,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과 현재 조건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면서 개인은 서사의 사실적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 좋은 대학에 가면 안정된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 스펙을 쌓으면 취업이 보장된다는 믿음, 성실하게 일하면 결혼과 주거 안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린다. 그럼에도 학교, 가족, 또래, 채용 제도, 사회적 평가 체계는 여전히 동일한 규범을 요구한다. 이때 개인은 이중 구속의 상태에 놓인다. 믿음은 흔들렸지만 행동은 멈출 수 없고, 따르면 소진되지만 이탈하면 배제된다. 이중 구속은 바로 이 교착의 고통이다.

이 교착이 장기화되면 개인은 더 이상 기존 서사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조직하지 못하게 된다. 서사의 사실적 층위뿐 아니라 규범적 층위도 주체를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서사 역시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되었더라도 현실 부합성·내적 정합성·산출하는 구조의 질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아노미적 고통이다. 아노미는 단순히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기존 서사의 보호 기능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의미 구조를 구성할 사회적·관계적 조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기존 서사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이후에도, 구조적 강제는 남는다. 학벌이 안정된 삶을 보장한다고 믿지 않더라도 졸업장은 여전히 최소 자격으로 요구된다. 스펙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더라도 채용 구조가 그것을 요구하면 수행은 지속된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의 표준 경로를 더 이상 정상적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주거·노동·복지 제도가 여전히 그 경로를 전제한다면 개인은 그 구조 안에서 생존해야 한다. 이때 수행의 동력은 신념도 규범도 아니다. 남는 것은 이탈 비용과 생존 압박이다. 이것이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이다.

중요한 점은 이 이행이 입시, 대학, 취업, 노동시장 진입과 같은 생애 단계 사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한 입시 시기 내부에서도 개인이 서사와 맺는 관계는 변화할 수 있다. 수험생은 처음에는 대학 진학 서사를 자명한 현실로 받아들이며 서사 내부의 자기 착취를 경험한다. 점수는 자기 가치의 척도가 되고, 공부하지 않는 시간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경험된다. 이때 공부는 단순한 학습 행위가 아니라 불안을 잠시 낮추는 안전 행동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같은 수험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을 가도 정말 괜찮아질까”, “이 경쟁이 정말 내 삶을 구할까”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멈추지 못한다. 학교는 여전히

성적을 요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입시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래는 같은 경쟁에 참여하고, 입시 제도는 정해진 날짜에 시험과 원서 접수를 강제한다. 이때 동일한 입시 장 안에서도 서사 내부의 고통은 이중 구속의 고통으로 이동한다.

더 나아가 반복된 실패와 소진 속에서 공부의 목적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더 이상 왜 공부해야 하는지 설득되지 않지만, 공부하지 않는 삶을 상상할 언어도 없다. 이때 수험생은 입시 서사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오지만, 그 바깥에서 자기 삶을 조직할 새로운 서사를 아직 갖지 못한다. 이것이 입시 시기 내부에서 나타나는 아노미적 공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대학 진학 서사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보고, 원서를 쓰고, 등급과 합격 가능성에 맞춰 행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시는 더 이상 신념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적 강제의 장이 된다. 따라서 네 유형은 서로 다른 생애 단계에 배타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제도적 장 안에서도 서사에 대한 믿음, 의심, 이탈, 강제 수행의 정도에 따라 미시적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중첩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반복된다. 취업준비생은 처음에는 스펙과 자기계발을 통해 안정된 직장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경쟁이 누적되고 채용 기준이 불투명해질수록 그는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된다. 그럼에도 스펙을 쌓지 않으면 탈락할 것이라는 압박 때문에 수행을 멈추지 못한다. 이중 구속이 장기화되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와 채용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면접을 본다. 이처럼 자기 착취, 이중 구속, 아노미, 구조적 강제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시기 안에서 서로 겹쳐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이 궤적은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속도와 순서로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논의했듯, 계층적·공간적 자원의 분포는 각 메커니즘의 발생 조건을 조정한다. 상위 계층은 사교육, 부모 자산, 문화자본, 해외 유학,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사 붕괴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 서사 내부의 경쟁을 더 오래 지속하거나, 실패 이후에도 대안 경로를 탐색할 여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다. 반면 중위 계층은 기존 서사를 강하게 내면화했지만 그것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자원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구속을 가장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하위 계층은 처음부터 서사를 수행할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 내부의 경쟁을 오래 지속하기보다 아노미나 구조적 강제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공간적 조건 역시 궤적을 다르게 만든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은 교육·노동·문화·관계 자원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 밀도와 비교 압

력도 높다. 이 경우 고통은 과밀 경쟁 속 자기 착취와 스펙 인플레이션의 이중 구속으로 나타나기 쉽다. 반면 전남 농어촌과 같은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청년은 동일한 학벌-취업 서사를 공유하더라도, 그 서사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정보, 문화 자본, 노동시장 선택지, 관계망에 접근하는 데 더 큰 제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학벌 서사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탈출 서사와 결합한다. 서울형 이중 구속이 “해도 안 되지만 안 하면 더 불안하다”는 형태라면, 농어촌형 이중 구속은 “떠나도 불안하고 남아도 막힌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청년의 고통은 하나의 균질한 경로로 일반화될 수 없다. 동일한 생애경로 서사가 붕괴하더라도, 어떤 청년은 그 서사 내부에서 오래 소진되고, 어떤 청년은 이중 구속의 교착에 머무르며, 어떤 청년은 빠르게 아노미로 이동하고, 어떤 청년은 처음부터 구조적 강제의 형태로 그 서사를 경험한다. 또한 한 개인 안에서도 이 네 메커니즘은 서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순간에는 서사를 믿으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른 순간에는 그 서사를 의심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며, 또 다른 순간에는 방향을 잃고, 다시 생계와 제도 때문에 수행을 지속한다.

물론 현실의 사례가 항상 자기 착취에서 이중 구속, 아노미, 구조적 강제로 이어지는 순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V2가 높음에도 관계적 지지와 제도적 자원이 급격히 붕괴하면 곧바로 아노미가 나타날 수 있고, V2가 낮음에도 V3가 높게 유지되면 자기 착취와 유사한 수행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개인은 대안 서사를 일시적으로 구성했더라도, 그것이 Q1·Q2·Q3의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시 아노미나 구조적 강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본 논문의 유형론을 단순히 반박한다기보다, 각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어떻게 중첩되고 변형되는지를 더 정교하게 분석해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2부 IV장의 네 유형은 한국 청년을 네 종류로 나누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생애경로 서사의 형성, 기능 저하, 붕괴, 잔존이 개인에게 착지하는 네 가지 경로를 분리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한국 청년 세대의 고통은 서사 내부의 과잉 수행, 경계에서의 교착, 이탈 이후의 공백, 바깥에서의 강제가 서로 겹쳐 만들어내는 복합 구조다. 이 복합성을 보아야만 한국 청년의 고통을 단순한 경쟁 피로, 세대 불만, 개인적 무기력, 경제적 결핍 중 하나로 환원하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은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사의 잔존과 붕괴, 믿음과 냉소, 자원과 결핍, 개인적 내면화와 사회적 강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V. 대안 서사의 탐색과 한계

5.3절에서 Lyotard의 거대서사 붕괴 테제를 수정해, 서사의 독점 약화가 단일 서사의 소멸이 아니라 다수의 대안 서사들이 파편적으로 경쟁하는 상태를 낳는다고 보았다. 한국 청년 세대에서 퍼스널 브랜딩과 N잡, 비혼, 로컬 라이프, 덩크, FIRE와 같은 서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 탐색이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대안들을 분석할 때 첫 번째 구분은 서사 적응과 대안 서사의 차이이다. N잡·사이드 프로젝트는 기존 서사의 목표를 유지한 채 실현 경로만 수정한 서사 적응에 해당하고, 비혼·FIRE·로컬 라이프는 기존 생애경로 서사의 목표와 가치 구조 자체를 변형하려는 대안 서사에 가깝다.

이 대안 서사들의 분류에 한 가지 범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박인성(2022)이 분석한 위임된 성장서사가 그것이다. 위임된 성장서사란 자신의 불확실하고 힘든 성공을 직접 추구하는 대신, 인터넷 부족주의 내부에서 발견된 대리 주체—박인성이 ‘우리형’으로 명명한 인물들—에게 감정과 관심을 투자하고 그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경험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박인성이 사례로 든 래퍼 옴파의 경우처럼, 부족 구성원들은 능력주의 시대의 기존 성공 모델에 반대되는 성공 사례를 우리형을 통해 대리적으로 향유하며, 그 성공에 대한 관심 투자가 일종의 숏텀 피드백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박인성은 이 양상이 마조히즘적 정서적 평등주의(슬픈 개구리 페페 밌으로 대표되는 자기비하 문화)와 짝을 이루어, 부족 내부의 동질화된 자기 위안과 외부의 대리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논증한다.

본 논문 5절에서 이미 검토한 대안 서사들 가운데 레드필 서사 역시 이 위임된 성장서사의 한 양태로 재배치될 수 있다. 레드필 서사는 표면적으로는 “각성한 남성”이라는 주체적 자기 형성을 표방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부족 내부의 위계적 우월감과 외부에 설정된 대리 성공 모델(이른바 ‘알파 메일’ 인플루언서, 자수성가형 멘토 등)에 대한 감정적 투사에 의존한다. 이 의존 구조는 박인성이 분석한 우리형 문화의 위임 구조와 동형적이다. 따라서 레드필 서사는 단순히 사실적 부합성이 낮은 해악적 대안 서사일 뿐 아니라, 위임된 성장서사 일반이 가진 구조적 특성—직접 성장의 회피, 대리 성공의 향유, 부족 내부의 동질화된 자기 위안—을 공유하는 사례다.

이 위임된 성장서사를 5.2절의 서사 평가 세 기준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적 부합성 측면에서, 우리형의 성공이 부족 구성원의 실제 성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낮다. 내적 정합성 측면에서, 정서적 평등주의(모두가 패배자라는 자기비하)와 위임된 성장(특정 인물의 대리 성공) 사이에 구조적 모

순이 있다. 양산하는 구조 측면에서는 박인성이 지적한 “진지하게 도전하지 않는 것, 도전하는 타인을 비웃거나 성공할 것 같은 사람에게만 관심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어적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새로운 서사 형성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위임된 성장서사는 본 논문 4.4절의 아노미적 고통이 만들어낸 공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지만, 동시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율적 서사 형성의 인간학적 조건—본 논문 2.1절에서 정초한 서사화 역량의 적극적 발휘—을 봉쇄하는 이중적 효과를 갖는다.

다만 박인성이 분석한 위임된 성장서사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관찰된 양상이며, 본 논문의 활용도 남성 청년 집단에 한정된다. 한국 청년 세대의 대안 서사 탐색은 성별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분기하며, 여성 청년 집단에서는 구조적으로 다른 방향의 대안 서사가 형성되고 있다. 김수정·조명아·이정운(2022)이 분석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청년 여성 주식 담론이 그 대표적 사례다. 김수정 외는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대형 여성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2020년 주식투자 열풍 국면에서 청년 여성들이 주식을 세가지 의미틀로 담론화하고 있음을 보인다. 첫째, 주식은 전통적으로 남성 세계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여성이 진입해야 할 영역으로 재해석된다. 둘째, 주식의 위험은 부정되지 않고 관리 가능한 것으로 재구성된다. 셋째, 주식 투자는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김수정 외가 분석한 ‘망고빙수 담론’—신라호텔 망고빙수 4만 2천 원 대신 신라호텔우 주식 1주 4만 9천 원을 사라는 ‘언니의 조언’—은 이 재구성의 전형적 장면이다. 여성적 소비 문화로 간주되던 행위가 젠더화된 소비 패턴의 산물로 대상화되고, 그 자리에 경제적 주체화의 실천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 여성 청년 경제 담론을 본 논문의 서사-구조 틀로 재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 청년의 위임된 성장서사가 학벌·성취 서사의 V1 간극 확대에 대한 반응으로 기존 성취 서사의 목표 가치를 유지한 채 실현 경로만 수정하거나 대리 주체에 위임하는 수평 이동이라면, 여성 청년의 경제 담론은 기존 젠더 서사—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정상으로 전제하던 가부장적 생애경로 서사—자체를 문제화하는 대항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전자가 기존 서사의 강도와 실현 경로를 조절한다면, 후자는 서사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 이 방향의 차이는 김수정 외가 포착한 여성 청년 주식 담론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금융 주체로의 포섭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문화정치적 실천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과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담론의 내용은 경제 활동이지만, 그 활동을 조직하는 서사적 가치판단의 틀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새로 구성된 대항 서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 여성 청년 대항 서사를 5.2절의 서사 평가 세 기준으로 검토하면 위임된 성

장서사와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 사실적 부합성 측면에서, 주식 투자가 실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된 성장서사보다 높다. 내적 정합성 측면에서, 젠더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자립 실천 사이에 일관된 논리가 작동한다. 양산하는 구조 측면에서는 양가적이다. 한편으로 여성의 경제적 주체화를 정당화하고 젠더화된 소비·저축 규범을 비판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doxa의 고정성을 느슨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김수정 외 자신이 지적하듯, 청년 여성이 주식 실천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금융 주체로 포섭될 위험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 양가성은 본 논문 6.11절에서 논의한 Reckwitz의 단독화 논리—개별성을 추구하는 실천이 집합적으로 축적되면 새로운 표준화로 귀결되는 순환—와 정확히 접합된다. 대항 서사 역시 집합적으로 내재화되면 doxa화의 경로를 밟으며, 그 단계에서 대항 서사가 새로운 표준으로 기능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서사의 구조적 관계를 정리한다. 남성 청년 위임된 성장서사와 여성 청년 경제 대항 서사는 동일한 전-서사적 조건—IMF 이후 청년 고용 불안정화,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확대—을 공유하지만, 그 조건을 해석하는 서사적 가치판단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이 분기한다. 이 분기는 본 논문의 틀에서 보면 동일한 V1 간극이 서로 다른 V2 분포와 상관을 이루며 나타난 패턴으로 기술될 수 있다. 남성 청년의 경우 학벌·성취 서사의 V2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조건에서 기존 서사의 보존 방향(대체·철수·강화)으로 반응이 주로 관찰되는 반면, 여성 청년의 경우 기존 젠더 서사의 V2가 페미니즘 리부트를 경유하며 부분적으로 균열된 것으로 보이는 조건에서 서사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반응이 관찰된다. 두 운동이 같은 사회 공간에서 작동할 때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한쪽이 문제화하려는 서사가 다른 쪽이 보존하려는 서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은 이 충돌의 사회학적 귀결—양쪽이 모두 고통받는 구조—을 지적하는 데 그치며,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본 논문이 두 사례를 병치한 목적은, 한국 청년의 대안 서사가 단일한 양상으로 분석될 수 없으며 성별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른 경로로 분기한다는 점을 본 논문의 V 변인 체계 안에서 형식적으로 위치짓는 데 있다.

이 병치에는 두 가지 한정이 유지된다. 첫째, 박인성의 분석이 남초 커뮤니티에 한정되듯 김수정 외의 분석도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 커뮤니티의 20-30대 여성에 한정되며, 본 논문의 활용도 이 집단 한정을 그대로 계승한다. 두 분석은 한국 청년 남성·여성 일반을 대표하지 않으며, 특히 계층·지역·정치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박인성이 들뢰즈의 마조히즘이나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을 활용했고 김수정 외가 비판적 담론분석과 신자유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활용했더라도, 본 논문은 그 이론적 자원들을 직접 가져오지 않는다. 본 논문이 활용하는 것은 두 연구가 관찰한 현상 차원—위임된 성장서사와

는 구조적 양태와 페미니즘 틀 위의 경제적 주체화 담론—이며,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 자체의 사회학적 메커니즘 분석 틀(서사화 역량의 인간학적 토대, 서사성 스펙트럼, V 변인 체계, 네 가지 고통 유형, 서사 평가 세 기준)을 통해 수행된다. 이 분업이 본 논문의 자기 규정을 지키면서도 두 연구의 경험적 분석을 이론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의 병치에 관해 한 가지 메타 규정을 덧붙인다. 위의 기술은 V2 분포의 차이가 두 집단의 서사적 분기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1.3절에서 밝혔듯 V2는 개인 수준에서 특정 서사가 얼마나 자명하게 작동하는가를 측정하는 양적 분포 개념이며, 대안 서사 형성의 방향과 질을 1대1로 결정하는 단일 인과 변수가 될 수 없다. 동일한 V2 값 위에서도 보존·냉소·우회·대항 등 상이한 방향의 선택이 모두 가능하며, 어떤 경로가 선택되는지는 V2 단독이 아니라 대안 서사의 가용성, 관계적 서사 토대, 집합적 임계질량 등 복합적인 조건에 의해 매개된다. 따라서 본 절의 병치 작업은 두 집단에서 관찰된 분기 양상과 각 집단의 기존 서사 V2 분포 차이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됨'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친다. 성별 축의 V2 분포 편차가 실제로 분기 방향을 결정하는 인과 기제인지, 아니면 두 변수 모두가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역사적 사건이나 두 커뮤니티의 선별적 구성이라는 제3의 조건이 낳은 결과인지에 대한 규명은 성별 축의 V2 분포와 서사적 분기 방향의 관계를 직접 측정하는 후속 경험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서사의 질을 평가하는 세 기준은 단순한 평가 항목이 아니라, 1부의 형식 이론에서 도입한 V 변수 체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별도의 변수 축을 구성한다. 본 논문은 이 세 기준을 각각 Q1(사실적 부합성), Q2(내적 정합성), Q3(양산하는 구조의 성격)으로 형식화한다. V 변수가 구조-서사 관계의 시간적·분포적 기하학을 기술한다면, Q 변수는 그 기하학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서사의 내용적 성격을 평가한다. 두 변수 축의 분리는 5.1절에서 제시한 형식 이론과 서사 평가 이론의 분리에 대응하며, 동시에 두 이론이 변수 차원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는 경로를 연다. 예컨대 doxa가 사망한 이후 형성된 대안 서사는 V1 축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 해당하지만, Q 축에서 낮은 값을 가질 수 있다. 4.4절의 아노미적 고통과 2부 V 장의 해악적 대안 서사(레드필, 배타적 래디컬 페미니즘)가 발생하는 조건이 정확히 이 V-Q 조합의 특정 지점이다.

5.2절에서 제시한 Q1·Q2·Q3를 적용하면 해악적 대안 서사들의 문제점이 명확해진다. 레드필 이론과 배타적 래디컬 페미니즘은 표면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삶의 곤란을 단일 인과 원인으로 환원하고, 명확한 적대 집단을 설정해 ‘우리/그들’ 경계를 구축하며, 그 안에서 따라야 할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사 구조상 동형적이다. Q1(사실적 부합성)은 낮고, Q3(양산하는 구조)는 배제적이다. 이 두 서사는 4.4 아노미적 공백을 메우려는 대안 서사로 등장했지만, Q 변수에서의 낮은 값 때문에 아노미를 해소하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하는

경로로 작동한다. V1 축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Q 축에서 낮은 질의 서사가 채워졌기 때문에 고통의 해소가 아니라 고통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동일한 기준은 FIRE·비혼·로컬 라이프에도 적용될 수 있다. FIRE는 종잡돈 형성이 가능한 소득 조건을 전제하므로 사실적 부합성 측면에서 계층적으로 제한된 서사이고, 내적 정합성은 높지만 양산하는 구조 측면에서는 조기 은퇴를 실현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사이의 서사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비혼 서사는 결혼 없이도 다양한 생애 경로가 실현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실적 부합성이 높고 내적 정합성도 양호하지만, 양산하는 구조 측면에서는 돌봄·연대 네트워크의 개인화를 가속할 위험이 있다. 로컬 라이프는 지역 인프라와 일자리 기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실적 부합성이 크게 달라지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서사가 공허한 믿음에 머무르는 패턴에 해당한다. 이 평가는 잠정적이며, 각 서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는다.

결국 한국 청년 세대에서 대안 서사의 탐색은 분명히 시작되었고, 이는 3.3절에서 기술한 아노미 상태에 대한 자발적 대응으로 읽을 수 있다. 그 탐색이 개인 수준에서 유효한 의미 체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할 때 아노미는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대안 서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

결론

본 논문은 하나의 직관에서 출발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도 방황하고, 원하던 것을 얻은 사람도 공허함을 느끼며, 가난이 아니라 방향의 상실이 고통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직관이다.

1부에서 구축한 것은 다음의 이론적 연쇄다. 전-서사적 현실과의 상호작용에서 서사가 형성되고, 외재화·객관화·내재화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doxa 상태의 지배 서사로 고착된다. 지배 서사의 집합적 내재화는 새로운 구조를 생산하며, 그 구조는 헤게모니, 자기생산, 합리화의 세 경로를 통해 과생 서사를 재생산한다. 구조적 조건이 변화하면 서사의 사실적 부합성이 저하되고, 서사가 약속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 서사 붕괴가 시작된다. 붕괴는 기능 저하와 소멸의 스펙트럼 위에서 진행되며, 구조적 조건을 상실한 서사가 서사적 토대를 통해 잠복 상태로 존속할 수 있다. 붕괴 이후 개인이 의미 있는 서사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가 아노미다. 고통의 유형론은 서사와의 관계 상태에 따라 네 가지 상이한 메커니즘을 분리하고, 형식과 서사 평가 이론의 분리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서사들이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양산한다는 점을 포착한다.

2부에서 이 모델을 한국 청년 세대에 적용한 결과, 이론적 명제들이 경험적으로 식별 가능한 형태로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국가가 생산한 생애경로 서사가 집합적 내재화를 거쳐 사교육 시장·학벌 기반 채용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구조가 다음 세대에게 지탱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원이 망각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1997년 이후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서사의 사실적 부합성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나 가치적·규범적 충위가 강하게 잔존하는 비대칭적 기능 저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고, 네 유형의 고통이 각각 상이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 분석의 핵심적 귀결은 현재의 아노미가 단순한 경제적 박탈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통의 네 유형이 상이한 처방을 요구한다는 점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서사 내부의 자기 착취는 서사의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적 거리의 확보를 요구하며, 이중 구속의 고통은 규범적 충위의 관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ISA)와 세대 간 합리화 경로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아노미적 고통은 대안 서사의 탐색이 가능한 조건의 마련을 요구한다.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은 서사적 개입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구조적 조건의 회복만이 유효한 개입이다.

이중 구속은 한계이자 동시에 출발점이다. 서사와 구조가 서로를 전제하는 한, 변화는 항상 모순과 비용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중 구속이 구조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거나 완전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어떤 서사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doxa가 될 수 없고, 어떤 사회에도 비-doxa 상태에서 지배 서사를 관찰

하고 비틀어 보는 집단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doxa 동질화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역사적 실험이었다. 그럼에도 내부의 저항과 지하 네트워크, 외부의 대안 서사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고, 체제는 결국 붕괴했다.

이하의 논의는 형식 이론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나, 서사 평가 이론의 관점에서 제안되는 실천적·윤리적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 명제로서 반증의 대상이 아니라, 이 논문이 분석한 구조 안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학적 입장이다.

III장에서 본 것처럼, 서사의 붕괴 이후 한국 청년은 완전한 아노미(4.4)와 구조적 강제(4.5) 사이에서, 기존 서사를 모두 불신하면서도 새로운 서사를 쉽게 구성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V장에서 검토한 대안 서사들(FIRE, N잡, 로컬, 비혼, 레드필 등)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지만, 구조적 조건의 제약과 단독화 요구 속에서 쉽게 소진되거나 또 다른 배제를 생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문제는 “서사를 믿을 것인가/부정할 것인가”의 이분법 자체이며, 서사 일반에 대한 냉소와 새로운 doxa로의 복귀 사이를 가르는 제3의 태도가 필요하다. Ricoeur가 말한 *seconde naïveté*는 바로 이러한 제3의 태도다. 이 태도는 2.1절에서 정초한 인간학적 입장—건강함의 기준이 자연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서사화 역량의 적절한 발휘와 갱신에 있다는 입장—의 실천적 발현이다. 인간학적 토대가 종 차원의 생존 조건을 기술한다면, *seconde naïveté*는 그 토대 위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윤리적 자세를 명명한다. 두 개념은 같은 인간 조건의 두 측면, 즉 가능 조건과 실천 양식을 각각 가리킨다. 이는 서사를 더 이상 순진하게 사실로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서사를 허구로 치부하고 의미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거부하는 입장이다. 한국 청년 세대의 조건에 대입하면, *seconde naïveté*는 “대학-정규직-결혼-내 집” 서사의 기원과 붕괴 과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뒤에도, 그 서사를 포함한 과거의 잠복 서사들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덜 해로운 서사로 재구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전유하려는 태도에 가깝다. 이는 Beck이 말한 *Wahlbiographie*처럼 “각자 알아서 서사를 만들라”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V1)과 doxa 분포(V2/V3)를 인식한 상태에서, 잠복 서사와 균열을 통해 다른 생애 경로를 조심스럽게 꿰맞추려는 실천적 태도다.

이 제3의 태도의 가능성은 사실 1부의 형식 이론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1.3절에서 논의한 관찰자 의존성의 구조는 서사가 doxa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균열의 순간—을 이론적으로 기술했다. 그 순간 개인은 자신이 살아온 서사를 처음으로 서사로서 인식한다. 이 인식은 되돌릴 수 없다. 한번 서사가 서사로 보이기 시작한 사람은 첫 번째 순진함, 즉 서사를 세계 자체로 살아가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 불가역성이 곧 냉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사가 구성물임을 안다는 것과 서사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명제다. 전자는 인식론적 진술이고 후자는 실존적 불가능성이다. 이 간극에서 제3의 태도가 자리한다

앞에서 논의한 네 위치 — 서사 내부의 고통, 이중 구속의 고통, 아노미적 고통, 구조적 강제에 의한 고통 — 는 각각 특정 서사에 머물거나, 서사와 구조 사이에서 길을 잃거나, 서사 바깥에서 구조에 압도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seconde naïveté*는 이 네 위치와 달리, 서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도, 하나의 서사가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대신 5.2절에서 제시한 상대적 평가 기준에 기반하여, 복수의 서사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서사를 선택하고, 그 서사를 구성물로 인식한 채로 임시적인 자기 이야기를 짜 나가려는 실천적·윤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한국 청년의 맥락에서 *seconde naïveté*는 생애 경로 서사의 붕괴 이후 등장한 대안 서사들을 단순한 탈주나 전면적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 서사의 해악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면서도, 완전히 서사 없는 삶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선택된 서사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는 태도로 구체화될 수 있다.

본 논문이 구축한 형식 이론은 한국 청년 세대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그 형식적 구조 자체는 다른 사회의 서사 형성·붕괴 과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장한다. 이 가능성의 토대는 다음의 인간학적 명제에 있다. 서사화 역량은 인간 중 일반의 진화적 조건이지만, 그 역량이 활성화되는 환경은 사회마다 다르다. 보편 메커니즘과 특수 환경의 조합이라는 이 구조는 사례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형식 단위를 제공하며, 비슷한 구조적 조건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서사가 형성되고 다른 조건에서는 다른 서사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칼뱅주의 서사가 자본 축적의 구조적 조건과 결합하여 직업 소명의 *doxa*로 발전한 과정, 유교 서사가 농경 사회와 관료제적 통치 구조와 결합하여 군자 수양의 *doxa*로 발전한 과정은, 본 논문이 한국 학벌 서사에 대해 분석한 셋째 경우에서 넷째 경우로의 이행과 동형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 동형성은 사례들의 내용이 같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형성은 분석의 형식 단위가 사례를 가로질러 적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형식적 토대 위에서 본 연구 프로그램은 칼뱅주의와 유교를 사례로 삼아 본 형식 이론의 일반성을 시험하는 후속 작업으로 이어진다. 다만 본 논문은 형식 이론의 비교 적용 가능성을 명시하는 데 그치며, 한국 사례 외부에 대한 실제 분석은 후속 논문의 과제로 남긴다.

본 논문은 V1(구조 변화와 서사·*doxa* 조정 속도의 간극), V2(*doxa* 강도), V3(*doxa* 밀도)라는 세 변인을 중심으로 서사 붕괴와 고통의 네 유형을 형식 이론으로 제시하고, 거시·중범위 지표와 2차 자료를 통해 그 예측적 함의를 1차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러나 *doxa*의 강도와 잠복 서사의 양상, 이중 구속과 아노미가 행위자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서사적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검증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이 이론 모형을 미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한국 청년을 대

상으로 다음과 같은 심층 인터뷰가 필요하다. (1) “왜 대학 혹은 특정 경로를 선택했는가”를 통해 V2(doxa 강도)를 간접 측정하고, (2)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잠복 서사와 자기 비난 패턴을 포착하며, (3)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으로 아노미적 경험을, (4) “원해서 선택한 경로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로를 구분해 말해달라”는 요청을 통해 구조적 강제의 체감 양상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 인터뷰 연구는, 본 논문이 제시한 V1·V2·V3 모형과 고통의 네 유형이 실제 행위자의 서사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상호 전환되는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동시에, 서사 평가 이론의 기준들을 경험적으로 세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지가 실현될지는 구조적 조건과 서사적 토대의 결합에 달려 있으며, 이 결합의 구체적 양상을 추적하는 것이 이 논문이 다음으로 제기하는 과제다.

본 논문은 이론 구축 논문으로서 서사의 형성과 붕괴의 메커니즘을 기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이론적 작업이 수행된 이후, 그 이론 자체의 인식론적 지위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본 논문이 제시한 서사 이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다. 서사 이론 자체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인과적 이해 구조이며, 특정한 현상에 대해 특정한 인과적 해석을 제시하고 그 해석에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 자기 참조적 구조는 이론의 약점이 아니다. 서사가 인간 인식의 보편적 양식이라는 전제가 참이라면, 그 전제를 주장하는 이론 자체도 서사여야 한다. 자기 자신만을 예외로 두는 이론이야말로 내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며, 서사 이론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론의 자기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의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

나의 업적을 보라, 강대한 자들이여, 그리고 절망하라!

그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거대한 잔해의

폐허 둘레로, 끝없이 황량한

모래벌판만이 아득히 펼쳐져 있을 뿐이다.

퍼시 비시 셸리, 「오지만디아스」 (1818)

비문은 서사가 만든 구조의 잔해다. 도시는 사라졌지만 돌은 남았다. 서사를 지탱하던 구조적 조건은 소멸했으나, 서사가 만든 구조는 부분적으로 존속한다

— 2.3절에서 분석한 바로 그 비대칭이 사막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폐허 자체가 아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서사를 세우는 존재의 조건이다. 서사의 형성과 해체는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며, 어떤 서사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doxa가 될 수 없다는 이 논문의 명제가 참이라면, 모든 서사는 자신의 붕괴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 이 인식은 특정 서사를 절대화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며, 그 억제가 작동하는 한에서 — 보증이 아니라 조건으로서 — 덜 배타적이고 덜 해로운 서사를 구성할 여지가 열린다.

참고문헌

영문 문헌

- Althusser, L.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B. Brewster, Trans.).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pp. 127–186). Monthly Review Press.
- Bartlett, F. C. (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uhrkamp.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M. Ritter, Trans.). Sage.
- Berger, P. L.,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Doubleday.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R. Nice,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Braudel, F. (1979). La dynamique du capitalisme. Paris, France: Arthaud.
- Braudel, F. (1981). The structures of everyday life: The limits of the possible (S. Reynolds, Trans.). New York, NY: Harper & Row.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ke, P. (2019). The French historical revolution: The Annales school, 1929–2014 (2nd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iamond, J. (1997).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W. W. Norton.
- Durkheim, É. (1893).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Félix Alcan.
- Durkheim, É. (1897). Le Suicide: Étude de sociologie. Félix Alcan.
- Edelman. (2025). 2025 Edelman Trust Barometer. <https://www.edelman.com/trust-barometer>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A. Sheridan, Trans.). Pantheo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75)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Polity Press.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Q. Hoare & G. N. Smith, Eds. & Trans.). Lawrence and Wishart.
- Han, B.-C. (2015). The burnout society (E. Butler, Trans.). Stan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 Hobbes, T. (1996). Leviathan (R. Tuck,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51)
-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Zur moral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Suhrkamp.
- Honneth, A.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J.

Anderson, Trans.). MIT Press.

- Honneth, A. (2011). *Das Recht der Freiheit: Grundriß einer demokratischen Sittlichkeit*. Suhrkamp.
- Honneth, A. (2014). *Freedom's right: The social foundations of democratic life* (J. Ganahl, 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2.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Kohli, M. (1986). The world we forgot: A historical review of the life course. In V. W. Marshall (Ed.), *Later life: The social psychology of aging* (pp. 271-303). Sage.
- Lange, F. A. (1866). *Geschichte des Materialismus und Kritik seiner Bedeutung in der Gegenwart* (Vol. 1). Iserlohn, Germany: J. Baedeker.
- Lee, S., Kim, H., & Park, J. (2020). The negative impact of long working hours on mental health in young Korean work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32, e24.
- Legatum Institute. (2023).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 <https://www.prosperity.com>
- Litz, B. T., Stein, N., Delaney, E., Lebowitz, L., Nash, W. P., Silva, C., & Maguen, S. (2009). Moral injury and moral repair in war veterans: A preliminary model and intervention strate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8), 695-706. <https://doi.org/10.1016/j.cpr.2009.07.003>
- Luhmann, N. (1995). *Social systems* (J. Bednarz Jr. & D. Baecker, Trans.). Stan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Lyotard, J.-F.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G. Bennington & B. Massumi,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nnheim, K. (1936).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L. Wirth & E. Shiels, Trans.). Harcourt, Brace and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1929)
- Marx, K. (1844).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 Mauss, M. (1973). *Techniques of the body* (B. Brewster, Trans.). *Economy and Society*, 2(1), 70-88. (Original work published 1934)
- Meinecke, F. (1924). *Die Idee der Staatsräson in der neueren Geschichte*. Munich, Germany: R. Oldenbourg.
- Meinecke, F. (1936). *Die Entstehung des Historismus*. Munich, Germany: R. Oldenbourg.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Miller, N. E. (1944). Experimental studies of conflict. In J. McV. Hunt (Ed.), *Personality and the behavior disorders* (pp. 431-465). Ronald Press.
- Newman, N., Fletcher, R., Robertson, C. T., Eddy, K., & Nielsen, R. K. (2022).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2.
- Nipperdey, T. (1983). *Deutsche Geschichte 1800-1866: Bürgerwelt und starker Staat*. Munich, Germany: C. H. Beck.
- Nipperdey, T. (1987). *Deutsche Geschichte 1866-1918. Erster Band: Arbeitswelt und Bürgergeist*. Munich, Germany: C. H. Beck.
- Nipperdey, T. (1992). *Deutsche Geschichte 1866-1918. Zweiter Band: Machtstaat vor der Demokratie*. Munich, Germany: C. H. Beck.
- Ogburn, W. F. (1922). *Social change with respect to culture and original nature*. B. W.

Huebsch.

- Park, J. (2025, December 15). 3 in 10 young people feel burned out over job hunt, working conditions. Korea JoongAng Daily.
- Popper, K. (1959).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Hutchinson. (Original work published 1934)
- Putnam, H. (2002). The collapse of the fact/value dichotomy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 Ranke, L. von. (1973). The theory and practice of history (G. G. Iggers, Ed.). Bobbs-Merrill.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Reckwitz, A. (2002). Toward a theory of social practices: A development in culturalist theoriz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2), 243-263.
- Reckwitz, A. (2017). Die Gesellschaft der Singularitäten: Zum Strukturwandel der Moderne. Suhrkamp.
- Ricoeur, P. (1983-1985). Temps et récit (Vols. 1-3). Éditions du Seuil.
- Ricoeur, P. (1990). Soi-même comme un autre. Éditions du Seuil.
- Rosa, H. (2005). Beschleunigung: Die Veränderung der Zeitstrukturen in der Moderne. Suhrkamp.
- Rosa, H. (2016). Resonanz: Eine Soziologie der Weltbeziehung. Suhrkamp.
- Rousseau, J.-J. (2003).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 Flammarion. (Original work published 1755)
- Salkovskis, P. M. (1991). The importance of behaviour in the maintenance of anxiety and panic: A cognitive account. *Behavioural Psychotherapy*, 19(1), 6-19. <https://doi.org/10.1017/S0141347300011472>
- Schank, R. C., & Abelson, R. P. (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structures. Lawrence Erlbaum.
- Seligman, M. E. P., & Maier, S. F. (1967). Failure to escape traumatic shock.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4(1), 1-9. <https://doi.org/10.1037/h0024514>
- Shay, J. (1994). Achilles in Vietnam: Combat trauma and the undoing of character. Atheneum.
- Somers, M. R. (1994). The narrative constitution of identity: A relational and network approach. *Theory and Society*, 23(5), 605-649.
- Tomasello, M. (1999). The cultural origins of human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Tomasello, M. (2005).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Weber, M. (1930).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 Parsons, Trans.). Allen & Unwin. (Original work published 1904-1905)
- Žižek, S. (1989).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Verso.

국문 문헌

- YBM 한국TOEIC위원회. (2026). 2025년 토익 정기시험 성적 분석. 토익스토리.

- 강상진. (2009). 교육의 경제적 성과. 한국사회의 동향. 국가데이터처.
- 경향신문. (2011, 1월 7일). 연애·결혼·출산 포기 '삼포세대'. 경향신문.
- 고용노동부. (n.d.).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 <https://www.moel.go.kr>
- 국무조정실. (2024).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 김기홍. (2019a).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KLI 패널 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정·조명아·이정윤. (2022).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20-30대 여성의 주식 담론: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2), 257-288.
-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 (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지경, 이여봉, 정재훈. (2025). 청년층의 탈표준화된 생애과정은 계층화되었는가?: 1950-1980년대 코호트 비교분석 [미출판 원고].
- 남춘호. (2015). 생애과정의 탈표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남성들의 성인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관저장소.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락. (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II):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인성. (2022). 밈과 신조어로 읽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부족주의: 남초 커뮤니티의 정서적 평등주의와 위임된 성장서사. 대중서사연구, 28(2), 59-93.
- 보건복지부.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25, 3월). 2024년도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보도자료].
- 사람인. (n.d.-a). N포세대 관련 설문조사 자료.
- 사람인. (n.d.-b). 대학생 298명 대상 가정환경 박탈감 설문조사 자료.
- 세계일보. (2016, 2월 10일). [청년이 미래다] 우리는 왜 'N포세대'가 됐나. 세계일보.
- 손요한. (2025, 3월 17일). '신뢰의 파산' 28개국 중 27위에 머문 한국 사회. 플레툼.
- 심재형, 김예진, 박지수. (2025). 대학 진학 동기 및 대학 인식 설문조사. 국민대신문, (1011).
- 심재형, 이동한, 정재민. (2025). [2025 교육인식조사] 학력주의 및 사교육 인식. 한국리서치.
- 오삼일, 강달현. (2019).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 조선비즈. (2024, 1월 22일). [청년빈곤시대]① 학자금 대출에 빚투, 결국 불법사채로... 조선비즈.
- 통계청.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 통계청. (2024a). 2024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통계청. (2024b). 국민 삶의 질 2024. 통계청.
- 통계청. (2024c).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 2022·2024년 비교 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2025b).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보도자료].
- 통계청. (n.d.-a). 교육비 부담도.
- 통계청. (n.d.-b). 교육 수준별 대학진학률.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n.d.-c).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국가지표].
- 통계청. (n.d.-d). 취학률 및 진학률 [국가지표].
- 통계청·교육부. (2025).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겨레. (2017, 1월 5일). 학자금대출서 신용불량까지... 고착화된 청년부채 악순환. 한겨레.
- 한국경제연구원. (2023, 3월 9일). 사회적 자본인 신뢰 회복 위해 투명성 개선해야 [보도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임신·일용 근로자 규모 관련 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n.d.).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 <http://www.ksli.org>
- 한국리서치. (2024). 대학 진학 필요성 관련 여론조사. 한국리서치.
- 한국리서치. (2025a). 결혼 의향 및 미혼 이유 관련 여론조사. 한국리서치.
- 한국리서치. (2025b, 3월). 결혼 의향 조사: 여론 속의 여론 정기조사.
- 한국일보. (2015, 9월 7일). '오포세대'를 아십니까. 한국일보.
- 현대경제연구원. (2007a). 대기업·공기업·금융업 안정 일자리 관련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2007b).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